정답 및 해설

고등 내신 1등급을 위한 기출문제집

100발100중

고등 기출 문제집

공통 국어 2

2학기 · 전과정

천재

김종철



1 우리 문학이 걸어온 길

(1) 가시리 외 두 편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12~017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①	06 ⑤	07 ⑤	08 ①
0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①	14 ⑤	15 ①	16 ⑤
17 ②	18 ③	19 ①	20 ⑤	21 ⑤	22 ③	23 ①	24 ④
25 ③	26 ④						

01 (가)는 고려 시대 민간에서 불린 고려 속요로 조선 시대 궁중 음악의 가사로 쓰이기도 했으나, 고려 후기에 등장한 갈래가 아니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시가는 평시조이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3) 가시리(3)잇고(2) / ᄇᆞ리고(3) 가시리(3)잇고(2)'에서 3·3·2조, 3음보의 율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1연)–승(2연)–전(3연)–결(4연)'의 구성이 드러나고 있다. ③ 각 연에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의 후렴구를 통해 각 연을 나누는 분연체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1, 2연에서는 원망, 3연에서는 체념, 4연에서는 재회의 소망이 나타나므로, 시상이 전개됨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02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는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이다. 이는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대평성대'를 기원하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리듬을 형성하기 위한 의미 없는 내용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각 연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연과 연을 구분하는 기능을 한다. ③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이다. ④ 각 연의 끝부분에서 반복되는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⑤ 각 연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작품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03 3연(전)에서 화자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한 자신의 태도로 인해 임의 마음이 상하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임을 보내는 것이지, 떠나는 임을 위해 슬픔을 인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1연(기)에서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의 의문형을 통해 화자가 임의 의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이 떠나지 않기를 애원하고 있다. ② 2연(승)에서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를 통해 임이 떠나면 죽을 만큼 힘들 것이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전)에서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⑤ 4연(결)에서 '셜온 님 보내옵노니'를 통해 임을 보내는 화자의 태도가, '가시는 ᄃᆞᆺ 도셔 오쇼셔'를 통해 임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04 화자는 자연물인 '묏버들'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하는 대구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드러낸 화자의 정서는 변함이 없다. ④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가)와 (나)는 모두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나) 모두 상대방의 덕을 송축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민중의 적극적인 생활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안빈낙도하는 삶을 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자연물인 '묏버들'에 의탁해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으나 (가)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가)에 감정의 절제를 통해 임을 보내는 상황에 대한 체념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가시는 ᄃᆞᆺ 도셔 오쇼셔'에서 알 수 있듯이 임과의 재회를 기원하는 태도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따라서 임을 잊어야만 하는 숙명을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고려 속요로서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② '나는'은 특별한 의미 없이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이다. ③ 후렴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드러나고 있다. ④ 평민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07 (가)의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는 ~ 셜온 님 보내옵노니'를 통해 화자가 붙잡고 싶었던 임을 보내 주었으며, 〈보기〉의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를 통해 임에게 소식이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애초에는 임을 보내는 것을 망설였음을 알 수 있으나, 〈보기〉에서 임을 보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를 통해 임을 보냈음을 알 수 있으나 〈보기〉에서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심정이 드러나므로, 임을 떠나보내고 처음에는 그리웠지만 이제는 괜찮아졌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임이 화자를 버리고 떠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화자가 임을 버렸는데 이제는 임이 화자를 버렸다고 할 수 없다. ④ 〈보기〉의 '죽림 푸른 곳에 새 소리 더욱 섧다. ~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 말동 하여라.'를 통해 임의 부재로 인해 괴로워하는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으므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헤어질 때 왜 그렇게 애달파했냐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Plus 〈보기〉 규원가_허난설헌

갈래	규방 가사
성격	한탄적, 애상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恨)
해제	조선 중기에 허난설헌이 지은 규방 가사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규방에서 속절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늙어 가는 여인의 애처로운 정한(情恨)을 노래함.

08 ㉠의 '나는'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운율을 형성하는 의미 없는 여음이므로,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은 임을 붙잡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임이) 마음 상하면 아니 올까 두렵다.'라는 의미로, 임을 붙잡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염려가 드러나 있다. ③ ㉢은 '가시자마자 돌아오소서.'라는 뜻으로, 임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④ ㉣은 묏버들을 '골라 꺾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정성을 알 수 있다. ⑤ ㉤은 '새님'을 자신으로 여겨 달라는 부탁이므로, 임이 자신을 잊지 말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다.

09 (나)에 색채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연물인 '묏버들'을 이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초장에서 도치법을 사용하고 있다. ⑤ 어미 '–쇼셔'를 통해 화자가 임에게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에서 '테이프에 녹음한 노래'는 '나'와 '친구'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나)에서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묏버들'에 대응된다.

오답 해설 ② '님'은 화자가 사랑한 대상으로 〈보기〉의 '친구'에 대응된다. ③ '창'은 밖에 심어 둔 묏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이다. ④ '밧'은 임이 '묏버들'을 심어 두기를 바라는 곳이다. ⑤ '밤비'는 임이 화자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임과 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보기 어렵다.

11 (가)는 '브리고 가시리잇고'의 반복을 통해, (나)는 '가도 아주 가지는 / 않노라시던(않노라심은)'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와 달리 (가)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② (나)는 이별 장소인 '개여울'을 배경으로 이별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지만, (가)에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나)의 '당신'을 개여울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 볼 경우 관찰자의 시선을 취하는 화자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가)는 표면적 화자인 '나'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2 (가)의 화자는 청자인 '셜온 님'에게 이별을 만류하는 뜻을 직접 호소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기〉의 화자는 '저도 날 생각하는가'라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임'이 청자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가)에 나타난 임과의 이별 상황은 〈보기〉의 초장에 '이화우 흩뿌릴 제'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가)에 나타난 임에 대한 사랑은 〈보기〉에서도 변함이 없어 '꿈'을 꾸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보기〉의 초장과 중장은 이별한 이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가) 이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가)에 나타난, 임이 가자마자 돌아왔으면 하는 염원과는 달리 〈보기〉에서 임은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

Plus 〈보기〉 이화우 흩뿌릴 제_계랑

갈래	평시조
성격	감상적, 애상적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해제	기생 계랑의 시조로, '이화우', '추풍 낙엽' 등의 하강적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냄.

13 화자는 '가도 아주 가지는 / 않노라시던' '당신'의 말을 '약속'이라 생각하며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임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임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당신'의 약속을 잊지 말아 달라는 부탁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당신'이 자신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당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당신'과의 이별을 체념하고 있지도,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있지도 않다. ⑤ 화자는 '당신'이 떠나며 남긴 말을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14 ㉠은 화자가 '당신'과의 재회를 바라는 공간이지만, 재회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3연을 통해 화자가 '당신'과 이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② 2연을 통해 봄의 생명력과 생동감이 느껴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③ 3연을 통해 화자가 '당신'과의 약속을 떠올리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④ 1, 4연을 통해 화자가 '당신'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15 〈진달래꽃〉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가)의 화자와 같이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내 드리겠다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화자는 사랑을 잃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꽃씨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소시민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밝아 올 아침을 기다리며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16 화자가 관찰한 대상이 '당신'인 ㉯의 경우라면 '당신'이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인 ㉮의 경우보다 이별의 정한을 더욱 애절하게 드러내기 어려울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경우라면, '당신은 무슨 일로 / 그리합니까?'를 통해 화자는 오지 않는 '당신'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경우라면, 3연을 통해 화자는 '당신'과 헤어진 개여울에 주저앉아서 '당신'이 한 약속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의 경우라면, 1연을 통해 화자는 홀로 개여울에 앉아 있는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의 경우라면, 화자는 3연의 '있었겠지요'와 같이 '당신'의 행동을 통해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추정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7 (나)는 7·5조, (가)는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나므로, (가)와 (나) 모두 음수율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나)와 달리 각 연의 끝부분에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의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가시리∨가시리∨잇고', (나)는 '당신은∨무슨 일로∨그리합니까?'와 같이 3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는 '브리고 가시리잇고'의 반복을, (나)는 '가도 아주 가지는'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각 연의 행의 수를 3행으로 동일하게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8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서운하면 안 올 것 같은' 임의 반응에 대한 염려가 이별을 수용하는 화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서운한' 것은 임의 반응이지 세상의 평판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가시렵니까'라는 질문을 거듭함으로써 떠나려는 임의 행위에 대한 원망과 임이 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잡는 것은 임과의 이별을 막는 것이고 이는 곧 현재의 사랑을 지키는 행위가 된다. 화자는 이런 행위를 하고 싶다고 표현함으로써 사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바람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임이 가는 것을 화자가 보내는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이별을 수용하는 한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가 바라는 임의 행위를 '오쇼셔(오십시오)'라는 명령형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임이 돌아오는 것은 화자와의 재회를 의미하므로,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에는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19 (가)~(다)는 모두 임과 이별의 상황에 처한 화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는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나)는 묏버들, (다)는 개여울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④ (가)~(다)는 모두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화 형식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다)의 '파릇한 풀포기'에서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가)와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20 (나)와 달리 (다)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4연을 통해 임과의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묏버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랑을 임에게 전하고 있다. ③ (다)의 화자는 3연을 통해 임의 약속을 생각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4연과 (다)의 3, 5연을 통해 (가)와 (다)의 화자는 모두 임과의 재회를 소망하고 있다.

21 3·4조의 음수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나)와 달리 (다)는 7·5조의 음수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의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묏버들∨갈히 것거∨보내노라∨님의손ᄃᆡ'와 같이 4음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다)는 1, 4연, 3, 5연에서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3음보의 동일한 음보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2 ㉡의 '창밖'은 화자의 분신인 묏버들이 심어진 공간으로, 임 가까이 있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

가 임에게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엇디'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의 의미로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막막함이 드러난다. ② ㉡의 '선ᄒᆞ면(서운하면)'은 가정적 표현으로, 임의 마음을 헤아려 이별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 ㉣의 '주저앉아서'는 임과 이별한 개여울에서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애처로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⑤ ㉤의 '하염없이'는 '시름에 싸여 이렇다고 할 만한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멍하니', '끝맺는 데가 없이'의 뜻으로 이별의 상황에서 임이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는 화자의 애절한 모습이 드러난다.

23 (다)에서 현재의 화자는 '당신'과의 약속을 생각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나,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3연을 통해 과거의 '당신'은 화자에게 돌아올 것이라 약속하고 떠났음을 알 수 있다. ③ 1, 4연을 통해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후 현재까지 개여울에서 변함없이 임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4연을 통해 현재의 화자는 '당신'과 이별한 개여울에서 약속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연을 통해 현재의 화자는 '당신'이 한 말의 의미가 자신을 잊지 말라는 부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A]의 생동감 넘치는 봄의 풍경은 이별한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자연 풍경으로,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봄의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봄의 풍경을 드러내고 있으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계절적 배경은 화자의 심리와 대비되고 있으므로 화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이별 상황의 개여울의 분위기를 묘사하여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으나 화자의 기대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나)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기 위해 '묏버들'을 관조와 사색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정감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 친화적인 사고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고려 속요, (나)는 평시조로 모두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적 특성을 보여 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다)는 현대 시로 (가), (나)로 이어진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④ (가)는 고려 속요의 3음보 율격(가시리∨가시리∨잇고)이, (나)는 시조의 4음보 율격(묏버들∨갈히 것거∨보내노라∨님의 손ᄃᆡ)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⑤ (다)는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려 속요인 (가)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26 ⓐ는 이별한 임에 대한 화자의 정표로서 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 화자는 임에게 ⓐ를 보냄으로써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으로, ⓐ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 임의 부재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18~023쪽

01 ②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④	07 ③	08 ③
09 ③	10 ④	11 ②	12 ②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④	18 ⑤	19 ②	20 ⑤	21 ③	22 ②		

▸ (나) 토란잎에 궁그는 물방울같이는_복효근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시각적, 비유적
주제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의 의미
해제	토란잎에 맺힌 물방울의 모습을 통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 상대를 배려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랑의 의미를 성찰함.

01 (나)는 (가)와 달리 토란잎에 맺히는 물방을 소재로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자연 현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는 모두 특정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에는 모두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02 ㉡은 임을 붙잡고 싶은 화자의 욕망과 이별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면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반어적 표현을 통해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 반복되고 있는 '가시리잇고'는 이별에서 오는 충격이 화자에게 매우 큼을 강조하고 있다. ③ ㉢은 떠나는 임의 행위를 화자가 임을 보내 드리는 행위로 전도하여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감정을 풍부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의 '궁글궁글'은 '물방울'의 맑고 투명한 형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음성 상징어이다. ⑤ ㉤은 '토란잎이 물방울을 털어 내기도 전에' 물방울이 먼저 사라진다는 의미로, 의인화된 대상의 행위를 통해 사랑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03 (가)의 1연의 1, 2행과 2연의 2행은 의문형 종결 어미로 행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행은 연결 어미, 기원을 표현하는 종결 어미가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가)의 1연, 2연, 4연에서 여음인 '나ᄂᆞᆫ'을 반복하고 있다. ② (가)는 각 연의 행의 수를 3행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④ (나)는 첫 행을 '그걸 내 마음이라 부르면 안 되나.', 끝 행을 '그 마음을 사랑이라 부르면 안 되나.'와 같이 유사한 구조를 가진 행으로 구성하여 수미상관 구조를 보이고 있다. ⑤ (나)에서는 2행, 4행, 6행을 '토란잎이'로 시작하고 있다.

04 1연과 2연에는 임을 원망하고 임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이별의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3연과 4연에서 임의 반응을 염려하여 이별을 수용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현실을 업신여기거나 비웃는 태도, 즉 냉소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② 임을 예찬하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별에 대한 역설적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⑤ 이별의 상황을 소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 이별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나) 어이 못 오던가_작자 미상

핵심 정리

갈래	사설시조
성격	해학적, 과장적
주제	임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
해제	임이 오지 못하는 이유를 과장법과 연쇄법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을 직설적으로 표현함.

05 (가)는 '가시리잇고(가시렵니까)'에서 의문형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원망을, (나)는 '어이 못 오던가'에서 의문형을 활용하여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애타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와 달리 (나)는 열거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모두 감탄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가)의 화자는 이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며 임을 떠나보내지만 임이 곧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오지 않는 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자신을 찾아와 볼 하루가 없느냐고 임을 원망하고 있으므로,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는 이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거나 임을 보낸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 또한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볼 하루 없으랴'에서 임을 원망하고 있으므로 임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화자는 임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을 뿐, 임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과거의 행동을 자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을 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고, (나)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므로, 화자가 이별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거나 차분한 마음으로 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07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는 이별의 상황에서 오는 애절한 심정으로 임에게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는 마음이 고조된 표현으로, 임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ㅅ가시리ㅅ잇고'는 3글자, 3글자, 2글자로 된 3·3·2조의 3음보로 되어 있다. ②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각 연의 마지막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후렴구로 음악적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④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임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의미로,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⑤ '셜온 님 보내옵노니'는 떠나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임을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한'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08 (다)뿐만 아니라 (나)에서도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나), (다)와 달리 여음 '나ᄂᆞᆫ'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나)는 '보내노라 님의손ᄃᆡ(보내노라 님에게)'에서 (가), (다)와 달리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여 묏버들을 보내는 화자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표면적 화자인 '나'를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가시리ㅅ가시리ㅅ잇고', (다)는 '당신은ㅅ무슨 일로ㅅ그리합니까?'와 같이 3음보의 율격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은 화자가 보낸 묏버들을 임이 자신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드러낸 것이지, 임과 재회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가시리잇고'를 통해 임과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가 드러난다. ② ㉡은 '서운하면(마음 상하면) 아니 올까 두렵다.'라는 뜻으로, 화자가 적극적으로 임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가 드러난다. ④ ㉣은 임의 말을 돌아오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임과의 재회를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⑤ ㉤은 임의 말이 약속이 아닐 수도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통해 임의 말에 대한 화자의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0 ⓑ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라면, 화자가 관찰하고 사연을 추정하여 드러내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당신'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이라고 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임과 이별하는 시적 상황으로 볼 때 ⓐ의 주체는 화자이다. 이별을 서러워하는 사람은 화자인데 임이 서럽다고 전도하여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표면상 의미로 볼 때 주체를 '님'으로 볼 수 있다. ③ ⓑ의 '당신'이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라면, '개여울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⑤ ⓑ의 '당신'이 화자와 이별한 대상이라면, 화자가 재회하기를 바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1 (가)의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서운하면 돌아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뜻으로, 가정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이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의문형 문장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으나, 설의적 표현을 활용한 것은 아니다. ③ (나)는 객관적 상관물인 묏버들을 활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으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는 '심거 두고 보쇼셔', '날인가도 너기쇼셔'와 같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으나 대구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나)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12 (가)와 (나)는 모두 처음과 끝부분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수미상관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나)와 달리 각 연의 끝부분에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의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가)는 'ᄇᆞ리고 가시리잇고', (다)는 '가도 아주 가지는'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가)와 (다)는 모두 각 연의 행의 수를 3행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가)는 3·3·2조, (나)는 3·4조, (다)는 7·5조로 모두 음수율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3 (다)의 '부탁'은 임이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자가 추측한 '약속'의 의미이다. 화자는 처음에 임이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재는 돌아오겠다는 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묏버들'은 화자가 정성껏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는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상징한다. ② (나)의 '새닙'은 '묏버들'에서 돋아난 것으로, 화자가 임에게 자신처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따라서 '묏버들'이 화자의 분신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의 '돋아 나오'는 '풀포기'와 '봄바람에 헤적이는 '잔물'은 봄의 생기와 생명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화자의 애절한 정서와 대비되는 봄의 풍경이다. ④ (다)의 화자는 '당신'의 말을 약속이라 생각하고 있으므로, '약속'은 화자가 임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14 (다)의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는 이별을 수용해야 하는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이미 이별한 뒤에 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는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이별 상황에서의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② (가)의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를 통해 이별로 인해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③ (나)의 '자시ᄂᆞᆫ 창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는 임과 가까이 있고 싶은 애틋함을 드러낸 표현이다. ⑤ (다)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겠지요'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재회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5 화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희망에 찬 미래를 예견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함으로써 작품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② 후렴구에만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평민층에 의해 창작, 향유된 노래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고려 속요는 남녀 간의 애정, 이별 등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고 하였고, (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고려 속요의 형식적 특징으로 3음보, 분연체, 후렴구 등을 들고 있고, (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6 (가)는 '오쇼셔', (나)는 '보쇼셔', '너기쇼셔'와 같이 기원의 의미를 담은 종결 어미 '-쇼셔'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와 (다)는 모두 특정 대상인 임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지는 않다. ③ (다)는 '가도 아주 가지는 / 않노라 시던(않노라심은)'과 같이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나)에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4음보, (가)와 (다)는 3음보이므로 세 작품이 동일한 음보율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가)~(다)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17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이별의 상황'의 예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시리 가시리잇고'는 반복적으로 쓰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지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의 예로 볼 수 없다. ②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아니라,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를 ㉮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없다. ⑤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는 ㉯의 예로 볼 수 있지만,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18 고려 속요에 나타나는 후렴구 중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는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오답 해설 ① 여러 지역에서 불리었기 때문이 아니다. ② 고려 속요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기록되었지만, 이로 인해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나타난 것은 아니다. ③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의 민요로,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지만 이로 인해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④ 후렴구의 음악적 기능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나 화자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후렴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9 ⓐ는 화자의 분신으로,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다. ③ ⓑ는 계절적 배경으로, 이로 인해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이 아니다. ④ ⓑ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소재로,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없다. ⑤ ⓐ는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소재이지만, ⓑ는 매개체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20 [D]에서는 임의 말을 약속이 아니라 부탁으로 생각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므로, [C]에 비해 재회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화자가 [B]에서 '셜온 님 보내옵노니'의 태도를 보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A]의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는 화자의 염려가, [B]의 '가시ᄂᆞᆫ ᄃᆞᆺ 도셔 오쇼셔'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난다. ③ [C]는 임과 이별할 때인 과거의 상황을, [D]는 임을 기다리는 현재의 상황을 드러낸다. ④ [C]는 개여울에서 이별하는 상황, [D]는 개여울에서 임을 기다리는 상황이므로, 동일한 공간에서 일어난 다른 상황을 드러낸다.

21 (나)는 이별로 인한 화자와 임과의 공간적 거리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며, 미래에 재회할 가능성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이별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에게 애절한 호소를 보여 줌으로써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낸다. ② (나)는 화자가 자신과 임을 연결해 줄 '묏버들'을 임에게 보냄으로써 이별한 현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과거에 이별했던 공간인 개여울에 앉아 있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통해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다)는 봄을 맞은 공간적 배경인 개여울의 활기와 생명력과 대비하여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22 (나)의 화자와 (다)의 화자 모두 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임을 기다리면서 구체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다)의 화자뿐이다.

오답 해설 ① (나)의 화자는 곁에 없는 임에게 '묏버들'을 보내고 있고, (다)의 화자는 '개여울'에서 임을 기다리고 있다. ③ (나)는 평시조로 4음보의 율격이 드러나고, (다)는 자유시이나, 7·5조와 3음보의 율격이 드러난다. ④ (나)에는 임이 머무는 공간인 '자시ᄂᆞᆫ 창'이 드러나 있고, (다)에는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공간인 '개여울'이 드러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떠올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묏버들'을 보내고 있고, (다)의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임이 오지 않을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24~025쪽

01 ㉠: 원망, ㉡: 체념, ㉢: 재회에 대한 소망 **02** ㉠: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 ㉡: 임금의 덕이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로 높다고 칭송하기 /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으면 하는 백성의 염원을 담기 **03** 중심 소재는 '묏버들'이고,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04** ㉠에 쓰인 표현법은 도치법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05**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06** 화자는 '당신'의 말을 과거에는 약속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재에는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으로 생각하고 있다.

01 화자는 처음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해 원망(1~2연)의 정서를 보이다가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라며 체념(3연)한 뒤 임이 '가시ᄂᆞᆫ ᄃᆞᆺ' 돌아오기를 소망(4연)하고 있다.

02 후렴구인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는 궁중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룰 정도라는 임금에 대한 예찬과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는 백성의 염원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중심 소재인 '묏버들'은 임에 대한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와 임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04 ㉠에 쓰인 도치법은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수사법이다.

06 화자는 개여울에 나와서 '당신'이 오지 않는 이유나 '당신'이 화자에게 한 약속을 떠올린다. 처음에 화자는 '당신'이 한 말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재회의 약속이라고 여겼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를 헤어져도 자신을 잊지 말라는 부탁임을 깨닫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26~02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가시리〉의 각 연에서 반복되는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大平盛代'는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후렴구이지만,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주제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09 '보내노라 님의손ᄃᆡ'는 도치법이 사용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보내노라 임에게'라는 뜻이다.

12 〈묏버들 갈히 것거〉는 동일한 종결 어미인 '-쇼셔(소서)'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17 〈개여울〉에서 봄은 화자의 심리적 상태와 대비되는 계절적 배경으로, 이별하는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2) 춘향전_작자 미상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30~037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①	05 ③	06 ①	07 ④	08 ④
0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④	22 ②	23 ①	24 ①

01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 사람에 의해 구비 전승되다가 기록된 적층 문학이다.

오답 해설 ①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관탈 민녀 설화 등 다양한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형성된 작품이다. ② 이 글의 갈래는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③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운문체와 소설의 산문체가 공존하는 특성을 보여 준다. ⑤ 서민 예술인 판소리를 토대로 한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 계층의 현실적 욕망을 토대로 한 주제 의식이 나타난다.

02 '저 사령 거동 보소.'와 같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판소리의 어투가 나타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를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③ 사령과 어사또의 갈등은 곧바로 해소되고 있고, 그 외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갈등이 심화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인물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오?"라는 운봉 영장의 말을 통해 어사또의 초라한 행색을 불쌍히 여겨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어사또가 양반의 후예인 듯하여 본관 사또에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령은 "어떤 양반인지는 모르오만 ~ 말은 내지도 마오."라며 어사또의 등을 밀쳐 내므로, 본관 사또의 명령에 따라 어사또가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어사또는 '오냐, 도적질은 내가 하마. 오라는 네가 져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서 어사 출두에 대한 의지를 다졌음을 알 수 있다. ③ '백성들의 생활 형편과 본관 사또의 행정 실태를 생각하여 지었것다.'를 통해 어사또는 본관 사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도를 담아 시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렇듯이 지었으되 본관 사또는 몰라 보고'를 통해 본관 사또는 어사또가 지은 시를 읽었으나 어사또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04 [A]는 백성들의 고혈을 짜는 본관 사또의 행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고,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다.'라는 뜻의 '가렴주구'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③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④ 정처 없이 떠돌며 빌어먹는다는 뜻이다. ⑤ 헤어졌다가 만나고 모였다가 흩어짐을 이르는 말이다.

05 ㉢은 운봉 영장이 사람을 잘 알아본다는 것을 엿볼 수 있지만, 그가 이몽룡이 어사또인 것을 알아차린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변사또의 수청 요구에 저항하는 것으로,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곧은 성품과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② ㉡을 통해 생일잔치를 성대하게 치르고자 하는 본관 사또의 면모가 드러난다. ④ ㉤에서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시를 짓는 모습을 통해 어사또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인물임이 드러난다. ⑤ ㉥에서 걸인이 어사또임을 알아차린 모습으로 볼 때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운봉 영장의 면모가 드러난다.

06 ⓐ는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드는 것을 나타낸 부분이지만, 서술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비평은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② ⓑ는 본관 사또가 명관이 아님을 서술자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직접 평가한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③ ⓒ는 마지못해 운봉의 뜻을 받아들이는 본관 사또의 편협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④ ⓓ는 어사또의 심정에 공감하는 편집자적 논평이다. ⑤ ⓔ는 어사또가 지은 시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낸 편집자적 논평이다.

07 운봉은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보고 일이 났다고 여기고 있으므로 눈치가 빠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운봉은 어사또를 잔치에 들이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운봉을 '간사하고 꾀가 많다'는 뜻의 교활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② 운봉은 "갈비 한 대 먹고지고."라는 어사또의 언어유희에 별다른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③ 운봉은 주위 사람들에게 차운을 제안하는데, 이는 어사또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그를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⑤ 운봉은 본관 사또는 깨닫지 못한 시의 숨은 뜻을 알아차리지만, 이것이 '마음이 너그럽고 크다.'라는 뜻의 관대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08 "갈비 한 대 먹고지고."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갈비'를 먹고 싶다는 어사또의 의도가 담긴,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 표현일 뿐, 특정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암행어사 출두라는 긴박한 상황을 확장적 문체로 서술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② 운봉 영장이 각 아전들을 단속시키는 장면, 암행어사 출두를 준비하는 서리 역졸의 행동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는 열거법과 대구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리 가며 수군, 저리 가며 수군수군.',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남원읍이 욱신욱신.' 등과 같이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특정 상황의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⑤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 등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주관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09 '"춘향을 급히 올리라."/ 이때 어사또 몰래 신호할 제, 서리 보고 눈짓하니'를 통해 어사또는 춘향을 올리라며 본관 사또가 명하는 순간에 어사 출두를 지시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걸인도 어려서 ~ 차운 한 수 하사이다."를 통해 어사또는 스스로 걸인이라 칭하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러한 잔치에 풍류로만 ~ 하여 보면 어떠하오?"를 통해 운봉 영장은 표면적으로 잔치의 재미를 위해 한시 짓기를 제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어사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한시 짓기를 제안한 것이 아니다. ④ '한참 이리 요란할 제 ~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를 통해 본관 사또는 운봉 영장이 각 아전들을 단속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⑤ 공형, 공방 등 육방 관속들은 암행어사 출두 소리에 놀라 허둥대고 있다.

10 술과 안주를 각각 피와 기름으로 비유하는 표현을 통해 본관 사또의 가렴주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어사또의 정체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본관 사또의 횡포와 가렴주구에 대한 비판적 의도가 담겨 있다. ② 1행과 2행, 3행과 4행은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본관 사또의 횡포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어사또가 지은 한시는 암행어사 출두와 이어지므로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본관 사또의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백성의 현실을 드러내므로, 본관 사또의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본관 사또는 백성의 피와 기름을 짜는 관리이므로, 백성을 수탈하는 탐관오리형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본관 사또는 방탕한 인물이지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 ② 본관 사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는 인물이지만, 세상을 어지럽히고 세상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속이는 혹세무민하는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 ③ 본관 사또는 백성을 수탈하여 자신의 생일잔치를 화려하게 여는 방탕한 관리이지만, 맑은 바람과 밝은 달에 대하여 시를 짓고 즐겁게 음풍농월하는 인물이라 보기 어렵다. ⑤ 이 글에는 본관 사또가 어사 출두의 위기를 자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꾸미는 고육지책으로 모면하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12 ㉡을 통해 시를 지음으로써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에 나타난 초라한 상차림은 어사또가 상차림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된다. ③ 운봉 영장은 ㉢과 같이 대답하며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둘러대고 있다. ④ ㉣은 서술자가 개입한 것으로 어사 출두의 위엄을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의 '불속'은 어사 출두를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상황의 긴박성을 드러내고 있다.

13 ⓐ는 음식을 뜻하는 '갈비'와 사람의 갈비뼈를 뜻하는 '갈비'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므로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춘향 어미는 어사또의 정체를 알고 난 후에 그를 원망하지 않고 '가없이 즐거워'했다.

오답 해설 ① '모든 수령 도망갈 ~ 칼집 쥐고 오줌 누기.'를 통해 모든 수령들은 어사 출두에 놀라 정신없이 달아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에 새앙쥐 눈 뜨듯'을 통해 본관 사또는 암행어사 출두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너만 한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발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를 통해 어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요구하며 춘향의 정절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임금님께서 ~ 춘향으로 정렬부인에 봉하신다.'를 통해 임금은 춘향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려 주었음을 알 수 있다.

15 ㉠은 '바위', '바람', '나무', '눈', ㉡은 '떨어지는 잎', '이화춘풍'이라는 자연물을 동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 어떤 시련에도 정절을 지킬 것임을, ㉡은 즐거움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 ㉡ 모두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과 ㉡ 모두 대구적 표현으로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으나, ㉡은 반어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은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정절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에는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16 '지방 관아에서 수령들이 공사를 처리하던 중심 건물'은 '동헌'이고, ⓐ는 '나그네를 치거나 묵게 하는 집'을 가리키는 말이다.

17 '"봄풀은 해마다 푸르되, / 귀한 벗은 돌아오지 않을지."라고 이른 시는 / 나를 두고 말함이라.'를 통해 춘향이 자신을 '귀한 벗'에 비유하여 고향을 떠나는 처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에는 어사또를 따라 고향을 떠나는 춘향의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으나, 홀가분함 등의 이중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③ 해마다 돋는 '봄풀'과 대비하여 고향을 떠나면 돌아오기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고향에 대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춘향은 고향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내내 잘 지'낼 것을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부용당, 광한루, 영주각 등의 특정 공간을 제시하여 애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공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공간에 대한 각별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춘향이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은 여인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켜야 한다는 유교적 가부장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지, 유교적 가부장제를 거부하는 당대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이 어사또와 혼인하여 신분이 상승되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다. ② 춘향이 어사또에 대한 절개를 지켜 정렬부인에 봉해지는 결말은 신분 상승에 대한 당대 민중의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 ③ 춘향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것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⑤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봉고파직하는 것은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던 사회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19 특정 장면을 구체화하는 것은 장면을 확장하여 서술함으로써 사건 전개의 속도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건을 빠르게 전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어사 출두에 놀라 도망하는 본관 사또와 수령들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는 어순의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로서 이를 통해 본관 사또의 당황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어사또가 지은 시를 삽입함으로써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금수인들 아니 떨랴.'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암행어사 출두라는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20 ㉱는 ㉰의 사설을 토대로 형성된 작품으로, 문자로 정착된 소설로서 기록 문학의 일종이지만, 구비 문학인 판소리의 언어적 특성이 남아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는 암행어사 설화인 박문수 설화, 열녀 설화인 설씨녀 설화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는 전문 소리꾼에 의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구비 문학이다. ④ ㉱는 기록 문학인 소설로, 작품이 향유되던 당대의 사회상이 작품의 주제 의식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⑤ ㉲는 〈춘향전〉을 개작한 신소설인 〈옥중화〉로, 이 작품은 앞의 작품들이 적층 문학적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이해조라는 작가의 주관적 사상과 개성이 가미된 개인 창작물이라 할 수 있다.

21 ㉣은 춘향이 수청을 거부한 결과이지,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한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은 운봉 영장이 걸인의 정체가 어사또임을 눈치채고 각 아전들의 할 일을 점검하는 것을 가리킨다. ② ㉡의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춘향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③ ㉢은 어사또가 본관 사또의 악행에 대해 징계하는 것으로 본관 사또에 대한 어사또의 승리를 보여 준다. ⑤ ㉤으로 인해 춘향과 본관 사또는 갈등하게 된다.

22 [A]에서는 소리꾼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는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를 통해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드러난다. ③ ㉯에서 탐관오리들이 도망치는 장면을 과장되게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는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 인궤 잃고 과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에서 수령들과 본관 사또를 희화화한 모습이 드러난다. ⑤ ㉰는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를 통해 드러난다.

23 [가]는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는 어사또의 의뭉함이, [나]는 자신의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춘향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는 상대의 의중을 떠보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③ [나]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회적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그러한 방식이 확인되지 않는다. ④ [나]는 "층암절벽 높은 바위 ~ 눈이 온들 변하리까."에서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에는 대구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상대의 태도를 질책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는 궁극적으로 상대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24 춘향은 어사또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서방님을 찾고 있으나, 어사또의 얼굴을 보고 걸인이던 낭군이 왔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춘향은 '내려오는 관장마다 낱낱이 명관'이라며 반어적 표현으로 어사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③ 어사또는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얼굴 들어 나를 보라."라며 자신의 정체를 확인시키고 있다. ④ 본관 사또는 운봉이 요란하게 움직임에도 그 사정을 모르고 있다. ⑤ 어사또는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고 하며 전임 사또였던 부친에 대한 예우를 드러내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38~045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①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④	10 ①	11 ④	12 ①	13 ②	14 ①	15 ②	16 ②
17 ②	18 ⑤	19 ⑤	20 ①	21 ③			

01 이 글은 판소리계 소설로, 양반 계층과 서민 계층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있어 양반 계층과 서민 계층 모두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은 서민 계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인데, 이로 인해 양반 계층으로부터 배척된 것은 아니다. 양반 계층은 정절이라는 봉건 윤리를 충실히 구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소리계 소설을 수용하였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판소리계 소설이다. ② 이 글은 남녀 간의 사랑과 정절 의식이라는 표면적 주제 외에 이면적으로 신분 상승의 욕구가 담겨 있다. ④ 이 글은 춘향이 정절을 지키다 위기를 겪고 이를 극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⑤ 이 글은 양반 계층의 언어와 평민 계층의 언어가 혼재되어 있다.

02 이 글은 서민 예술인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을 토대로 형성된 소설로, 작품의 이면에는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와 같은 서민 의식이 깔려 있다. 춘향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는 정절 의식은 양반 계층의 유교적 도덕관념으로, 작품의 표면에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판소리 〈춘향가〉의 사설이 문자로 정착되어 소설화한 것이다. ② 이 글은 고전 소설로, 소설은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갈래이다. ③ 이 글은 열녀 설화, 암행어사 설화, 관탈 민녀 설화 등 다양한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⑤ 이 글은 판소리의 영향으로 대구와 반복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는 문체가 나타나고 있다.

03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과 태도는 물론 내면세계까지도 서술하며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또한 작중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서술자가 직접 나서서 논평하는 편집자적 논평도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②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를 표현하여 인물의 성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술자가 주인공인 이몽룡과 춘향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자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인 성격과도 관련이 없다.

04 ㉠의 '명관'은 본관 사또를 가리키는 반어적 표현으로 잡인의 출입을 금지한 본관 사또의 지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 표현은 모순을 이용해 어떤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드러내는 표현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② ㉡은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은 자기가 차지하고 그것에 대한 벌은 남보고 받으라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도둑질은 내가 하고 오라는 네가 져라.'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본관 사또를 징계하겠다는 어사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초라한 상을 받은 어사또가 '좋은 잔치에 와서 술과 안주 배불리 먹고'라며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차운을 짓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의 "일이 났다."는 운봉 영장이 걸인의 정체가 어사또라고 예측하고 있음을 드러낸 말이다. ⑤ ㉤은 운봉의 행위를 알아채지 못한 본관 사또의 말로, 본관 사또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05 ⓐ는 동음이어의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걸인 하나가 내려 왔다.'에서도 '서방'이라는 말의 동음을 이용해 '남편'과 '서쪽 방향'이라는 뜻을 활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오답 해설 ②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는 어순의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이다. ③ '뭐 그까짓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육경을 다 읽었네.'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를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하는 언어유희이다. ④ '아, 이 양반이 허리 꺾어 절반인지, 개다리소반인지'는 비슷한 발음을 반복하여 리듬을 형성하는 언어유희이다. ⑤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원님을 끌어다가 등에 솔질을 솰솰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는 노생원님을 '노새 원님'으로 표현한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06 [A]에서 '원망 소리'를 하는 주체는 백성으로, 〈보기〉에서는 '참새'에 의해 밭의 벼와 기장을 다 빼앗기는 '늙은 홀아비'와 동일한 계층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의 '백성'은 본관 사또에 의해 수탈당하는 대상으로, 〈보기〉에서 '참새'에 의해 벼와 기장을 빼앗기는 '늙은 홀아비'로 나타나고 있다. ② [A]의 백성의 '피'와 '기름'은 〈보기〉에서 홀아비가 일 년 동안 농사를 지은 '벼'와 '기장'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서 '촛불 눈물'과 '노랫소리'는 본관 사또가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잔치를 여는 상황으로, 〈보기〉에서 '늙은 홀아비'의 고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⑤ [A]의 화자는 본관 사또의 횡포를, 〈보기〉의 화자는 '참새'와 같은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Plus 〈보기〉 사리화_이제현

갈래	한시(7언 절구)
성격	비유적, 비판적
주제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풍자
해제	참새(탐관오리)와 홀아비(백성)의 관계를 통해 탐관오리의 수탈에 시달리는 백성의 고달픈 현실을 드러냄.

07 ㉮는 어사 출두 이후 본관 사또와 수령들이 달아나는 모습에서, ㉯는 '속으로 생각기를, '아뿔싸! 일이 났구나."'를 통해, ㉰는 어사 출두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 인물 간의 대화는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과거의 사건을 요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서술자의 개입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특정 인물을 비판하려는 의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08 ㉲은 간밤에 춘향을 옥에서 만나 춘향의 죄목을 이미 알고 있는 어사또가 모른 척하며 한 의도적 질문으로, 춘향의 죄목에 대한 어사또의 호기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운봉 영장이 각 아전들을 불러 분부하는 것을 통해 본관 사또와 달리 운봉 영장은 어사 출두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의 암행어사 출두는 어사또가 본관 사또를 징계하고 춘향을 구해 내는 극적 계기가 된다. ③ ㉢은 어순의 도치를 통해 어사 출두로 인한 본관 사또의 당황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독자들에게 웃음을 준다. ⑤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조롱하는 춘향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9 ⓑ는 어사 출두의 위세로 인해 자연물조차 떨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상이며, ⓒ는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대상이다.

오답 해설 ① ⓐ는 잔치가 밤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어 본관 사또의 방탕함을 드러내지만, ⓑ가 본관 사또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② ⓐ는 '백성 눈물'과 대비되는 대상이며, ⓒ는 '높은 바위'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대상이다. ③ ⓐ는 잔치의 적막함이 아니라 잔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는 정절을 지키겠다는 춘향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는 잔치가 지속되고 있음을, ⓑ는 어사 출두의 위세를, ⓒ는 춘향의 의지를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므로 ⓐ~ⓒ 모두 서술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 할 수 없다.

10 [B]는 '달 같은 마패를 햇빛같이 번쩍 들어'와 같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A]에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② [B]는 [A]와 달리 '수군수군', '번쩍'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B]는 '서리, 중방 거동 보소.' 등을 통해, [C]는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를 통해 모두 판소리 창자가 청중에게 말을 거는 듯한 어투를 활용하고 있다. ④ [A]~[C]는 모두 대구법을 활용하고 있다. ⑤ [A]~[C]는 각각 운봉 영장, 역졸, 탐관오리들의 행위를 열거하여 특정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다.

11 어사또가 춘향에게 "너만 한 년이 수절한다고"라며 꾸짖는 것은 양반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로 말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본관 사또가 "춘향을 급히 올리라."라고 명하는 것으로 볼 때, 본관 사또는 춘향을 양반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절의 의무와 상관없는 인물, 즉 천한 기생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춘향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며 '관정발악'한 것은, 춘향이 정절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권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③ 춘향이 어사또에게 어떠한 시련에도 절개를 굽힐 수 없다고 대답하는 것에서, 춘향이 사회적 제약과 무관하게 자신과 몽룡을 대등한 관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춘향이 어사또에게 "어서 바삐 죽여 주오."라고 대응하는 것은 정절을 지킴으로써 몽룡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지키기 위함이다.

12 삽입 시는 어사또와 재회한 춘향이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삽입 시 이후의 결말은 후일담 형식으로, 이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드러내고 있다. ③ 기생 출신인 춘향이 양반인 이몽룡을 만나 신분이 상승하는 내용에는 당시 민중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다. ④ 어사또와 춘향의 대화를 통해 춘향의 절개를 드러내고 있다. ⑤ '한참 이리 즐길 적에 춘향 어미 들어와서 가없이 즐거워하는 말을 어찌 다 이르랴.', '춘향의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 아니 좋을쏜가.'를 통해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 공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은 어사또에 의해 본관 사또와 춘향의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고, ㉡은 춘향과 본관 사또 간의 갈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오답 해설 ① ㉠은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은 주인공에게 시련을 초래하는 기능을 하지만, ㉠은 그렇지 않다. ④ ㉠은 본관 사또의 악행에 대한 결과로 어사또의 엄정함을 부각하는 기능을, ㉡은 본관 사또의 악행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⑤ ㉠은 주인공의 외적 갈등이 끝날 것임을, ㉡은 주인공의 외적 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된다.

14 [A]와 [B]는 모두 춘향의 사정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춘향에 대해 질문하는 어사또의 의뭉한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 해설 ② [B]에는 춘향을 시험하고자 하는 어사또의 의도가 드러나지만, [A]는 그러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③ [A]와 [B]에는 모두 백성을 위해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어사또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A]와 [B]는 모두 춘향에 대한 어사또의 애정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와 [B]는 춘향을 모른 체하며 춘향의 절개를 시험하고자 하는 어사또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신분에 대한 어사또의 차별적 인식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15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던 본관 사또가 봉고파직된 것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간다.'라는 뜻의 '사필귀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고된 시련에도 이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킨 춘향을 '임금이 혹하여 나라가 어지러워도 모를 만한 뛰어난 미인'을 뜻하는 '경국지색'이라 할 수는 없다. ③ 춘향의 목숨을 구한 이몽룡이 어사임을 알게 된 춘향 어미는 기뻐하고 있으므로 '멍하니 정신이 나간 듯함.'을 뜻하는 '망연자실'의 상태라고 할 수 없다. ④ 어사또가 춘향과 함께 상경하여 임금의 칭찬을 받은 것은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뜻의 '금의환향'이라 하기 어렵다. ⑤ 어사또는 정렬부인의 칭호를 받은 춘향과 혼인한 이후에 입신출세하는 삶을 살았지만,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다.'는 뜻의 '경천동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렵다.

16 [가]는 춘향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보기〉에는 자신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가]는 모두 '명관'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를 비난하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보기〉에서는 '지환'을 통해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다. ④ [가]와 달리 〈보기〉에서는 이몽룡이 어사또임을 알게 된 춘향이 어사또가 자신을 속인 일에 대해 원망하고 있다. ⑤ [가]와 달리 〈보기〉의 두 번째 [중모리]의 내용을 통해 춘향이 겪은 심리적 갈등을 알 수 있다.

17 ㉠은 본관 사또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한 춘향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오답 해설 ① 어사또는 간밤에 옥중으로 찾아가 춘향을 만났으므로, 암행어사 출두가 춘향과 어사또가 이별 후 처음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춘향은 본관 사또와의 외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④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어사또와 춘향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은 아니다. ⑤ 어사또는 본관 사또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으므로 본관 사또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18 ㉡은 암행어사 출두로 인해 수령들이 도망치는 모습으로, 혼백이 이리저리 날아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혼비백산'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일컬는 말이다. ②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③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이다. ④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19 〈보기〉는 개인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생산한 자료를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양한 견해를 바탕으로 방송 매체를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활발하게 생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므로 쌍방향적 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② 여러 사람이 작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원하는 때에 즉각적으로 드러내어 소통하고 있다. ③ 일대다의 인쇄 매체와 달리 다대다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④ 영화를 감상한 사람들이 개인의 감상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여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20 ⓐ는 '수군수군'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어사또의 행동을 역동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는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는 과장적 표현을 활용하여 암행어사의 위세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는 '문'과 '바람', '물', '목'의 어순 도치를 활용하여 본관 사또의 심리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는 "눈이 온들 변하리까."의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춘향의 변함없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는 "가을철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 날 살린다."의 대비되는 상황에 빗대어 춘향의 처지가 달라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21 남녀 주인공 중 이 글에서는 춘향만, 〈보기〉에서는 가실과 설씨녀가 시련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글과 〈보기〉 모두 이별한 후 모든 남녀 인물들이 시련을 겪는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불의한 지배층으로 대변되는 본관 사또의 횡포로 인해 여성이 시련을 겪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씨족인 사량부 출신 가실과 평민인 설씨녀 간의 신분 차이가 사랑을 성취하는 데 장애 요소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④ 이 글과 〈보기〉에서 모두 남녀 인물들이 상대에 대한 정절을 지킴으로써 신의를 깨지 않으려고 한다. ⑤ 이 글과 〈보기〉에서 모두 남자 주인공이 돌아오면서 여성 주인공이 겪는 외적인 갈등이 해소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46~047쪽

01 (1) 열거와 대구 등을 활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는 확장적 문체와 4·4조의 반복을 통한 운문체가 드러난다. (2) 대상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02** (1)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가 나타난다. (2) ㉠: 비유법, 대구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춘향의 절개를 부각하고 있다. ㉡: 비유법, 대구법, 대조법, 중의법을 활용하여 어사또를 만난 기쁨을 부각하고 있다. **03** (1) 서술자가 인물이나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평가하고 있다. (2) ㉡: 대구법, 비유법, 과장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암행어사 출두 소리의 위세를 부각하고 있다. ㉢: 반어법, 설의법을 활용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과 ㉡은 언어유희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은 동음이의어, ㉡은 언어 도치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05** 계급을 구분하는 신분 제도가 있었고,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는 사회였으며,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정치 때문에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06** (1) 신분을 초월한 사랑 (2) 탐관오리의 횡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 정신 (3) 부정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

01 ㉠과 ㉡에는 확장적 문체, 운문체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02 '청송녹죽(靑松綠竹)', '이화춘풍(李花春風)'은 양반 계층의 한문 투 언어이다.

03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이다.

04 ㉠은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 ㉡은 언어 도치를 이용한 언어유희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48~04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설씨녀 설화〉는 관탈 민녀 설화가 아니라 열녀 설화이다. 관탈 민녀 설화는 〈도미 설화〉로 관리가 평민의 여자를 빼앗는 내용이다. 이 두 설화 외에도 다양한 설화들이 〈춘향전〉 창작에 영향을 주었다.

14 어사또가 이몽룡임을 알게 된 춘향은 이몽룡이 자신을 살린 데 대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18 춘향은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시련을 감수하는 의지적 인물이지만, 이몽룡은 신의를 지키기 위해 시련을 겪지 않는다.

(3) 폭포_김수영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52~055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②
09 ① 10 ① 11 ① 12 ④ 13 ③ 14 ⑤ 15 ④ 16 ①

01 자연물인 폭포를 의인화하여 폭포의 내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폭포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 없이 떨어진다', '곧은 소리' 등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②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와 같이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떨어진다'의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연물인 폭포의 속성을 활용하여 '고매한 정신'이라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2 '나타와 안정'은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과 거리가 먼 모습이다.

03 화자는 시적 대상인 폭포에서 인간의 속성인 용감함, 자유로움, 과단성 등의 내적 속성을 발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시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폭포와 대비하여 자신의 소극적 삶을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폭포의 장엄한 낙하를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예찬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밤'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고, 폭포의 물소리와 자유와 정의를 향한 양심의 소리를 연결하고 있으므로, 부정적 현실을 참고 견디는 태도를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세계가 드러나지도, 그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04 ㉡은 폭포의 낙하를 통해 자유로움과 얽매이지 않음의 속성을 환기하고 있다. 폭포의 낙하가 특정한 목적을 지향하지 않는 자연 현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은 폭포의 물결에 '규정할 수 없음.'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여 폭포의 물결이 지닌 자유로움을 환기한다. ③ ㉢은 금잔화로 표상되는 아름다움과 인가로 표상되는 인간다움이 사라진 상황을 상징한다. ④ ㉣은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와의 맥락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폭포의 속성을 환기한다. ⑤ ㉤은 높이도 폭도 가늠할 수 없는 폭포의 거대한 정신적 깊이를 환기한다.

05 폭포는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대상인데, 이러한 폭포의 내적 속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은 '고매한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폭포가 놓인 위태로운 외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 ② ⓑ는 시간성을 함축하는 시어로, 폭포의 변함없음을 드러내는 배경이 된다. ④ ⓓ는 폭포의 물소리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⑤ ⓔ는 폭포의 물방울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시어로 보기 어렵다.

06 5연에서는 현실의 안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폭포의 숭고한 정신이 아니라, 나타와 안정 같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폭포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1연에서는 곧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폭포를 '무서운 기색도 없이'라고 표현하여 폭포의 두려움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② 2연에서는 폭포를 고매한 정신에 비유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인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금잔화도 인가도 없는 밤'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④ 4연에서는 폭포의 물소리를 '곧은 소리'와 연결하고 있다. '곧은 소리'라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곧은 소리를 확산시키는 폭포의 선구자적 행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07 ㉮는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이다.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떨어지는 폭포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감상이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시구의 의미를 당대의 부정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감상하는 관점은 작품과 현실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한 것이다. ② 폭포의 '곧은 소리'를 사회 문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작가의 작품 경향과 연관하여 감상하는 관점은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감상한 것이다. ③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폭포의 세찬 물줄기에서 하강적 심상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는 폭포의 고매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관점은 작품의 맥락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내재적 관점이다. ⑤ 창작 당시의 부정적 상황을 담은 작품들과 비교해서 읽으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관점은 다른 작품과의 대비를 통해 작품을 감상하고자 하는 상호 텍스트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08 이 글은 '폭포'를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해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고매한 정신을, 〈보기〉는 '국화'를 통해 선비의 지조와 절개라는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국화를 '너'라고 칭하며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 글은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구체적 대상인 폭포와 국화에서 추상적인 내적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심 소재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이 글이다. ⑤ 〈보기〉는 '퓌엿는다', '하노라'와 같이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국화의 긍정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으나 이 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Plus 〈보기〉 국화야 너는 어이_이정보

갈래	평시조
성격	예찬적, 의지적
주제	선비의 지조와 절개에 대한 예찬
해제	추운 계절에 꽃을 피우는 국화의 속성과 시련에도 절개를 지키는 선비의 모습을 연결하여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예찬함.

09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두려움 없이 부정적 현실에 단호하게 저항하는 자연물로, 냉철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기〉에서 소시민의 모습은 질책의 대상으로, 작가는 현실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됐던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은 〈보기〉에서 언급한 1950년대 후반의 암울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정의와 자유를 위한 비판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는 폭포의 낙하를 통해 현실에 안주하여 안정만을 추구하며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질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마음의 고향 6-초설_이시영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회고적, 애상적
주제	고향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
해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소재의 열거를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을 떠나면서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회고적 어조로 드러냄.

10 (가)는 '~ 없이 떨어진다', '곧은 소리' 등의 시구를 반복하여 낙하하는 폭포의 상황을, (나)는 '내 마음의 고향은 이제', '있지 아니하고'의 반복을 통해 고향을 상실한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 (나)는 모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탄법이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다)에는 '흰 옷자락'과 '파르라한 옷고름'의 색채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가)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명령적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는 '~ 남기며 끝났다'의 어순을 도치하며 '~끝났다 ~남기며'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지만, (가)에는 어순의 도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11 ㉠은 폭포의 낙하 지점으로 폭포가 놓인 위태로운 외적 상황을 환기한다. 따라서 ㉠이 '폭포'가 지닌 강직함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② ㉡은 '폭포'가 지닌 고결함이라는 내적 속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은 곧음, 즉 '폭포'가 지닌 정의로움을 환기한다. ④ ㉣은 이제는 있지 아니한 곳으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⑤ ㉤은 화자가 고향을 떠날 때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고향을 떠난 후 고향을 잃어버린 화자가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12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물방울'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번개'라는 자연물을 끌어들여 실감 나게 표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자연물을 끌어들이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 형상화와는 거리가 있는 시구이다.

▸ (나) 이탈한 자가 문득_김중식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성격	비유적, 성찰적
주제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난 자유에 대한 소망
해제	일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자유로움을 얻고자 하는 소망을 고백적으로 노래함.

13 (가)와 (나) 모두 단정적 어조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도치의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에 쓰인 의인법은 친근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④ (가)와 (나) 모두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14 [A]는 나타와 안정을 거부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나)에서 ⓔ는 이탈한 자로서 자유로운 이미지를 환기한다는 점에서 [A]와 성격이 가장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 ⓑ, ⓒ, ⓓ 모두 안정을 추구하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환기한다.

15 ㉤은 순환하는 자연의 법칙을 환기하는 것으로, '캄캄한 하늘에 획을 긋는 별, 그 똥'이 궤도를 이탈하는 것으로 볼 때, ㉤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은 폭포가 떨어지는 곳이므로 폭포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환기한다. ② ㉡은 어두운 현실을 의미하므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을 환기한다. ③ ㉢은 '곧은', 즉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는 폭포의 비판적 태도를 환기한다. ⑤ ㉤은 이탈자가 그을 수 있는 것으로, '이탈한 자'가 만든 흔적을 환기한다.

16 〈보기〉에서 자기의 죄에 대한 몸부림은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에서 세차고 진지하게 몸부림을 쳐야 하는 지식인은 부정적 현실에 강인한 저항 정신으로 맞서는 '폭포'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금잔화'는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③ '번개'는 폭포의 과감성을 드러내기 위한 보조 관념이다. ④ '태양'은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⑤ '뭇별'은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는 대상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56~059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② 05 ① 06 ① 07 ⑤ 08 ④
09 ① 10 ⑤ 11 ⑤ 12 ⑤ 13 ④

▸ (나) 살아 있는 것은 흔들리면서-순례 11_오규원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성찰적, 의지적
주제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성숙해지는 삶의 의미
해제	바람에 잎이 흔들리는 자연 현상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작품으로, 우리의 삶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성숙할 수 있음을 드러냄.

01 (가)는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동적 이미지를 통해 폭포의 내적 속성을, (나)는 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잎의 동적 이미지를 통해 살아 있음이라는 속성을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가)는 폭포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으나,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친밀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③ (나)는 '피하지 마라'라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으나, (가)는 명령형 어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도치의 방식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으나, (가)에는 도치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 없이 떨어진다', '곧은 소리'라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폭포의 속성을 드러내고, (나)는 '들판의 슬픔 하나 들판의 고독 하나 / 들판의 고통 하나'의 반복을 통해 잎의 흔들림이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고 볼 수 없다.

02 ⓐ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를, ⓑ는 시련을 통한 성숙을 환기하므로, ⓐ와 ⓑ는 모두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화자에게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일깨우는 대상이므로,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없다. ② ⓑ는 잎의 흔들림을 통해 시련과 고통을 환기하므로, 화자의 외로움이 투영된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③ ⓐ와 ⓑ는 모두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과는 관련이 없다. ⑤ ⓐ는 인간의 내적 강인함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는 인간의 근원적 고독을 상징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03 (가)의 '소리'는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양심의 소리를 의미하며, (나)의 '바람'은 잎의 흔들림을 유발하는 고통과 시련이지만 이를 통해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가 '소리'와 '바람'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고매한 정신'은 폭포의 내적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생활인으로서 시인이 지녔던 고뇌와 대비되는, 대상의 위대성을 느낄 수 있다. ② (나)의 '슬픔 하나', '고독 하나', '고통 하나'가 '자기를 헤집고 있다'는 것은 바람이 잎을 휩쓸고 지나가며 헤집음으로써 느끼는 고통과 시련을 표현한 것으로, 구체적 언어에 주목하여 몸의 이미지를 통해 의미를 감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나)의 화자는 '우리가 늘 흔들리고 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잎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폭포'는 숭고함과 위대성을 가진 존재로 김수영이 추구하는 이상인 자유와 관련하여, (나)에서 '잎'의 흔들림이라는 동적 속성은 고통을 통한 성숙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이나 관념에서 탈피한다는 점에서 자유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 (나) 독(毒)을 차고_김영랑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의지적, 저항적, 상징적
주제	부정적 현실에 대한 대결 의지
해제	'독을 차는' 행위를 통해 일제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와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순결한 내면 의지를 드러냄.

04 폭포의 속성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의미화한 (가)와 달리 (나)는 작품 표면의 화자인 '나'가 직접적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폭포'와 (나)의 '독'은 상징적 시어로, (가)와 (나)는 모두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는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 버리라 한다 / 나는 그 독이 벗도 선뜻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에서 대화 형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으나, (가)는 대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는 떨어지는 폭포의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나)는 역동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05 ⓐ는 화자의 가슴에 차고 있는 것으로 폭포의 '고매한 정신'과 같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고자 하는 대결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는 벗의 관점에서 본 '독'으로 흩어 버려야 할 위험한 것이므로 '고매한 정신'과 거리가 멀다. ③ ⓒ는 오랜 세월을 가리킨다. ④ ⓓ는 시간이 흘러 모래알로 변화될 대상이다. ⑤ ⓔ는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드러낸다.

06 (가)의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는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폭포의 자유로움을 드러낸 것으로, (나)의 화자가 느끼는 세상에 대한 '허무'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② (가)의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과 (나)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는 배경이 되는 시대의 부정적 현실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곧은 소리'를 내는 폭포와, (나)의 '외로운 혼'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는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나)의 화자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하는 마음과 달리 폭포의 강인한 저항 정신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가)의 '나타와 안정'은 (나)의 '벗'과 같이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고 안주하는 소시민들이 지닌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눈_김수영

핵심 정리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성격	상징적, 반성적, 비판적, 의지적
주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해제	'눈'과 '가래'의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드러냄.

07 (가)의 '높이도 폭도 없이 / 떨어진다'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높이와 폭을 가늠할 수 없는 폭포의 절대적 자유로움을 부각하고 있으나, (나)는 반복과 점층적 확장을 통해 대상이 지닌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을 뿐 역설적 표현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떨어지는 폭포를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② (가)는 폭포의 낙하라는 구체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 인간의 용기, 저항 정신, 양심 등의 내적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나)는 '눈'과 '가래'라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④ (나)는 '~ 하자'라는 청유형 어조를 활용하여 청자에게 '기침'이라는 특정 행위를 권유하고 있다.

08 ㉠은 낙하라는 하강적 이미지를, ㉡은 눈의 생명력을 환기한다.

오답 해설 ① ㉠은 자연 현상으로서 낙하하는 폭포의 속성을 드러낸다. ② ㉠은 폭포의 핵심적인 속성으로, 폭포를 시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은 '눈'이 살아 있는, 즉 생명력을 지닌 대상임을 드러낸다. ⑤ ㉠과 ㉡은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각각 폭포와 눈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09 (가)에서 폭포의 내적 속성인 '고매한 정신'은 (나)에서 순수함과 생명력을 지닌 '눈'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순수함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③ ⓒ는 화자가 기침을 하기를 촉구하는 대상으로 순수함을 지녀야 할 주체이다. ④ ⓓ는 생명력과 대비되는 대상이다. ⑤ ⓔ는 눈의 생명력을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10 (가)의 화자는 폭포를 통해, (나)의 화자는 눈을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의 화자는 폭포의 물소리를 곧은 소리로 형상화하여 정의와 자유를 위한 양심의 소리를 일깨우고 있으나, 암담한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화자는 낙하하는 폭포를 통해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눈의 순수성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의 화자는 기침을 하는 행위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1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빠르게 떨어지는 폭포는 소시민적 삶의 태도를 거부하는 태도로, 시인은 이를 통해 자유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를 통해 부정적, 억압적 상황에도 두려움 없는 용기 있는 태도를 담아내려고 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②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과 같은 억압적이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폭포와 같은 '고매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③ 폭포의 물소리를 진실과 양심을 부르짖는 '곧은 소리'로 인식하며 자유와 정의를 향해 양심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내려고 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④ '곧은 소리'는 또 다른 '곧은 / 소리를 부른다'는 단정적 진술을 통해 자유와 정의를 위한 양심의 소리가 또 다른 '곧은 소리'를 이끌어 내며 확산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다.

12 (가)의 '나타와 안정'은 부정적 현실에 순응하는 안이한 태도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벗어나야 할 부정적 태도이다. 이는 (나)에서 기침을 통해 제거해야 할 '가슴의 가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떨어진 눈'은 순수함과 생명력을 지닌 대상이다. ② '젊은 시인'은 불순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 기침을 하는 행위를 통해 순수함을 지향해야 할 주체이다. ③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는 용기를 지닌 젊은 시인을 가리킨다. ④ '새벽'은 눈의 생명력을 부각하는 시간이다.

13 '눈을 바라보며' '기침'을 해야 하는 '젊은 시인'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을 지향하기 위해 가래와 같은 불순한 것을 제거하는 행위를 해야 할 주체를 가리키므로,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눈'을 순수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협상화한 것은 '눈'이 지닌 백색의 이미지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눈은 살아 있다'를 통해 순수한 생명력을 표상하는 '눈'을 강한 생명력을 지닌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눈'과 '가래'는 순수함과 불순함의 대립으로, 이를 통해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래'를 뱉어 내기 위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불순한 삶을 거부하는 것으로, '눈'과 같은 순수함을 지니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60~061쪽

01 ㉠: '~ 없이 떨어진다', '곧은 소리'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시구의 반복을 통해 폭포의 내적 속성인 '고매한 정신'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02** ㉠: 규정할 수 없는 물결, ㉡: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 ㉣: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 높이도 폭도 없이 **03** ㉠: 1950년대의 암울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 ㉡: 부정적 현실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 ㉢: 부정적 현실에 단호하게 저항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는 널리 확산될 것이다. ㉣: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을 거부해야 한다. **04** · 왕궁의 음탕에 대해 분개하는 것 ·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 **05**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 것.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는 것, 야경꾼들만 증오하는 것 등

02 ㉠은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의 경우도, ㉣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의 경우도 인정할 수 있다.

04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것'도 해당할 수 있다.

Plus 〈보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_김수영

갈래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성격	반성적, 비판적, 자조적
주제	부패한 권력과 사회의 부조리에 반항하지 못하는 소시민적 삶에 대한 반성
해제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화자가, 큰 일에는 분노하지 못하고 작고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옹졸함을 드러내며 했던 성찰을 표현함.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62~06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4 자연물인 폭포를 통해 인간의 내적 속성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화자는 폭포의 낙하를 통해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한 저항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으나, '나타와 안정'에 젖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0 화자는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폭포의 낙하를 통해 망설임이 없는 단호함과 과단성을 형상화하고 있으나, 장엄한 물결에 영탄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12 '떨어진다'는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폭포의 '고매한 정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20 '곧은 소리는 곧은 / 소리를 부른다'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양심의 소리를 내는 폭포의 선구자적 태도로 인해 '곧은 소리'가 확산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지, 곧은 소리의 확장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폭포의 염원이 실현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통으로 가꾸는 공동체

(1)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68~071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② 06 ③ 07 ⑤ 08 ③
09 ⑤ 10 ⑤ 11 ① 12 ⑤ 13 ③ 14 ① 15 ⑤ 16 ⑤
17 ④

01 발표 중에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때 실수를 빠르게 수습하고 발표를 계속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를 중단하게 되면 발표 공포증이 더 강화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발표 시작 전에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완화하거나 자신이 발표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은 발표 공포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④ 발표 내용을 친구들과 미리 연습하며 발표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은 발표 공포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⑤ 발표 중 청중의 긍정적인 반응을 찾아 발표를 지속할 동기를 얻는 것은 발표 공포증을 해소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02 청중 분석은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청중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발표를 준비할 때는 청중의 연령대, 관심사, 배경지식 수준, 발표에 대한 기대, 실용성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청중이 선호하는 발표자의 의상 스타일은 발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청중의 배경지식은 청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발표 내용을 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② 청중의 연령대와 관심사는 연령과 관심사에 맞는 발표 방식과 내용 구성에 필요하다.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활용할 가능성은 발표 내용이 실질적으로 유용한지 고려하는 것이다. ④ 청중이 기대하는 내용과 발표 목적이 맞아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03 아윤이는 친구들이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카페인 섭취의 적정량을 제시하고 적정량을 섭취할 때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에너지 음료가 제공하는 활력은 학업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아윤이가 발표하려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② 카페인은 반드시 섭취를 피해야 하는 유해 물질이라는 것은 과장된 내용이다. ③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알 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아윤이가 발표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⑤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기 위해 에너지 음료와 커피는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은 아윤이가 발표하려는 내용과 관련이 없다.

04 발표 자료가 흥미를 주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자료가 발표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인지 판단해야 한다. ②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출처가 명확한지 판단해야 한다. ③ 자료가 발표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자료가 청중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포함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05 친구들이 카페인의 영향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은 발표의 핵심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제외하면 발표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친구들과 면담을 해 보니 ~ 거의 모르는 것 같아.'에서 알 수 있다. ③ '친구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의 영양 성분표를 보니 카페인 함량이 정말 높구나.'에서 알 수 있다. ④ '친구들이 많이 마시는 음료의 영양 성분표를 보니 ~ 카페인이 우리 몸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잘 모르고 있어.'에서 알 수 있다. ⑤ '발표 주제가 '음식과 건강'이니 ~ 잠을 깨는 데 도움을 주는 에너지 음료를 정말 많이 마시네.'에서 알 수 있다.

06 발표 자료는 무조건 많이 포함할 것이 아니라 주제와 목적, 발표 시간 등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카페인과 관련된 과학 전문 용어를 ~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야지.'에서 알 수 있다. ② (라)에서 〈자료 3〉을 제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⑤ (라)에서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기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7 (라)에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에너지 음료의 높은 카페인 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 자료는 청중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끌어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하므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오답 해설 ① 친구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 브랜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에너지 음료의 높은 카페인 함량'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에너지 음료 광고의 문구를 인용하면 발표에 흥미를 더할 수는 있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아윤이가 분석한 청중의 특성과는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카페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략하는 것은 발표 내용에 맞지 않으며,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나열하는 것은 '에너지 음료의 높은 카페인 함량'이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도 관련이 없다.

08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권장량 및 실제 섭취량 통계는 발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이므로 추가하기에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카페인의 구조를 다룬 전문적인 내용은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발표 주제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추가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에너지 음료 광고에 사용되는 마케팅 전략을 분석한 자료는 발표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한 자료는 발표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의 제조 과정 영상은 발표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다.

09 〈자료 1〉에 따르면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커피 4잔을 섭취하면 카페인 허용량을 초과하게 된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 섭취 허용량이 낮다. ② 〈자료 1〉에 따르면 초콜릿이나 과자에서도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음료가 아니라도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다. ③ 〈자료 1〉에 따르면 에너지 음료는 탄산음료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이 맞다. ④ 〈자료 1〉에 따르면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최대 400밀리그램이다.

10 〈자료 3〉을 발표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자료의 내용이 발표에 꼭 필요하지도 않을뿐더러, 친구들이 이해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자료 3〉을 발표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까닭은 청중의 관심을 끌 만한 요소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 ② 〈자료 3〉은 출처가 분명하고 신뢰성이 높으나, 내용도 어렵고 발표에 꼭 필요하지도 않다. ③ 〈자료 3〉이 너무 오래된 자료인지는 알 수 없다. ④ 〈자료 3〉을 발표에 활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내용도 어렵고 발표에 꼭 필요하지도 않기 때문이지,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11 발표자는 도입부에서 카페인이 '어떤 음식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알려 드리고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라고 언급하며 발표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전개부에서는 '청소년의 식생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전개부에서는 청소년의 에너지 음료 섭취와 관련된 연구 결과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전개부가 아닌 정리부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언급하고 있다. ⑤ 정리부에서는 카페인의 효과와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12 발표 내용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카페인 섭취량을 관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법률 지침 제공을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청소년의 카페인의 섭취 허용량과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이해시켜 카페인 섭취량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청소년들이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을 구별하여 카페인 섭취량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④ 청소년들이 카페인 섭취량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3 (나)에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섭취 허용량은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60킬로그램 × 2.5밀리그램 = 150밀리그램'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체중이 40킬로그램인 경우 하루 섭취 카페인 허용량은 100밀리그램이다. ② 체중이 50킬로그램인 경우 하루 섭취 카페인 허용량은 125밀리그램이다. ④ 체중이 70킬로그램인 경우 하루 섭취 카페인 허용량은 175밀리그램이다. ⑤ 체중이 80킬로그램인 경우 하루 섭취 카페인 허용량은 200밀리그램이다.

14 발표자는 에너지 음료 섭취 대신 물과 스트레칭을 통한 졸음 해소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④, ⑤ 에너지 음료 섭취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발표에서 제시한 대안과 관련성이 낮은 행동이다.

15 청중 5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구체적인 생활 습관 개선을 더 요구하고 있다. 카페인의 허용량 초과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청중 1은 발표 내용에 대한 보충 자료를 언급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② 청중 2가 요구한 카페인의 긍정적 측면은,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발표의 관점과 대비되는 정보이다. ③ 발표에서는 커피 음료나 에너지 음료의 대체품으로 물을 제안했는데, 청중 3은 물이 아닌 다른 음료를 추천해 달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④ 발표에는 카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전문가 면담 영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청중 4는 발표 내용의 과학적인 근거를 요청하고 있다.

16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아시나요?'는 질문 형태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발표의 주제와 연결되고 있으므로, 발표의 도입부에 추가할 표현으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도입부에서 할 수 있는 관심 유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

17 발표 후에는 청중과의 소통이 중시된다. 따라서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발표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은 발표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발표 전 단계에서는 청중의 관심사와 태도를 분석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발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려는 태도는 발표자의 책임감과 성숙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발표 중에는 매체 자료나 비언어적 표현 등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와 발표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⑤ 발표 후 청중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려운 질문에도 성의껏 답변하는 태도는 발표자의 책임감과 성숙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72~075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⑤ 05 ⑤ 06 ⑤ 07 ③ 08 ②
09 ⑤ 10 ① 11 ② 12 ⑤ 13 ④ 14 ④

01 아윤이는 친구들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과 면담을 활용하여 발표를 준비했다. 이를 통해 청중(우리 반 친구들)이 카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지식이 부족하고, 관심 있는 내용은 에너지 음료와 같은 실생활의 사례임을 확인했다.

오답 해설 ② 시각 자료는 발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아윤이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이를 강조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③ 발표 자료는 간단히 준비하기보다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는 적절한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④ 전문가 의견은 발표 내용을 보강하는 데 유용하지만, 모든 발표 준비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⑤ 청중의 질문에 대비하는 것은 발표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나, 아윤이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아니다.

02 아윤이는 발표 준비 과정에서 청중(친구들)의 배경지식과 관심사를 분석한 뒤, 친구들이 카페인이 건강에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잘 모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려운 전문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아윤이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고 있다. ② 아윤이는 친구들의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보다, 친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④ 아윤이는 청중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요구 대신,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설명한 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⑤ 아윤이는 자신의 경험담에 기반한 단순화 방식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03 효과적인 소통은 청중의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할 때 가능하다. 발표 내용이 청중과 연관성이 높을수록 발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소통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발표자의 주장만 강하게 전달하는 것은 일방적 소통이 될 수 있으며,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발표는 설득보다는 소통을 위한 전략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발표 시간은 내용의 밀도와 전달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무조건 길게 하는 것은 청중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발표의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 ④ 통계 데이터는 발표를 보강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는 청중의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⑤ 발표의 핵심은 청중과의 소통이며, 오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발표의 목적을 흐릴 수 있다.

04 발표에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담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할 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 청중이 정보를 더 잘 이해하고 발표 내용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오답 해설 ① 발표에서 카페인의 성분 분석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발표의 핵심은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지나치게 분석에 집중하면 흥미와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 ② 실험 데이터는 발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강조점은 청중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례와 메시지 전달에 맞춰져야 한다. ③ 발표는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조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청중이 스스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④ 반복적인 개념 설명은 청중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다. 과학적 개념보다는 이를 실제 사례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05 발표는 청중과의 효과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자료

는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발표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중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료를 포함하는 것은 발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는 발표의 목적(정보 전달, 설득, 문제 제기 등)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② 청중의 관심사에 맞는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소통 효과도 극대화된다. ③ 발표 자료는 주제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다뤄야 발표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확보된다. ④ 발표 주제가 청소년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다룬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06 〈자료 1〉과 〈자료 2〉는 카페인 섭취와 관련하여 청소년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허용량과 청소년에게 끼치는 카페인의 영향을 다룬다는 점에서 청소년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카페인 섭취 허용량과 같은 정량적 기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자료 2〉는 전문가 면담을 통해 청소년에게 끼치는 카페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③ 〈자료 3〉의 화학 구조에 대한 분석은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어, 청중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④ 〈자료 3〉은 화학적 관점에서 카페인에 대해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07 발표는 청중 중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발표의 전개부에서 카페인의 화학 구조와 같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정보를 다루는 것은 청중의 이해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료 3〉을 활용해 카페인의 화학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발표 목적과 청중의 이해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발표의 도입부는 청중의 흥미를 끌고 발표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는 부분이므로 적절하다. ② 청중의 배경지식을 간단히 짚어 보는 것은 발표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자료 1〉과 〈자료 2〉는 청소년의 건강 및 청소년에게 끼치는 카페인의 영향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전개부에 활용하기 적합하다. ⑤ 정리부에서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제안을 제시하는 것은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하다.

08 〈자료 2〉는 카페인이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발표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적합하다. 발표 준비 과정에서 자료의 선정은 주제와 목적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 허용량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③ 〈자료 3〉은 화학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청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자료 3〉의 카페인의 화학 구조는 발표 내용을 심화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청중의 이해도와 발표의 실질적 목적을 고려할 때 적절한 선정 이유로 보기 어렵다. ⑤ 〈자료 1〉과 〈자료 2〉는 청소년과 카페인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 청중의 관심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09 발표의 목적은 카페인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도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 변화(에너지 음료 섭취 줄이기)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담긴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과학적 정보는 발표를 보완하는 도구일 뿐, 연구 결과의 전달이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다. ②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의 섭취를 무조건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긍정적 영향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부정적 영향을 전달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청소년의 에너지 음료 섭취량이 성인의 섭취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문제 상황이며, 이것이 아윤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인 것은 아니다.

10 준언어적 표현은 음성의 높낮이, 속도, 강세 등과 같은 말의 방식과 관련된 표현으로,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은 준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발표 내용을 빠르게 읽는 것은 청중의 집중 유도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③ 단조로운 음성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끌기 어렵다. ④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준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자료 없이 비언어적 표현인 손짓만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11 ㉠에서는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중이 발표 내용에 자연스럽게 집중하도록 돕는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지 않았다. ③ ㉠에서는 정의보다는 질문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④ ㉠에서는 카페인의 부작용을 나열하거나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지 않다. ⑤ ㉠에서는 전문 용어보다는 일상적이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여 청중과 소통하고 있다.

12 ㉡은 음료와 음식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을 시각화한 것으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시각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만으로 카페인의 화학적 성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② ㉡은 행동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기보다는 정보 제공과 청중의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③ ㉡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의 일부를 소개하고 있으나, 다양한 음료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을 통해 카페인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3 발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중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행동 변화나 의식 개선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표 주제가 건강과 관련된 경우,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발표의 주요 효과로 간주된다.

오답 해설 ① 발표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일 수 있지만, 발표의 목표는 카페인의 긍정적 효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② 청중의 적극적 질문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이는 발표의 본질적인 목표라기보다는 발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 반응에 해당한다. ③ 전문 용어의 개념 암기는 발표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⑤ 특정 행동의 극단적 변화는 청중이 얻을 수 있는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

14 발표와 질의응답은 청중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표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중심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의 취지와 상관없이 발표와 무관한 정보를 활용하면 답변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질의응답의 목적은 청중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발표 내용을 보완하는 데 있으므로, 발표 내용과 무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다.

오답 해설 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 ② 질문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정보를 보충하면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③ 질문에 대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어려움을 인정하고 질문자에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청중의 질문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다. ⑤ 질문자가 제시한 사례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면 답변의 구체성과 실질적인 도움이 증가하여 청중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76-077쪽

01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 맞게 청중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02** ㅁ, ㅂ **03** 청중의 지적 수준 **04** ㄱ, ㄷ, ㅁ **05** 발표의 단조로움을 피하며 청중을 집중시키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한다. **06** 청중에게 발표자와 발표 내용에 대해 친밀감과 진정성을 느끼게 한다. **07** 청중이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01 〈보기〉에서 아윤이는 공식적인 발표 상황에 맞도록 청중을 높이는 말('-니다', '-요')을 사용하고 있고,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질문('무엇일까요?')을 던지고 있다.

02 ㄱ, ㄴ은 발표 전 활동, ㄷ, ㄹ은 발표 후 활동이다.

03 〈보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청중의 특징은 '청중의 지적 수준'이다.

04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 청중은 발표 중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노트에 적어 메모를 하거나(ㄱ) 발표가 끝난 후 발표자에게 발표 내용과 관련된 질문을 할 수 있으며(ㄷ),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ㅁ).

05 〈보기〉와 같은 준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발표의 단조로움을 피하며 청중을 집중시키고,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06 〈보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면 청중이 발표자와 발표 내용에 대해 친밀감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07 음식별 1킬로그램 또는 1리터당 카페인 함유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활용하여 청중이 해당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78~079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려면 도입부에서 발표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03 아윤이는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있다.

09 아윤이는 친구들의 관심사를 관찰하고 조사하여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

11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는 성인과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와 관련된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17 아윤이는 청중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발표하고 있다.

19 발표 후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더라도 성의껏 답을 찾을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발표를 할 때는 언어적 표현과 함께 비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2) 협상으로 문제 해결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82~085쪽

01 ⑤ 02 ② 03 ② 04 ③ 05 ② 06 ④ 07 ② 08 ④
09 ⑤ 10 ⑤ 11 ⑤ 12 ⑤ 13 ④ 14 ⑤ 15 ⑤ 16 ⑤
17 ⑤ 18 ② 19 ③

01 협상은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타협과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으로, 협력적 태도가 필수적이다.

오답 해설 ① 협상은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②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협상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 ③ 자기 입장만을 관철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④ 문제 해결 가능성을 차단하는 태도는 협상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02 조정 단계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인 제안을 주고받는 단계이다.

오답 해설 ① 시작 단계는 기본 입장과 갈등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③ 해결 단계는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하고 합의하는 단계이다. ④ 협상 절차에 평가 단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⑤ 결론 도출 단계는 협상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03 협상 내용 평가 기준에서는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준비는 협상 목표를 분명하게 세웠는지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된다. ③ 협상 태도는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에 참여했는지 평가하는 기준과 관련된다. ④ 협상 결과는 평가 기준과 관련이 없다. ⑤ 협상 목표는 협상 준비 과정의 일부이다.

04 협상은 상호 이해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고수하는 태도는 협상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협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태도가 바람직한 협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갈등을 줄이는 중요한 협상 태도이다. ②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태도는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④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협안을 수용하는 태도는 협상에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⑤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하는 것은 협상의 핵심적인 평가 기준 중 하나이다.

05 오케스트라부는 기존 연습실이 협소하여 넓고 쾌적한 소극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연극 공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케스트라부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다. ③ 연극부의 공간 사용과 관련된 근거이므로 부적절하다. ④ 연극부의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오케스트라부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다. ⑤ 기존 연습실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6 연극부는 동아리방이 연극 연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현재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연극부가 제대로 된 연습실 없이 활동해 왔다는 점은 연극부의 열악한 환경을 강조하여 연습 공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② 소극장이 공연에 필요한 무대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적합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근거로 적절하다. ③ 축제 준비를 위해 연극 연습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은 상황의 긴급성을 부각하여 연습 공간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⑤ 기존의 동아리방은 연극 연습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현재 시설의 한계를 강조하여 새로운 공간 확보를 요구하는 데 적절한 근거이다.

07 오케스트라부와 연극부 모두 소극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갈등의 핵심 원인이다.

오답 해설 ① 소극장의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③ 오케스트라부의 태도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연극부가 기존 동아리방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갈등의 원인도 아니다. ⑤ 연극부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나, 이것이 갈등의 원인인 것은 아니다.

08 협상의 쟁점은 소극장을 사용할 동아리를 결정하는 문제로, 이는 오케스트라부와 연극부가 갈등하는 이유이다.

오답 해설 ① 예산 문제는 쟁점이 아니다. ② 소극장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은 쟁점이 아니다. ③ 소극장을 나눠 사용하는 방안은 해결책이지 쟁점이 아니다. ⑤ 동아리의 활동 성격에 대한 이해는 쟁점이 아니다.

09 오케스트라부는 소극장을 주말 이틀을 모두 사용하고, 주중에는 연극부가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극장 사용 여부를 학교 측에 맡기자는 제안은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② 오케스트라부가 소극장을 전적으로 독점하겠다는 주장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주중 교대 사용 방식은 연극부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④ 점심시간 활용 방안은 오케스트라부가 거부한 방안이다.

10 오케스트라부는 악기 이동과 준비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인 연습을 위해 주말에 소극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해설 ① 축제 준비 기간 동안의 조율은 연극부와의 협상 결과이지, 주말 사용의 주된 이유가 아니다. ② 연극부와의 충돌을 피하려는 목적은 드러나지 않았다. ③ 긴급 상황 대처는 주말에 소극장을 이용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려는 내용과 주말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

11 연극부는 자주, 여러 번 나누어 연습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주중 사용을 선호하였다.

오답 해설 ① 소극장 점검은 연습 방식과 관련이 없다. ② 연극부의 주중 사용 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③ 점심시간 활용은 오케스트라부의 반대와 관련이 있다. ④ 동아리방 문제는 주중 사용 결정의 주된 이유가 아니다.

12 협상 결과, 오케스트라부는 외부 공연 준비를 위한 긴급 연습 시 방과 후 시간을 양보받고, 연극부는 축제 2주 전부터 토요일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방과 후 시간에만 소극장을 교대로 사용한다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오케스트라부가 방과 후 시간을 전적으로 양보하지 않았다. ③ 축제 2주 전에도 연극부가 전적으로 소극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④ 긴급 상황 시 별도의 공간 활용은 협상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3 오케스트라부와 연극부는 각자의 요구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호 양보를 통해 협상을 조율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제3자를 통해 결정하지 않았다. ② 전적인 양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갈등 원인을 무시하거나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지 않았다. ⑤ 학교 측에 결정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협상을 진행하였다.

14 협상 결과에 따르면, 연극부는 주중에, 오케스트라부는 주말에 소극장을 사용하며, 긴급 상황 시 연극부가 방과 후 시간을 양보하기로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축제 2주 전 주말 사용은 일부 합의된 내용이나 연극부의 독점 사용을 합의한 것은 아니다. ② 연극부는 주중에, 오케스트라부는 주말에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긴급 상황 시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도 빠져 있다. ③ 오케스트라부는 긴급한 경우 방과 후 시간에 소극장을 사용하겠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④ 소극장을 한쪽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협상 결과와 다르다.

15 협상의 최종 목표는 양측 모두가 만족할 만한 협의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협상은 이를 충족하였다.

오답 해설 ① 한쪽의 전적인 양보는 협상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선생님의 중재가 있었지만, 양측이 스스로 입장을 조율하였다. ③ 오케스트라부의 독점적인 사용은 양측의 만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합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④ 오케스트라부와 연극부는 소극장 사용에 대해 합의를 이루며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학교 측에 결정을 맡긴 것은 협상의 실패를 의미한다.

16 협상 과정에서 두 동아리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오답 해설 ① 갈등 해결을 학교 측에 맡기지 않고 두 동아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② 선생님은 협상 결과를 정리하고 있을 뿐, 최종 결정은 두 동아리가 하였다. ③ 협상은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두 동아리 간의 문제도 해결되었다. ④ 두 동아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하였으며, 갈등을 지속하지 않았다.

17 오케스트라부는 연극부가 축제 준비를 위해 주중 방과 후 시간에 소극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오답 해설 ① 오케스트라부는 점심 시간은 효율성이 낮다며 그 시간에는 소극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② 주말 소극장 사용은 오케스트라부가 주로 이용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주말에 오케스트라부에서 소극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다. ③ 오케스트라부는 축제 준비 기간 동안 소극장 사용을 포기하지 않았다. ④ 축제 2주 전부터 연극부가 토요일에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는 주말에는 오케스트라부가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18 연극부는 축제 준비 기간을 제외하고 주말에는 오케스트라부가 소극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오답 해설 ①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연극부가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한 것은 양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연극부는 축제 2주 전부터 주중 방과 후 시간에 소극장을 오케스트라부에 양보하지 않았다. ④ 연극부는 주중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⑤ 외부 공연 시 주말 소극장 사용 양보는 합의되지 않았다.

19 '학교 내 축제 참여 동아리 결정'은 협상의 본질적인 특징인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갈등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협상이 아니라, 토의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회사 조직 내에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생한 갈등을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④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해 당사자 간의 역할과 책임 조율은 협상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⑤ 지방 자치 단체 간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사례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086~089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④ 05 ③ 06 ③ 07 ② 08 ③
09 ⑤ 10 ③ 11 ③ 12 ⑤ 13 ① 14 ⑤ 15 ⑤ 16 ④
17 ④

01 협상은 서로의 관점을 조정하여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지,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일방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⑤ 협상의 필요성과 의의라고 할 수 있다. ② 협상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탐색한다. ③ 협상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다.

02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오답 해설 ① 대안을 종합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③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④ 타협 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협상의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갈등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 가능성 점검은 시작 단계에 해당한다.

03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며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정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대안과 제안을 논의하며 상호 검토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① 서로의 제안을 평가하고 논의하여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조정 단계의 활동 중 하나이다. ②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배려하며 협상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④ 대안을 논의하고 타협안을 도출하는 과정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호 제안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04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협상의 목적과 상황, 대상을 고려하여 말할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시작 단계에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오답 해설 ① 소극장 사용을 양보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할 일로 보기 어렵다. ② 소극장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해 통보하는 것은 협상의 본질인 상호 협력을 무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각 동아리가 제안이나 대안을 상호 검토하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가는 활동은 조정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사용 가능 시간을 제안하는 것은 (가)에 드러난 협상의 단계와 무관하다.

05 (나)에 제시된 협상의 단계는 시작 단계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먼저 서로의 이익이 부딪히는 지점인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타협점을 찾아 나서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② 합의안 마련은 해결 단계에서 다루어지는 활동이다. ④ 입장 정리는 협상 시작 전 준비 단계에서 할 일이다. ⑤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조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06 협상은 상호 존중과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협상의 본질에 어긋나며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오답 해설 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참여 의지 표현은 협상에 필요한 태도이다. ② 상대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려는 것은 협상을 하기에 적절한 태도이다. ④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근거로 삼는 것은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⑤ 각 동아리의 요구를 명확히 하여 입장을 밝혀야 한다.

07 두 동아리가 소극장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와 필요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발생하였다. 즉, 소극장 이용이라는 이익의 상충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다.

오답 해설 ① 두 동아리가 동일 시간에 소극장을 사용하려 하는 것은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소극장을 사용할 동아리를 선정하는 공정한 기준의 부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기존 공간의 문제는 갈등의 배경이지만 그것이 직접 원인은 아니다. ⑤ 동아리 간의 의사소통 문제는 제시된 상황과 관련이 없다.

08 연극부는 기존에 특별히 지원받은 공간이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연극부는 신설 동아리로 첫 축제 준비를 위해 소극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연극부는 현재 동아리방에 공연 장치가 없어 연극 연습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 오케스트라부는 기존 연습실이 합주를 하기에는 비좁다는 점을 소극장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⑤ 오케스트라부는 학교를 대표해 외부 행사에 참여한다는 점을 소극장 사용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다.

09 오케스트라부와 연극부 모두 소극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는 입장은 아니므로, 협상을 통해 〈보기〉와 같이 공동 사용 방안을 모색했다.

오답 해설 ① 협상 없이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면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공정한 해결책이 도출되기도 어렵다. ② 동아리 활동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극장 사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기〉와도 관련이 없다. ③ 연극부는 기존 동아리방에서 연기 연습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다른 공간을 찾도록 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오케스트라부의 기존 연습실은 합주를 하기엔 너무 좁아 부원들이 고생하고 있으며, 악기 연주 특성상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10 협상의 단계 중 (가)는 조정 단계, (나)는 해결 단계에 해당한다.

11 (가)에서 연극부는 자주, 여러 번 연습을 선호하며 주중 시간에 소극장 사용을 요청했으나, 방과 후 시간 전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한 적은 없다.

오답 해설 ① 연극부는 자주 연습할 기회를 선호하며 이에 따라 주중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연극부는 축제 준비를 위해 주말 중 일부 소극장 사용 시간을 양보받고자 요청하고 있다. ④ 오케스트라부는 주중 연습 준비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주말 소극장 사용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⑤ 오케스트라부는 외부 공연 준비를 위해 긴급한 경우 방과 후 시간의 소극장 사용을 요청하고 있다.

12 오케스트라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점심시간이 짧아 연습하기 어려움.)을 들어 소극장을 주중·주말로 나누어 사용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면서, 신설 동아리인 연극부가 축제에서 성공적인 공연을 해야 내년 동아리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자신의 이익만을 강조하며 상대의 제안을 무시하면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상 진행이 어려우며, 이는 오케스트라부의 말하기 방식도 아니다. ② 오케스트라부는 문제 해결보다 연극부와의 입장 차이를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양보 없는 태도는 협상 진행의 걸림돌이 되며, 협력적인 태도와도 상반된다. 또한 이는 오케스트라부의 말하기 방식도 아니다. ④ 상대방의 제안을 반박만 하는 것은 협상에서 문제 해결을 저해하며, 이는 오케스트라부의 말하기 방식도 아니다.

13 오케스트라부는 임박한 외부 공연 준비를 위해 방과 후에 소극장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⑤ 주말 이틀 동안 소극장 사용을 제안한 것은 오케스트라부이다. ③ 축제 전 2주 동안 연극부의 소극장 토요일 사용은 연극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② 오케스트라부는 점심시간이 짧아 연습하기 어렵다며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소극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④ 오케스트라부가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소극장을 사용하자고 하자, 연극부는 평일 점심시간에 집중해서 연습할 수 있다며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4 오케스트라부가 연극부의 축제 준비를 고려하여 축제 2주 전부터 토요일 하루 동안 소극장을 사용하도록 연극부에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주말 사용 시간을 모두 양보한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선생님은 소극장의 공동 사용 방안을 제안하여 갈등 해결의 출발점을 제시했으며, 이는 협상의 조정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② 오케스트

라부는 외부 공연 일정에 맞춘 긴급한 연습을 위해 방과 후 시간 일부를 양보받기를 요청했다. ③ 연극부는 신설 동아리로, 성공적인 첫 무대를 위해 축제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말 사용 시간 일부를 양보받고자 하는 요구를 전달했다. ④ 양측은 각자의 필요를 고려하며 소극장 사용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아갔다.

15 연극부는 긴급 시 방과 후 시간을 오케스트라부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축제 전 2주 동안 주말 하루 소극장을 사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오답 해설 ① 조건 없이 오케스트라부의 사용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② 방과 후 양보를 거절하지는 않았다. ③ 주중 사용 시간 확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④ 소극장 독점 사용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16 연극부는 축제에서의 성공적인 첫 무대를 통해 다음 해 동아리 홍보에 도움을 얻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축제 이후 소극장을 독점 사용하려는 동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② 소극장 사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연극부는 소극장을 오케스트라부와 공동으로 사용하되 축제 준비를 위해 축제 전 2주 동안 주말 중 하루 사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것이 ㉡에 숨겨진 동기인 것은 아니다. ⑤ 학교 행사 참여를 통해 연습 공간 확보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17 합의서는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모든 의견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만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합의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조율하고 검토한 최종적인 합의 내용만을 포함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합의서는 협상 당사자들이 검토하고 동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② 합의서는 협상 당사자 간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기록한 공식 문서이다. ③ 합의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참고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 자료가 된다. ⑤ 합의서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포함할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090~091쪽

01 (1) 학교를 대표해 온 오케스트라부가 소극장을 사용해야 한다. (2) 기존 연습실은 합주 연습을 하기에 너무 좁아서 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02** 해결 단계 – 대안을 종합하고 합의하기 **03** ㄱ – 합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 포기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ㄹ – 설득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압박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견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ㄹ – 협상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으로 대화해야 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과장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ㅁ – 협상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05** ㄱ –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ㄴ –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하는 것은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ㄹ –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점검하는 것은 시작 단계의 활동이다. **06** 주중에 소극장을 사용할 권리, 축제 2주 전부터 토요일에 소극장을 사용할 권리

01 〈보기〉에서 오케스트라부는 '기존 연습실은 합주 연습을 하기에 너무 좁아서 부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들어, '학교를 대표해 온 오케스트라부가 소극장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02 협상의 해결 단계는 대안들을 종합하고 합의하는 단계이다. 해결 단계에서는 조정 단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종합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한다.

03 ㄱ. 합의 과정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고 절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ㄹ. 설득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견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다.

04 협상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ㅁ)으로, 협상 과정에서는 정확한 정보와 사실을 바탕(ㄹ)으로 해야 한다.

05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ㄱ)과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점검하는 것(ㄹ)은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며, 최종적으로 합의된 내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정하는 것(ㄴ)은 해결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다.

06 〈보기〉에서 오케스트라부는 주중에 소극장을 사용할 권리와 축제 2주 전부터 토요일에 소극장을 사용할 권리를 연극부에 양보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092~09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2 오케스트라부는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 연습 준비와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점심시간에 소극장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주중과 주말로 시간대를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4 선생님은 어느 한 동아리가 소극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두 동아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06 오케스트라부는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 연습 준비와 정리를 충분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0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12 연극부는 주중 소극장을 사용하는 대신 주말 사용권을 오케스트라부에 양보했으며, 독점적인 사용보다는 협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4 연극부는 주말 양일간 소극장을 사용하는 것은 오케스트라부에 양보하고, 주중 소극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단, 축제 2주 전부터는 토요일에도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17 오케스트라부는 소극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소극장을 주말에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외부 공연이 임박하여 긴급하게 연습해야 할 시 방과 후에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했다.

(3) 매체 비평에 참여하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096~101쪽

01 ③	02 ③	03 ⑤	04 ⑤	05 ⑤	06 ②	07 ③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⑤	13 ③	14 ⑤	15 ⑤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④	21 ①	22 ⑤	23 ③	

01 매체 자료는 객관성을 잃거나 특정 관점을 부각해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매체의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매체가 전달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 세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와 아무 연관이 없다. ② 매체가 현실을 효율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서 항상 실제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왜곡 가능성을 간과하는 것이다. ④ 매체 자료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매체가 전달하는 현실은 거리가 멀다. ⑤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매체 자료의 내용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은 사실이나, 매체가 전달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 세계를 구분해야 하는 근본적인 까닭이라고 볼 수 없다.

02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이나 의도에 따라 구성된 것이기에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현실이 실제 현실 세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에 대한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오답 해설 ① 매체를 단순히 많이 접한다고 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대중의 선호를 기준으로 매체 자료가 제작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것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아니다. ④ 매체 자료의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해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현실이 실제 현실 세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다. 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03 매체 자료를 비평한 글일지라도 그것에 따라 매체 자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판적 수용과 거리가 먼 태도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수용자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보아야 한다. ② 매체 자료에는 생산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매체 자료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파악해야 한다. ④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수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04 매체 자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왜곡·과장하여 묘사하면, 이로 인해 사회적 편견과 오해가 확산되고, 결국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왜곡과 과장은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소이다. ② 전달 속도는 개인이나 집단의 왜곡이나 과장에 따른 문제와 관련 없는 요소이다. ③ 매체 자료의 왜곡된 정보는 비판적 사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④ 왜곡된 정보는 자율적 판단을 방해하고, 잘못된 결정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 판단 능력이 강화된다고 하기 어렵다.

05 (다)에 소개된 영화는 주인공인 용남과 의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이를 통해 희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과거의 실수나 성과는 관련이 없다. ② 조직 생활에서의 협력은 영화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③ 운동과 취미 활동이 영화의 일부 내용에 활용되었지만, 이것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다. ④ 가족의 안전은 영화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는 초반부의 설정일 뿐 전체 메시지를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06 영화는 카메라 앵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재난 상황 속 도심에서의 암벽 등반이라는 소재를 참신하고 긴박하게 선보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화는 진지함만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③ 영화의 서사는 단순하고 직선적이며, 서브플롯이나 복잡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재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기는 하나, 파괴 장면의 스펙터클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⑤ 영화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생존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07 취업 준비생인 용남과 여성이자 사회 초년생인 의주는 모두 평범하지만 동시에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로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연회장 직원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② 도심 시민들의 응원이나 탈출 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구조 헬기 조종사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사람을 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⑤ 연회장에서 용남의 가족과 손님들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것이 특정 집단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8 영화 〈엑시트〉는 용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라는 현실적인 사회적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화는 청년들의 고통을 희화화하기보다는 유쾌한 방식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영화는 주로 청년 문제와 개인의 생존 의지에 초점을 맞추며, 세대 간 갈등은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없다. ④ 재난 상황에서 생존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화의 핵심은 인간적 노력과 희망을 강조하는 데 있다. ⑤ 영화 〈엑시트〉에 긴장감이 일부 유발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영화의 주된 메시지는 아니다.

09 (나)에 따르면, (가)에서 소개한 영화는 하이 앵글 쇼트와 로 앵글 쇼트를 활용하여 용남과 의주의 움직임을 긴박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러한 카메라 기법은 관객을 영화 속 상황에 몰입시키며, 재난 상황에서 주인공들이 펼치는 액션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도심에서의 암벽 등반이라는 독특한 설정이 카메라 기법과 결합되어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역동적인 액션과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다. (나)에서 주인공의 감정 묘사가 세밀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과거 회상이 반복적으로 삽입되었다거나, 극적인 감정 변화가 나타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느린 화면 연출이나 심리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정적인 장면을 반복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0 (가)의 줄거리를 통해 영화가 주인공들이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며 희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관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희망과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영화에 비현실적인 행동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이것이 긍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도 없다. ②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재난 속에서도 용기와 리더십을 발휘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오히려 관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④ 영화는 긴박한 재난 상황을 다루고 있으나, 이것이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지는 않는다. 또한 영화의 결말이 희망적으로 마무리되므로, 관객들이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 영향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⑤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강조된다. 따라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 주는 내용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11 (나)에서는 카메라 움직임이 관객을 몰입시키고 긴박감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긴장감을 완화하고 여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관객을 '스크린 속 응원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관객이 주인공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② 관객이 주인공의 성공을 응원하게 한다는 점은 카메라 움직임이 관객의 몰입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③ 카메라 움직임을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처럼 활용한다는 점은 (나)에서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 주는 카메라 움직임'을 언급한 내용과 연결된다. ⑤ 하이 앵글 쇼트와 로 앵글 쇼트의 활용은 주인공의 액션을 긴박하게 포착하여 관객을 영화에 몰입시키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다.

12 (다)에서는 의주가 재난 영화에서 흔히 주어진 여성 캐릭터의 전형적 역할을 탈피하여 위기 극복의 주체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유머 영역까지 여성 주연이 설 자리를 넓혔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성 캐릭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② 재난 대피와 구조 신호의 지휘는 의주가 수행한 역할로, '전적으로 용남에게 맡겼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다)를 통해 이 영화가 로맨스 장면이 없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④ (다)에서는 여성 캐릭터인 의주가 남성 캐릭터의 도움을 받는 기존 전형에서 벗어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13 영화 〈엑시트〉는 재난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기술적 혁신은 영화 〈엑시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남녀 주인공 간의 관계나 이로 인한 감정선의 극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은 드러나나, 이것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긴장감은 드러나나, 갈등의 해소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이것이 주제도 아니다.

14 (다)에서는 의주가 기존에 남성 캐릭터가 전유해 왔던 유머 코드를 적극적으로 소화하며 여성 캐릭터의 주체성을 확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여성 캐릭터의 능동적인 역할 변화가 유머 코드에 기여하고 있다. ② 유머는 영화 전개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나, 웃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반복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 유머 코드에 기여한다. ④ 의주의 행동이 용남의 어색함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15 의주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위기 극복의 '주체'가 되어 재난 상황을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기존 남성 캐릭터가 주로 담당했던 '유머 코드'를 활용하여 관객에게 웃음을 제공하고 있다.

16 (다)에서 의주는 남성인 용남보다 암벽 등반 실력이 한 수 위라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②, ⑤ 용남과 의주는 대학생 때 산악 등반 동아리에서 배운 산악 등반 기술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있다. ③ 의주는 뛰어난 산악 등반 실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17 매체 자료를 수용할 때는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기법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자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오답 해설 ② 폭력적 자료와 외국인 범죄에 대한 매체 자료의 묘사가 불안감과 혐오 감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③ (가)를 통해 매체 자료가 현실을 구성하며 특정 인식이나 관념을 형성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매체 자료가 구성한 현실과 실제 현실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가)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외모를 이상적으로 묘사하는 매체 자료가 수용자의 외모 만족도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가)에서 매체 자료는 자극적 소재로 수용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왜곡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사례 1]~[사례 3]을 통해 매체 자료가 부정적인 관념을 강화하여 수용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사례 2]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사례 1]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사례 3]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는 매체 자료의 부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20 (나)에 따르면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을 살피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 방법이다. 따라서 영화의 제작 의도가 상업적 목적인지 검토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등장인물의 감정선이나 영화의 흥미를 평가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무관하다. ② 영화의 결말과 관객의 심리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무관하다. ③ 산악 등반 기술 묘사와 영화 장르의 재미를 분석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무관하다. ⑤ 긴박한 설정의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 역할을 살피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무관하다.

21 영화의 흥행 성적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해설 ② 매체 자료의 제작자가 영화를 어떤 주제로 만들었는지 살피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③ 영화의 수용자적 특성에 따라 영화가 관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④ 매체 자료인 영화가 수용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적절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⑤ 영화 속 등장인물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왜곡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22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오답 해설 ① 등장인물을 현실에서 있을 법한 인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② 등장인물의 행동이 사건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나)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③ 등장인물의 외형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등장인물이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지 여부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23 영화가 새상이 너무 위험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어 불필요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족 간의 화합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② 주인공의 활약으로 관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주인공의 용기에 공감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산악 등반 기술로 인해 흥미가 유발되는 것이 부정적 영향이라고 할 수 없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02~105쪽

01 ④	02 ④	03 ⑤	04 ④	05 ②	06 ⑤	07 ⑤	08 ④
09 ①	10 ④	11 ④	12 ①	13 ⑤	14 ⑤	15 ⑤	16 ⑤

01 매체 자료가 현실을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용자의 관념과 인식을 형성하거나 왜곡한다는 의미이다.

오답 해설 ① [사례 1]을 통해 폭력적인 매체 자료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사례를 통해 매체 자료는 반복적 노출을 통해 특정 관념을 형성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사례 3]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묘사하는 자료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사례 1]을 통해 자극적 콘텐츠가 현실 인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2 수용자에게 제작 목적과 그 의도가 모두 수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 방법의 핵심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수용자의 모든 반응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오답 해설 ① 특정 집단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는지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의 한 방법이다. ② 선정적 요소가 포함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의 한 방법이다. ③ 매체 자료가 수용자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의 한 방법이다. ⑤ 제작 주체의 이해관계와 의도를 분석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의 한 방법이다.

03 (가)와 (나)는 매체 자료가 수용자의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의 해석은 수용자의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며 각기 다르게 수용된다. ② (가)의 [사례 3]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사례 2]를 통해 특정 관념의 반복적 노출을 통해 특정 관념을 강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서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방법으로 선정적 기법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체 자료가 선정적 기법을 통해 수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가)에 언급된 사례는 매체가 특정 집단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을 뿐,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통해 인식을 왜곡하고 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사례 3]을 통해 외국인 범죄를 강조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사례 1]을 통해 폭력적 콘텐츠가 현실을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사례 2]를 통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이 자존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사례 1]에서 언급된 폭력적 콘텐츠와 유사하게 선정적인 콘텐츠 역시 수용자에게 왜곡된 관념을 심어 줄 수 있다.

05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면 매체에서 사용한 기법의 사용 목적을 파악하고, 수용자의 주관적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파악하고 경계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특정 자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비판적인 수용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선정적 기법은 긍정적 메시지 전달과 관련이 없으며, (나)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매체 자료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실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체 자료의 비판적 수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을 배제했는지는 이와 무관하다. ⑤ 매체 자료에 긍정적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정적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06 (가)에 제시된 사례는 매체 자료가 특정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수용자의 인식과 태도를 왜곡하거나 형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되는 사례는 [사례 3]과 유사하다.

오답 해설 ① 정치 참여 독려는 (가)에 언급된 사례와는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② 특정 음악 유행 형성은 관념 형성과 관련되지만, (가)에 언급된 부정적 영향 사례와는 거리가 있다. ③ 자연 보호에 대한 인식 고취는 매체 자료의 긍정적 역할로, (가)에 언급된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매체 자료의 수용이 건강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사례 2]와 상반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07 영화 〈엑시트〉는 산악 등반 기술을 활용한 주인공의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관객의 몰입을 유도하는 영화이다.

오답 해설 ① 영화 〈엑시트〉는 사실 전달보다는 관객의 몰입과 감정적 반응 유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영화 〈엑시트〉가 매체 자료의 부정적 이미지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영화 〈엑시트〉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④ 영화 〈엑시트〉는 긍정적 정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08 영화는 영상 매체 자료로, 영상 매체 자료는 관객에게 정서적 자극을 준다. 하지만 메시지를 중립적으로만 구성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영상 매체 자료는 연출과 서사를 통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 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② 영상 매체 자료에 사용되는 연출 기법은 관객의 감정적 몰입을 유도하는 데 사용된다. ③ 영상 매체 자료가 관객에게 메시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는 하지만, 관객이 메시지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⑤ 특정 서사를 통해 관념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영상 매체 자료의 특징이다.

09 영화 〈엑시트〉는 로맨스가 중심이 아니라 재난의 극복이 중심 내용이며, 주인공인 의주가 로맨스의 중심인물인 것도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영화 〈엑시트〉는 성 평등적 서사를 통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③ 의주는 유머의 영역에서도 활약하며 기존 남성 캐릭터 중심의 코미디 코드를 여성 캐릭터로 확장하고 있다. ④ 영화 〈엑시트〉는 여성 캐릭터가 재난 극복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여성 캐릭터인 의주는 남성과 대등하게 재난 대피와 구조를 지휘하며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0 영화 〈엑시트〉는 로맨스를 배제하고 의주와 용남이 협력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구출 후 이어지는 재난 극복 서사는 남녀 간의 로맨스보다는 여성 캐릭터의 주체적 행동과, 남성과의 동등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용남은 산악 등반 동아리 경험과 꾸준한 체력 단련으로 재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② 의주는 산악 등반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극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영화 〈엑시트〉는 성 역할 고정 관념을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영화 〈엑시트〉는 코미디적 요소를 가미하여 여성 캐릭터의 활약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11 여성 캐릭터가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가)의 내용으로 볼 때, 의주는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재난 대피와 구조 신호 송출을 지휘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재난 영화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주는 먼저 탈출하지 않고 용남과 협력하여 재난을 극복하고 있다. ② 용남과 의주의 상하 관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의주는 가족 보호보다는 용남과 함께 재난 상황을 직접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⑤ 의주는 남성에 의존하는 대신 재난 극복의 동등한 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12 영화 〈엑시트〉는 남성과 여성이 협력하여 동등하게 재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주와 용남은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며 재난 극복 상황에서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남성 캐릭터는 재난 극복의 주도권을 독점하지 않고 여성 캐릭터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③ 여성 캐릭터는 재난 상황 속에서 구조와 대피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남성 캐릭터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④ 여성 캐릭터는 유머 코드에서도 활약하며 기존 남성 중심의 코미디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⑤ 여성 캐릭터는 재난 극복의 주체로 그려지며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

13 영화 〈엑시트〉에서 의주는 기존 재난 영화에서의 전형적인 여성 캐릭터와 달리 재난 극복의 주체로 활약하며, 용남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유머적 요소에서도 주요 역할을 맡아 여성 캐릭터의 가능성을 확장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의주는 용남의 지시에 따르는 수동적 캐릭터가 아니며, 재난 극복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② 영화 〈엑시트〉는 의주와 용남의 협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로맨스를 중심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로맨스 요소를 배제한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다. ③ 의주는 남성 캐릭터에 의존적이지 않으며, 재난 상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등 남성 캐릭터와 동등하게 활약하고 있다. ④ 로맨스 장면이 배제된 것은 맞지만, 여성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14 영화 〈엑시트〉는 재난 상황을 다루지만,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깊이 다루거나 인식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용남의 산악 동아리 경험과 꾸준한 운동은 취미 활동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산악 등반 기술을 활용해 생존하는 장면은 재난 상황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관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③ 두 주인공의 협력은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 ④ 긴장감 넘치는 상황에서도 유머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은 관객이 배울 수 있는 긍정적 가치에 해당한다.

15 영화 〈엑시트〉가 고정된 성 역할을 탈피하여 의주와 용남을 대등한 협력 관계로 설정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 볼 수 없으며, 영화에서 유머 코드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지도 않다. ② 긴박한 상황에서 코미디를 활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관객의 몰입을 방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를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서사가 단조로운지 여부는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영화 〈엑시트〉의 서사가 단조롭지도 않다. ④ 여성 캐릭터가 전통적인 성 역할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다.

16 (가)는 영화 〈엑시트〉에서 의주가 전통적인 여성 캐릭터의 틀에서 벗어나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위기 극복과 유머 코드에서도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는 영화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을 설명하며, 영화 〈엑시트〉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남성 캐릭터의 역할 변화가 아니라, 여성 캐릭터 의주의 활약과 변화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는 영화의 배경과 제작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② (가)는 의주가 위기 극복의 주체로 설정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영화의 주제를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③ (가)는 유머 코드뿐만 아니라 의주의 전반적인 활약을 다루고 있으나, (나)는 영화의 흥행 성과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주요 인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를 분석하지 않고, (나)는 여성 캐릭터의 역할 변화를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06쪽

01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왜곡된 현실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2** ㄱ, ㄴ, ㄹ, ㅁ **03** 관객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01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현실과 실제 현실 세계가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하는 까닭은, 매체 자료가 전달하는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왜곡된 현실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2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적절성, 매체 자료의 신뢰성과 유용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03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용남과 의주의 모습을 통해 관객에게 웃음을 주고 우리 사회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0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1 매체 자료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현실을 구성한다.

04 외국인 범죄를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매체 자료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08 용남은 가족과 함께 헬기에 탑승하지 못하고 의주와 함께 옥상에 남겨진다.

10 의주는 용남과 동등한 위치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는 여성 캐릭터가 기존 매체에서 보여 준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났음을 드러낸다.

3 글로 읽는 세상, 세상을 움직이는 글

(1) 주제 통합적 읽기와 사회적 독서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12~121쪽

01 ②	02 ③	03 ②	04 ④	05 ④	06 ②	07 ②	08 ①
09 ②	10 ①	11 ①	12 ⑤	13 ②	14 ④	15 ①	16 ④
17 ④	18 ⑤	19 ②	20 ③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⑤	26 ②	27 ⑤	28 ③	29 ⑤	30 ④	31 ①	32 ④

01 형식적 완결성이나 정형화된 형식미를 강조하는 것은 주로 논설문이나 논리적 구조가 강조되는 글의 특징이다. 이 글은 수필로서 감성적 서술과 자유로운 구성이 중심을 이룬다.

오답 해설 ① 수필의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글에는 글쓴이가 토담집에서 경험한 기억과 감정이 잘 담겨 있어 개성과 사상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③ 이 글은 글쓴이가 직접 겪은 경험과 감상을 자유로운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수필은 자유로운 형식과 개인적 감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④ 독자와 삶에 대한 성찰을 공유하는 것은 수필이 지닌 일반적 특징에 해당한다. 글쓴이는 독자에게 자신이 경험한 전통적 주거 공간의 정서를 전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⑤ 수필은 특정 결론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으며, 독자가 글의 여운을 통해 각자 자유롭게 감상하도록 한다.

02 아낙은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산기를 겪으면서도 침착하게 저녁을 지어 놓고 출산 준비를 하였다.

오답 해설 ① 남편과 아낙, 즉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접살림을 나면서 토담집을 손수 지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② '장에 간 남편은 어디서 술을 마시는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④ 아낙은 밥을 짓는 와중에 산기를 느꼈으나, 저녁 준비를 침착하게 끝내고 있다. ⑤ 아낙이 텃밭에서 찬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03 '그'는 어릴 적 경험을 통해 석양의 북새나 굴뚝 연기 같은 자연의 징후를 보고 비를 예측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도시 생활 속에서 '그'의 오감이 불분명해졌다고 하고 있다. ③ '그'가 도시 생활을 함으로써 아침과 저녁의 경계가 불분명해졌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어린 시절과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다. ④ '그'는 어린 시절 토담집에서 성장하며 자연의 비밀과 지혜를 깨달았다. 콘크리트 집은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주거 형태로, 어릴 적 공간과는 대조적인 곳이다. ⑤ '그'는 아파트 생활 속에서 자연의 사계절을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아이 역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04 ㉣은 전통적이고 안정된 가정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따뜻하고 정겨운 공간의 일부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아낙이 저녁 준비와 출산을 위해 아궁이에 지피는 것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생명과 일상의 지속을 드러낸다. ② ㉡은 가족을 위한 식량을 마련하는 공간으로, 상업적인 작물 재배와는 무관하다. ③ ㉢은 아낙이 저녁 준비의 일환으로 끓이는 음식으로, 경제적 궁핍과는 무관하다. ⑤ ㉤은 자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아파트에서 경험하는 생활 소음과는 대조적이며 자연의 고유한 감각을 드러낸다.

05 이 글에서 토담집은 어머니의 헌신과 가족을 위한 사랑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어머니의 젊음을 소진한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토담집은 '그'의 어머니가 팔 남매를 출산한 장소로, 생명 탄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 ② 토담집은 '그'의 부모가 직접 짓고 신혼 생활을 시작한 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장소이다. ③ '그'는 토담집에서 자연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삶의 가치를 배웠다. ⑤ 토담집은 '그'의 기억과 정체성의 뿌리가 되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삶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다.

06 글쓴이는 현대적 삶에서 자연과의 단절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자연과의 연결이 삶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한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토담집에서의 삶을 통해 계절과 시간의 흐름을 체감하며 이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③ 글쓴이는 토담집에서의 삶을 통해 자연의 비밀과 지혜를 깨닫는 것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현대적 아파트의 물질적 편리함보다 토담집의 정서적 온기와 소박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 ⑤ 글쓴이는 토담집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이 삶에 명료함과 의미를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

07 이 글의 갈래는 수필로서, 극적인 사건보다는 일상적이고 소소한 경험을 통해 삶의 교훈이나 정서를 전달하며, 서사성보다는 묘사와 사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수필은 자연스러운 문체를 통해 독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③ 이 글은 자연과 삶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수필은 글쓴이의 내면세계와 철학적 사유를 드러내는 갈래이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이 글은 토담집과 가족의 일상적 소재를 통해 독자와의 거리감을 줄이고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이처럼 수필은 일상적 소재를 통해 친근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⑤ 수필은 정형화된 서술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자유로운 문체와 형식으로 글쓴이의 독창성이 드러난다.

08 이 글은 토담집의 풍경, 계절의 변화, 그리고 전통적 생활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독자가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돕는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전통적 삶의 지속성과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이것이 현대적 삶의 무기력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이 글은 글쓴이의 정서적 울림과 교훈 등을 담고 있으며, 주관적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④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는 장면을 서정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⑤ '똑또르 똑또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쓰이긴 했지만, 이를 통해 중심 소재인 '토담집'의 감각적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09 도시 생활은 '그'에게 고단함과 무기력을 주는 환경으로 묘사되며, 과거의 추억을 대체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과거의 추억은 도시 생활에서 위안을 주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그'에게 그 집에서의 경험은 계절과 시간의 흐름,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과거의 기억은 '그'의 영혼 깊숙이 간직되어 있으며, 먼 미래까지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도시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간직한 과거의 추억은 마음속의 보석처럼 소중한 위로와 안식의 원천으로 제시되어 있다. ⑤ 과거의 풍요롭고 조화로운 기억과 현대 도시의 고단함이 대비를 이루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와 의미가 강조된다.

10 ㉠은 글쓴이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⑤ ㉡~㉤은 모두 글쓴이 자신을 지칭한다.

11 글쓴이는 어린 시절 나고 자란 토담집과 현대의 공간을 대비하고 있는데, 전통적 공간을 긍정적인 공간으로, 현대적 공간을 부정적 공간으로 제시할 뿐, 현대적 공간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② 현대적 공간에서 계절감과 자연과의 연결이 상실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어린 시절의 공간을 '작은 우주'로 표현하며 자연과 교

감했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어린 시절의 공간과 현대적 공간의 감각적 차이를 대조하며 현대적 삶의 단절과 상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전통적 공간과 현대적 공간의 대비를 통해 자연과 단절된 현대적 삶을 반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2 ⓔ가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연의 계절성과 인간의 삶이 단절된 현대 주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오답 해설 ① ⓐ는 악귀를 막고 새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전통적 의식을 나타낸다. ② ⓑ는 비바람을 막는 용도를 넘어 따뜻함과 안정감을 주는 전통적 집의 이미지를 형상화한다. ③ ⓒ는 자연 속에서 감각적으로 체험한 자연의 소리를 나타낸다. ④ ⓓ는 자연과 단절된 공간을 상징하며, 현대적 공간의 단조롭고 비인간적인 삶을 드러낸다.

13 이 글은 현대의 주거 방식인 고밀·고층 구조의 특징과 이에 따른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전달 목적의 설명문은 대체로 주제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논리적 전개 방식을 활용한다.

오답 해설 ① 소설과 같이 사건과 인물이 중심이 되는 서사적 글의 경우 사건이나 인물을 다채롭게 묘사한다. ③ 감정 표현이나 서정적 분위기, 독자의 공감은 정보 전달 목적의 설명문과는 관련이 없다. ④ 이 글과 같은 설명문에는 정보와 논증을 통해 독자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뿐, 논설문에서 드러나는 글쓴이의 주관적 관점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설득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드러나지 않는다. ⑤ 예술적 표현이나 미적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학 작품이다.

14 고층 아파트 거주로 인한 생리적 문제는 기압 변화뿐만 아니라 강풍에 의한 진동,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다. 고층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겪는 생리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기압 변화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고층에서의 기압 변화가 편두통, 현기증, 멀미 등 생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높은 곳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임을 언급하고 있다. ③ 고층 구조가 생리적 스트레스(편두통, 멀미 등)와 심리적 스트레스(추락 공포, 불안감)를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코르티솔이 만성화되어 과다 분비될 경우 혈압, 혈당 상승과 면역 체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5 이 글은 루이스 칸과 같은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건축과 주거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은 정보 전달과 논리적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으로, 대화체를 활용하지 않았으며 독자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지도 않다. ③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뒤 1970년대 서양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고층 주거 공간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 둘을 상반된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독자의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는다. ④ 이 글은 고층 주거 공간의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⑤ 이 글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통해 현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6 내부 공간이 건축의 핵심 요소이며,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내부 공간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② 건축에 있어서 내부 공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내부 공간이 기술 발전의 기준이라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건축에서 내부 공간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다. ④ 현대인의 생활 시간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17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 신체가 대처하기 위해 분비하는 호르몬으로, 자극에 맞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심신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코르티솔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해서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지는 [A]와 〈보기〉를 통해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와 〈보기〉에 코르티솔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의 회복을 돕는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② [A]에서 코르티솔에 의해 간에서 포도당이 방출되고, 이는 혈당 수치를 높인다고 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코르티솔의 과도한 분비로 인해, 즉 스트레스 상황이 만연해질 때 쿠싱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A]와 〈보기〉 모두 신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코르티솔을 분비해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8 이 글은 고층 아파트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을 뿐, 그 발전 배경이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아파트의 고층·고밀 구조가 거주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집과 같은 주거 공간이 인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③ 주거 공간이 거주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현대의 고층 주거 형태가 자연적 삶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거주자에게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에너지를 생성한다고 하였다.

19 고층 아파트의 구조적 특징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을 과학적 데이터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건축 공간 일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논증이 아니라 설명의 방식을 동원하여 고층 아파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④ 이 글이 고층 아파트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고층 아파트와 인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전통 주거 형태와 고층 아파트를 비교하거나 전통 주거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20 이 글에서는 고층 주거 공간에서의 기압 변화가 편두통, 현기증, 멀미 등의 생리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고층 아파트의 대중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일본의 공영 주택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아파트의 고층과 저층 거주자의 심리적·생리적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계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고층 아파트에서의 스트레스를 설명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건축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21 권위 있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일본의 고층 공영 주택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고층 주거 공간의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고층 주거 공간이 불편한 원인을 높이, 기압, 강풍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과학적 근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아파트의 고층 거주가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해외의 연구 결과와 달리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고층과 저층이 주는 신체의 스트레스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는 설명에 해당한다. ⑤ 고층 아파트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리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다.

22 ㉮는 아파트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비되는, 내부 공간의 실질적 가치와 거주자의 삶의 질을 비유한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가 외부 디자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는 건축가의 창의성과 기술적 역량이 아니라 거주자가 체감하는 내부 공간의 실질적 가치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③ ㉮는 아파트 내부 공간의 기능성과 거주자의 삶의 질을 의미하므로 사회적 관계나 커뮤니티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④ ㉮는 내부 공간의 기능성과 실질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개념이지, 화려한 인테리어와 같은 시각적 요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3 [A]를 통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소화액 분비가 억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화 활동을 촉진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로 동공이 확장되는데, 이는 위협 상황에서 신체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의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하려는 적응적 반응이다. ② 〈보기〉와 [A]를 통해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스트레스 상황에서 교감 신경계는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심박수와 호흡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생존 확률을 높이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⑤ 지속적인 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는 에너지 소모를 늘리고, 이는 피로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24 [B]에서는 국내와 외국의 고층 주거 공간의 구조적 차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층 공간의 특성과 거주자에 대한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와 외국 고층 주거 공간의 구조적 차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B]에서는 자부심이 생리적 반응을 이기기도 한다고 언급하며, 자부심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B]의 '이처럼'으로 시작하는 첫 문장을 통해 고층 주거 공간이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그러나' 이후 제시되는 이와 상반되는 국내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③ [B]에서 국내에서는 고층이 '로열층'으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거주자에게 자부심을 주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층 거주자와 저층 거주자 간의 정신 건강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25 '어떤 현상이 안에 존재하는'은 '내재적인'의 사전적 의미이며, '잠재적인'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은 상태로 존재하는'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④ 각각 ⓐ~ⓓ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26 (가)와 같은 매체 자료는 뉴스로서 객관적 사실과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문제를 부각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청년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사실에 기반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③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와 같은 매체인 뉴스는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소개하며 특정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다. ⑤ 뉴스는 청년 주거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다룸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27 생애 주기 차원을 고려한 청년 주택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효과는 (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독일의 주거공간지원법은 18~27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② 일본 홋카이도 미카사시 사례를 통해 주택 임대료 일부를 상품권으로 보전하여 지역 경제와 연계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③ 싱가포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공공 주택 우선권을 제공하며 집값의 80퍼센트까지 대출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이 국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28 (가)에서는 정책 변화 전후의 구체적인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독일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② 주거 지원 정책이라는 공익적 주제를 다루며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신혼부부 대상 설문 조사 결과와 전문가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⑤ 간결하고 명확하게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독자가 핵심 정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9 (가)에서는 청년 주거 문제가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져 국가 인구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서는 주거 지원이 개인의 자립을 방해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 주거 지원 정책은 인구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도 연계되어 있음을 근거로 각국의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③ 독일의 주거 정책은 거처 마련, 취업 알선, 난방비 보조 등 주거 지원과 사회적 자립을 연계하여 운영된다. ④ (가)에서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0 김○○ 길잡이는 함께 읽기의 장점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해석을 공유하며 통합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에서 독서 동아리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려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② 공동체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다채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읽기와 쓰기 간의 상호작용이나 쓰기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31 김○○은 독서 동아리에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며 통합적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자율성과 지속적 행복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② 임○○은 함께 책을 읽으며 경험한 행복과 성장에 대해 언급하였고, 김△△은 개인의 윤리적 성찰과 성장에 독서가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즉, 두 사람은 모두 독서 동아리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③ 김○○은 다른 사람의 해석을 듣고 자신의 관점을 확장하는 통합적 시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어 임○○과 차이를 보인다. ④ 김△△은 독서를 통해 인간 존중이라는 윤리적 가치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의 관점과 구별된다. ⑤ 김△△은 독서 동아리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언급하며 임○○과 차별화된 관점을 보여 준다.

32 '이미 지난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함.'은 '고려(顧慮)'의 사전적 의미이며, ⓓ는 '고려(考慮)'로 사전적 의미는 '생각하고 헤아려 봄.'이다.

오답 해설 ①, ②, ③, ⑤ 각각 ⓐ, ⓑ, ⓒ, ⓔ의 사전적 의미에 해당한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22~131쪽

01 ②	02 ②	03 ②	04 ②	05 ④	06 ⑤	07 ①	08 ③
09 ④	10 ②	11 ④	12 ③	13 ⑤	14 ③	15 ⑤	16 ④
17 ②	18 ④	19 ④	20 ③	21 ⑤	22 ④	23 ③	24 ③
25 ②	26 ①	27 ③	28 ②	29 ④	30 ⑤		

01 이 글에서는 '그'의 부모가 토담집을 짓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들고, 황토와 논흙을 섞어 벽을 완성하는 등의 묘사를 통해 토담집이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현대화 이전의 서울과 지방의 차이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는 현대의 주거 환경과 과거의 전통적 주거 공간을 대비하고 있지만, 도시화가 자연 환경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그'가 고향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까닭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아파트와 관련하여 '그'의 과거 경험과 현재 상황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02 '노란 흙벽, 노란 초가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 정다운 노란 집'과 같은 색채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토담집'에 대한 따뜻하고 정다운 전통적 공간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구체적인 장면과 감각적 묘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을 뿐, 추상적 표현을 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장면 묘사와 상황을 통해 주제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은 세밀하고 정교한 묘사를 통해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로써 서술의 속도감은 다소 느린 편이다. ⑤ 이 글은 특정한 사건이 드러나거나 이에 대한 선후 관계가 나타나기보다는 특정 장면과 경험을 중심으로 서정적이고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 '토담집'은 가족 간의 유대를 쌓고 자연과 교감하며 세상을 배우고 성장한 공간으로 묘사된다.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개방 공간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가족과 밀접하게 연결된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안식처로서의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토담집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유대를 형성한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③ 아이들이 토담집에서 자라며 자연의 비밀을 배우고 세상을 이해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토담집에서 경험한 자연과 계절의 흐름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고 있다. ⑤ 토담집은 자연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통적 생활 방식을 대표하는 공간으로 제시되어 있다.

04 ㉡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끓이는 음식으로, 아내의 출산을 축하하고 어머니로서의 고생을 위로하는 상징적 소재이다.

오답 해설 ① ㉠은 산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아낙의 헌신과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③ ㉢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악귀를 물리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적 의식을 상징한다. ④ ㉣은 힘들고 고단한 도시 생활에서 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그'에게 위로와 안식을 제공하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은 자연의 변화를 드러내는 소재로, 비가 올 것을 예측하는 전통적 삶의 지혜와 관련된다.

05 ㉮와 ㉯는 각각 '그'의 과거와 현재의 거주 공간으로, 정서적 온기와 자연과의 조화가 강조되는 ㉮와 달리 ㉯는 자연과 단절된 현대적 공간이다. 다만 물리적 기능성과 효율성은 ㉮보다 ㉯가 높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는 흙벽과 초가지붕 등 자연 소재로 구성된 전통적 주거 공간이며, ㉯는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진 현대적 공간이다. ② ㉮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유년 시절의 경험이 담긴 과거의 집이며, ㉯는 현재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주 공간으로 서로 대비되고 있다. ③ ㉮는 자연과 연계된 텃밭과 마당이 있는 전통적 공간이며, ㉯는 한정된 사각형의 공간으로 자연과 단절된 현대적 삶을 드러낸다. ⑤ ㉮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계절과 시간의 흐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며, ㉯는 사계절과 시간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다.

06 글쓴이는 전통적 생활 방식과 공간이 주는 감각적 풍요로움과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지만, 이를 현대적 삶의 한계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대신 전통적 공간이 주는 의미와 현대적 삶에서 상실된 가치를 성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어린 시절의 공간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본질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과거의 공간에서 느낀 계절과 시간의 구체적인 감각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③ 유년기의 기억은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며, 현재의 고단한 삶을 견디는 힘이 되고 있다. ④ 글쓴이는 현대적 공간이 자연과의 단절로 인해 감각적 풍요로움과 정서적 연결을 약화시키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07 이 글에서는 현대의 고밀 구조가 다양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거주자 간 교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② 고층 아파트에서의 기압 변화, 추락에 대한 두려움, 강풍으로 인한 진동 등이 신체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고층에서의 기압 변화가 편두통, 멀미, 혈압 변화 등을 초래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외국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여 고층 거주자가 저층 거주자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불안, 우울, 공격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강풍으로 인한 건물의 흔들림이 거주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뱃멀미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게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08 이 글은 고밀·고층 구조의 특징과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례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설명문이다.

오답 해설 ① 서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주로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② 이 글은 설명문으로, 비유나 묘사를 통해 예술적 감상을 제공하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정보를 전달한다. ④ 이 글은 공감을 유도하거나 서정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특정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고층 주거 환경의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9 이 글은 고층 거주 환경에서 기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그것이 거주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수치와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서양의 연구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주제의 보편성을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층 주거 공간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② 고층 주거 공간의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분석하며 문제를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③ 루이스 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지만, 대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현대적 주거 공간에 대한 설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대적 주거 공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나 주거 공간 변화에 대한 총체적 논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10 ②는 ㉮와 가장 의미가 통하는 견해로, 건축이 인간의 삶, 정체성,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적 관점을 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건축에 대한 기능주의적 관점으로 ㉮와 상반된 의미로 볼 수 있다. ③ 건축에 대한 자연 중심적 관점으로, ㉮와 직접적 연결성이 부족하다. ④ 공간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서 설계자 중심으로 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견해이다. ⑤ 추상적이고 미학적 표현으로, ㉮의 주제 의식과 거리가 멀다.

11 〈보기〉는 고층 구조가 생활 편리성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고층 구조가 생활 편리성을 높인다고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에서는 고밀·고층 구조로 인한 거주자의 스트레스와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보기〉는 주거 문제 해결과 도시 생활의 편의성 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주거 공간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다. ③ 〈보기〉는 아파트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글 역시 고밀·고층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아파트는 한정된 토지에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는 목적에서 발달한 주거 양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과 〈보기〉 모두 아파트로 대표되는 현대적 주거 형태가 토지 이용의 효율을 높인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고층 구조가 거주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제시한 반면, 〈보기〉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12 이 글에서는 고층 주거 공간의 생리적 스트레스가 필연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을 뿐,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다고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고층 주거 공간에서의 추락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고층에서의 기압 변화가 두통과 현기증을 포함한 생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④ 고밀 구조가 사람들

간의 물리적·사회적 충돌을 유발하며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 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13 (가)는 전통적 주거 공간의 따뜻함과 조화로운 삶을 중심으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와 대비되는 공간인 아파트에서의 삶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대적 주거 형태의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반면 (나)는 과학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 주거 공간의 생리적·심리적 문제를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중심으로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과 어린 시절 살았던 공간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글쓴이의 개인적 경험과 감상을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③ (나)는 과학적 연구와 객관적 근거를 활용하여 현대 주거 형태가 인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객관적 사실과 연구 결과를 통해 현대 고층 주거 공간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적 회상으로 이루어진 (가)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14 글쓴이는 전통적 주거 공간의 삶을 이상적으로 여기고 있으나, 이를 현대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어린 시절의 공간과 추억을 통해 감각적 기억과 삶의 본질적 의미를 성찰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글쓴이는 전통적 주거 공간에서의 자연과의 조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④ 글쓴이는 도시적 삶을 사계절의 흐름과 오감의 풍요로움이 불분명해진 삶으로 묘사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⑤ 글쓴이는 전통적 주거 공간이 어린 시절의 감각과 기억,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며 공간의 물리적 조건이 삶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15 '그 집'은 전통적이고 지역적 환경에 기반한 공간일 뿐,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거나 세계관을 확장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그 집'은 '그'와 형제들이 성장하며 삶의 기초와 가치관을 형성한 환경이다. ② '그'가 '그 집'을 어린 시절의 공간으로서 소중히 기억하며 심리적 안식처로 여긴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그'가 '그 집'에서 사계절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규칙성과 조화를 배웠음이 드러나고 있다. ④ '그'가 '그 집'을 통해 자연 속에서 감춰진 비밀을 깨닫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16 ㉮는 일본의 고층 공영 주택 정책 사례로, 고층 주거 공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고층 주거 공간이 인간의 생리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실증적임을 드러냄으로써 글쓴이의 논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오답 해설 ①, ② 일본의 고층 공영 주택 정책은 거주 공간에 대한 경제적 선택권의 폭이 넓지 않은 저소득층이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는 고층 거주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는 고층 공영 주택이 특정 취약 계층을 보호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③ ㉮는 문제의 보완이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된 것이다. ⑤ 글쓴이가 제시한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일본에서는 정책적으로 6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가정은 고층 거주를 제한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 어려움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17 (나)에서는 ㉠이 추락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했을 뿐, 시야 개방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나)에 따르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추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흥분하거나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기압 변화가 발생하며, 이는 편두통이나 현기증과 같은 생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강풍에 의한 건물의 흔들림은 고층 거주자에게 뱃멀미와 유사한 신체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건물이 미세하게 흔들릴 때 거주자들이 느끼는 잠재적인 불안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보기〉는 아파트의 고층 구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보기〉에서 제시하는 긍정적 영향은 고밀로 인한 도시 인프라 접근성, 보안, 유지 보수 편의성에 관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는 아파트를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공간으로서 자연과 단절된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보기〉는 이와 같은 외부와의 차단을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가)는 아파트에서의 감각적 흐릿함과 세계와의 단절성을 지적한 반면, 〈보기〉는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가 제공하는 생활 편의성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아파트에서의 고밀 거주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언급하며, 〈보기〉에서는 고밀 거주의 단점 중 하나로 소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나)는 아파트의 고밀 구조가 공간적 효율성은 높이지만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보기〉는 관리와 도시 생활 측면에서의 아파트의 효율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 (가)는 글쓴이가 살았던 과거의 주거 공간과 그로부터 얻은 삶의 가치를 회상하며, (나)는 현대 주거 공간인 아파트의 고층·고밀 구조와 그로 인한 문제를 다룸으로써 주거 공간의 영향을 논의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감정적 회상과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할 뿐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나) 역시 주거 공간의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다룰 뿐, 설계 방식을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② 고층 주거 공간의 생리적·심리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나)에만 드러나 있다. ③ (가)는 개인적 경험과 감상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현대적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현대적 주거 공간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지만, 대안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는 글쓴이가 살았던 전통적 주거 공간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서술하고 있지만, 전통적 주거 공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현대적 주거 공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현대적 주거 공간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 공간과 직접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는다.

20 (나)에 아파트의 고밀·고층 구조와 관련된 기능성과 문제점이 서술되어 있을 뿐, 내부 공간의 실용성과 디자인적 조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다)에서 청년들이 가족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주거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전통적 주거 공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감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아파트의 고밀·고층 구조가 거주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심리적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다)에서 청년 주택과 같은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청년 주거 지원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1 ⓔ는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과 제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오답 해설 ① ⓐ는 비가 온 날 밤에 들리는 자연의 소리로, 전통적 삶에서 계절과 환경 변화에 민감했던 감각적 경험을 나타낸다. ② ⓑ는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현대적 공간의 특성을 상징하며, 자연과 단절된 삶을 표현한다. ③ ⓒ는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현대적 삶을 보여 주는 소재로 이를 통해 계절의 흐름을 잃어버린 모습이 드러난다. ④ ⓓ는 건축에서 외형보다 내부 공간이 더 중요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주거 공간의 본질적 가치를 강조한다.

22 [A]에서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집'이라는 표현이 전통 신앙과 의례의 소멸을 암시하기는 하지만, [A]는 삶의 본질적 순간들과 주거 공간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일 뿐, 이를 통해 공동체적 유대의 약화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에서 탄생과 죽음이 없는 집은 더 이상 공간의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주거 공간을 탄생과 죽음 등 삶의 본질적 순간과 연결하는 것에서 주거 공간이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③ 주거 공간을 삶의 본질적 순간, 즉 탄생과 죽음과 밀접하게 연결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전통적 주거 공간인 토담집을 가족의 탄생과 죽음이 있었던 특별한 장소로 묘사하는 것을 통해 글쓴이는 전통적 주거 공간이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선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함을 확인할 수 있다.

23 (다)는 주택 문제가 개인의 경제적 부담,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국가와 지방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만, 주택 문제가 가족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주택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기피로 이어진다고 진단하고 있다. ②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반 가구보다 임대료와 대출금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언급되어 있다. ④ 국가와 지방 정부가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 사례 중 하나로 청년 주택이 제시되어 있다. ⑤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에서 안정적 주거 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24 (다)는 주거 문제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과제임을 강조하지만, 정책적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오답 해설 ① (가)는 글쓴이의 전통적 주거 공간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룬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② (나)는 아파트라는 현대적 주거 공간의 문제가 고밀·고층 구조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 ④ (가), (나), (다)는 각각의 관점에서 주거 공간이 인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주거 공간과 주거 문제를 주제로 다루며, 각기 다른 시각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탐구하고 있다.

25 이 글은 인터뷰 내용을 활용해 독서 동아리가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김○○, 임○○, 김△△ 등의 인터뷰 사례를 통해 독서 동아리의 효과를 독자에게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③, ⑤ 글쓴이의 경험, 비유와 감각적 묘사, 객관적 자료와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인터뷰 등을 통해 독서 동아리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④ 주장이 명시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다.

26 독서 동아리는 대면 활동뿐만 아니라 비대면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독서 동아리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 생산 능력을 기르고 통합적인 사고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독서 동아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책을 선택해 읽으며 행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개인의 독서 활동이 독서 동아리를 통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독서 동아리의 '함께 읽기'는 독자가 자신이 보지 못한 관점을 접하고 통합적인 시야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27 임○○ 길잡이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학문적 필요에 의해 참여하게 되는 활동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독서 동아리가 시험이나 학문적 필요와는 다르게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답 해설 ① 김○○ 길잡이는 함께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접하고 자신이 보지 못한 시각을 깨달아 통합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 임○○ 길잡이는 독서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 활동이라는 점과 활동이 끝난 후에도 행복과 성장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김△△ 길잡이는 독서를 통해 자신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기쁨을 공유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독서 동아리 활동의 의의로 제시하고 있다. ⑤ 김△△ 길잡이는 독서 동아리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8 이 글은 객관적 자료(조사 결과)와 구체적 사례(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의 주거 지원 정책)를 제시함으로써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③ 진솔한 감정을 표출하기보다, 주거 지원과 관련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④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화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입장을 소개하는 대신 각 국가의 주거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사례를 나열하며 설명하고 있다.

29 일본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안정을 연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의 주거 지원 제도는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인 가구 청년에게 거처 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사회 주택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홋카이도 미카사시는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택 임대료 일부를 보전해 준다. ② 독일은 18~27세 청년들에게 난방비 보조,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한 사회 주택 지원을 제공한다. ③ 싱가포르는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부모나 조부모 집으로부터 2킬로미터 내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제공한다. ⑤ 싱가포르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주택 우선 분양을 제공하며, 독일은 1인 가구 청년에게 공공 주택 우선권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30 해외 여러 국가의 주거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단순한 지원의 형태가 아닌 생애 주기 차원의 복합적 고려가 있음을 언급하며 종합적 지원 정책에 대한 바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영감 제공에 목적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특정 국가의 주거 지원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② 한국의 주거 문제에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주거 문제와 해외 주거 문제의 심각성을 비교하며 한국의 주거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③ 청년들의 자립과 관련하여 주거 정책에 복합적 고려가 필요함을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은 주거 정책에 대한 역사적 맥락이나 사회적 변화를 통시적으로 조명하고 있지는 않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32~133쪽

01 (가)와 (나)는 모두 주거 공간이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2**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 의미를 고려할 때, ㉠은 주거 공간이 삶의 본질적 순간과 의미를 담는 장소임을 드러낸다. **03** ⓐ의 의미: 건축물의 외형적 요소를 뜻하며, 높이나 모양 등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가리킨다. ⓑ의 의미: 건축물의 내부 공간을 의미하며,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질적 요소를 나타낸다.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는 내부 공간을 만드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 우리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으로, 거주자의 삶에 실질적 의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다. **04** '함께 읽기'는 독자가 보지 못한 관점을 접할 수 있게 해 통합적 시야를 가지게 하고, 개인의 성장을 도우며, 인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움으로써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01 (가)는 전통적 주거 공간인 토담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의 감각과 정서를 풍요롭게 했음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주거 공간이 단순한 생활의 배경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나)는 현대적 주거 공간인 아파트가 고밀·고층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화려한 외형과 달리 실질적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가)와 (나) 모두 주거 공간이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인간의 정서, 심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일치된 관점을 보여 준다.

02 ㉡에서 말한 '건물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의미와 연결하면, 주거 공간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삶의 기쁨과 슬픔, 의미를 담아내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은 그러한 장소적 의미가 사라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에서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났다는 것은 한 가족의 삶과 역사가 깃든 전통적 주거 공간의 의미가 소멸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진 탄생과 죽음, 가족 간의 유대와 같은 삶의 본질적 순간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34~135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7 강풍이 불 때 발생하는 고층 아파트의 흔들림은 거주자들에게 불안감과 뱃멀미 같은 증상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10 국내 연구에서는 고층 거주자와 저층 거주자 간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고층 거주가 자부심을 제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4 미카사시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택 임대료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18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며, 한국부동산원의 제언을 통해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 주택 공급'과 같은 방향성을 언급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한국의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명확히 제안하지는 않는다.

(2) 논증하는 글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38~143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②	14 ④	15 ④	16 ④

01 '이유'는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이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객관성을 띠어야 하는 것은 '근거'이다.

오답 해설 ③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은 주장이다. '논증하는 글'에서는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④ 모든 글쓰기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02 이 글은 경험 소비의 장점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소비자를 경험 소비로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한 논의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가 소비자의 자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② 소유 소비가 심리적 만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③ 광고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소유 소비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이다. ④ 2013년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실시한 소비 행태에 따른 행복감 차이를 검증한 실험과 그 결과를 통해 소유 소비가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에서는 경험 소비가 개인의 내면적 성장과 지속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경험 소비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험 소비가 장기적인 만족을 주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장으로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② 경험 소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관적 요인인 이유 2(ⓑ)에 해당한다. ③, ④ 미국의 연구나 실험을 통해 소유 소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유 1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에 해당한다.

04 [A]는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는 귀납 논증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④는 다양한 연구에서 공기 오염이 호흡기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근거로 '공기 오염이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이는 여러 개별 사례(연구 결과)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귀납 논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이 추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평균 독서 시간이 줄고 있다는 사실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의 원인이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니다. ③ 일반 명제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논리를 전개하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 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이 귀납 논증이다. 그러나 ⑤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5 이 글에서는 경험 소비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행복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B 씨의 사례에서도 여행을 통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후 소비 패턴이 경험 소비 중심으로 변화했으므로 이 글의 주장과 일치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B 씨가 경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소비 성향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

이지만, 이것이 광고와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글에서는 경험 소비와 소유 소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데, B 씨의 사례는 경험 소비가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한 것이므로 경험 소비와 소유 소비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이 글에서는 경험 소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B 씨도 여행을 통해 활력과 행복감을 얻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인과의 비교 때문인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B 씨의 경험이 개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일 수는 있으나, B 씨의 경험이 일반적인 소비 패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경험 소비가 더 큰 행복을 준다는 일반적인 소비 패턴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06 이 글은 소유 소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험 소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소비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소유 소비를 비판하고 경험 소비를 긍정한다는 점에서 중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글은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논리적 근거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소비 행태를 분석하고 있다. ④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를 비교하고 경험 소비를 장려하고 있을 뿐, 소유 소비의 장점이나, 경험 소비의 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의 개념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경험 소비를 권장하고 있을 뿐 두 소비 패턴의 균형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07 3문단을 통해 물질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A 그룹)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는 큰 행복감을 느끼지만, 구매 후에는 급격히 행복감이 떨어지며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는 인간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소비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행복감의 지속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소비는 구매 후 만족감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경험 소비는 비교적 장기간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소유 소비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비교와 결합될 경우 우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경험 소비를 한 경우 행복감이 더 높았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8 ㉠은 연역 논증으로,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칙인 대전제와 특정 사례인 소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식을 일컫는다.

오답 해설 ① 권위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니며, 이것이 어떤 논증에 대한 설명인 것도 아니다. ②, ③ 모두 귀납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⑤ 연역 논증은 전제에 오류가 있을 경우 논증이 성립하지 않는다.

09 ㉮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소비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고, ㉯는 소비 방식이 행복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이다. ㉯는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의 차이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감정에 미치는 일관된 영향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소유 소비가 단기적 만족을 제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족감이 급격히 감소하며 반복적인 소비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는 경험 소비가 단기적 만족을 넘어 장기적으로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며, ㉯는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두 연구 모두 소비 방식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므로 적절하다. ③ ㉮는 소유 소비가 만족감을 제공하지만, 단기적이고 불안정하게 지속됨을 확인한 연구이다. ㉯는 경험 소비가 더 높은 행복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연구이다. ④ ㉮는 소비자의 가치관이 소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 연구이고, ㉯는 소비 방식이 소비 후의 감정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이다.

10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는 '내용 조직하기'이다.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그 개요에 따라 초고를 작성한다.

11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일반적 원리나 법칙에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 내고 있다. 연역 논증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귀납 논증에 해당한다. ③ 논리적 오류 중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④ 논리적 오류 중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⑤ 유비 논증에 대한 설명이다.

Plus 〈참고〉 논리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개의 사례나 경험을 토대로 전체 또는 전체의 속성을 단정짓고 판단하는 데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A 사과와 B 사과를 먹어 보니 맛이 없었다. 그러므로 올해 사과는 전부 맛이 없을 것이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권위나 명성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로, 권위자가 아닌 부적합한 권위자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개그맨 ○○○가 맛있다고 한 식당이니까 당연히 맛있을 거야.

12 ㉮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인 사회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전문가의 말이 구체적인 사례라고 하기는 어렵다. ③ 권위 있는 전문가의 말이지,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④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재반박과는 거리가 멀다. ⑤ 문장 간 응집성과는 거리가 멀다.

13 이 글에서는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를 비교하면서, 경험 소비가 더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소비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사회적 영향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③ 소비 행태가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비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고 있지는 않다. ④ 소유 소비의 단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연구 사례와 실험 데이터를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소비가 감정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는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14 시간이 지나면서 물건의 가치가 감소하는 반면 경험은 기억과 감정을 통해 지속적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이므로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의 일종인 예상 반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② 글쓴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이다. ③ 이 글의 주장에 해당한다. ⑤ 논증에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인 근거이다.

15 ⓐ의 연구는 물질만능주의적 소비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소유 소비에서 더 큰 행복감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고 급격히 감소하며 소비 중독의 경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을 분석한 연구이므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인다고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의 연구에서는 물질적 소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소유 소비 후 급격히 만족감이 감소하고 반복적으로 실망감을 느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의 연구에서는 물건을 사는 것보다 경험 소비가 더 지속적인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연구는 물질만능주의적 소비 태도가 소비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의 연구는 경험 소비와 소유 소비 간의 행복감 차이를 비교하여 경험 소비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⑤ ⓐ의 연구는 소비자의 태도와 소유 소비의 만족감 감소를 분석하였고, ⓑ의 연구는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높은 행복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두 연구 모두 소비 행위와 정서적 영향을 연구한 사례를 통해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16 ㉠은 연역 논증이므로 논리적으로 필연적이지만, ㉢은 귀납 논증이므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과 ㉡ 모두 대전제에서 일반 원리를 제시한 후, 소전제에서 특정 사례를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적 논증 방식으로, ㉠의 '인간은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와 ㉡의 '실내 공기 질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대전제이다. ③ ㉠은 '긍정적 자아 형성'이라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은 '협업 능력이 직장 내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치 판단을 포함하고 있다. ⑤ ㉡과 ㉢ 모두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44~149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③ 05 ③ 06 ⑤ 07 ④ 08 ①
09 ③ 10 ③ 11 ⑤ 12 ④ 13 ② 14 ⑤ 15 ③ 16 ③
17 ①

01 이 글에서는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이 강한 소비자들이 소비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실망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가치관이 소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의 긍정적 효과를 연구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소유 소비의 만족감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지속 시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③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행복감이 좀더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경험 소비와 행복감의 절대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이 글은 소비자의 가치관, 소비 방식에 대한 인식, 사회적 요인 등이 소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적 요인이 최우선 요인인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02 이 글에서는 소유 소비로 얻은 만족감은 장기적으로 유지되지 못함을 언급하고 있다. 구매 습관을 점검하는 소비자가 소유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소비자의 물질만능주의적 태도 같은 가치관이나 심리적 요인이 소비 만족도와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소비 행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실험 결과는 인간의 정서적 만족감과 소비 형태가 영향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③ 광고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이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자극하고, 소비 심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⑤ 경험 소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3 이 글에서는 소유 소비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경험 소비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소유 소비의 장점이 균형적으로 논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가 더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한다는 점을 실험 결과를 통해 논증하고 있다. ② 경험 소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증을 전개하고 있다. ③ 글쓴이는 연구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⑤ 경험 소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독자에게 강압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04 고급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은 소유 소비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④, ⑤ 모두 경험 소비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이 글의 글쓴이는 소유 소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를 주장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 즉 〈보기〉에 대한 반박으로 경험 소비의 장점을 언급할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소비 만족도를 재화의 소유 여부에서 찾는 시도는 이 글의 논지와 관련이 없다. ② 이 글은 경험 소비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주장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므로 〈보기〉에 대한 반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글의 주장을 반복할 뿐, 〈보기〉의 주장을 적절히 반박하고 있지 않다.

06 논증하는 글에서는 다양한 논증 방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한 가지 방법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논증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계획할 때는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글에 대한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이나 관심사, 관점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논증하는 글은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에 적합한 주제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논증하는 글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작문 관습에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 등이 있다. ④ 매체에 따라 영상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고 문자로 된 글만 제시할 수도 있으므로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체를 정해야 한다.

07 '예상되는 반론'이 아니라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반박'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면서 주장을 강화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개인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⑤ 사회적 쓰기 윤리에 해당한다.

08 〈보기〉에서는 전문가인 '소스타인 베블런'의 견해를 추가하여 글쓴이의 주장에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③ ㉮와 〈보기〉를 비교할 때, 정의적 설명이 추가되거나 핵심 주장만 남아 있지는 않다. ④ 〈보기〉에서 소스타인 베블런의 견해가 추가되긴 했지만, 이는 연구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⑤ 〈보기〉에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것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이다.

09 주장, 이유, 근거에 따라 논증의 구조를 세우고 내용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고려하여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 해당한다.

10 이 글은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더 지속적인 행복을 제공한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논증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주관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소유 소비가 개인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경험 소비 역시 반드시 더 높은 만족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소비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낫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기〉는 상황에 따라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의 효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② 이 글은 소유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더 긍정적이라고 주장할 뿐, 소비 방식의 선택이 사회적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④ 〈보기〉는 소비 방식의 상대성을 강조하지만, 이 글은 소유 소비보다 경험 소비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소비 형태의 상대적 장단점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보기〉는 실증적 연구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다.

11 ㉯는 경험 소비와 소유 소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활용한 연구로, 설문 조사 결과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소유 소비가 경험 소비보다 행복감을 더 크게 높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②, ③ 연구 방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④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다.

12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글이다.

오답 해설 ① 기사문의 특성이다. ② 보고문의 특성이다. ③ 설명문의 특성이다. ⑤ 감상문의 특성이다.

13 이 글에서는 소비자가 특정 소비 방식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심리적 만족도, 가치관, 사회적 환경 등의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가 긍정적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이 글은 소유 소비가 단기적인 행복을 제공할 수 있으나,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경험 소비는 소유 소비와 달리 추억을 쌓는 소비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소비라고 하였다. ⑤ 소유 소비가 물질만능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매함으로써 큰 행복감을 줄 수 있으나, 이후 행복감의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14 [A]에서는 경험 소비가 더 바람직한 소비 방식이라는 결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삶이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의 효과는 개인의 가치관, 경제적 상황, 심리적 요인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의 효과가 사회적 구조나 경제적 여건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고 있는지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② 소비자의 행복이 여러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험 소비가 낫다는 [A]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며 비판적 읽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A]에서는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수준의 행복을 느낀다고 단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는 소유 소비를 부도덕한 소비 방식으로 치부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5 이 글은 광고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소비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여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광고가 사회적 인정 욕구를 자극하여 소비자들이 소유 소비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광고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여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개인의 소비 성향에 따라 ㉮의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는 알 수 없다. ④ 이 글에서는 ㉮가 소유 소비를 촉진할 뿐 지속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주장하지는 않고 있다. ⑤ ㉮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16 ㉯에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동일한 금액인 5만 원을 제공하고 이를 소유 소비와 경험 소비로 나누어 소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 내용이 다른 것이 이 실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비 내용이 다르다고 결론에 오류가 있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에서는 A 팀과 B 팀에게 동일한 금액인 5만 원을 제공하고 있다. ② 경험 소비를 한 B 팀의 행복도 변화를 통해 소비 방식에 따라 행복도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④ ㉯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이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실험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⑤ 실험 결과는 경험 소비가 행복감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 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실험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보기〉에서 글쓰기 윤리 중 사회적 차원의 쓰기 윤리는 다른 사람이 창작한 글이나 연구 자료를 허락 없이 베껴 쓰지 않고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므로, 출처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자료 조사 결과와 결론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이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글을 베껴 쓰는 행위가 아니다. ③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자료의 종류를 밝히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④ 통계 자료가 설문 조사보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⑤ 참고 자료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있다면 이는 글쓴이의 신뢰에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저작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50~151쪽

01 ㉮: 경험 소비가 소유 소비보다 바람직하다. ㉯: 경험 소비는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 우울감, 상대적 박탈감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다. 소비 이후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중독의 위험이 있다. ㉱: 인간의 긍정적 자아 형성에 도움을 준다. 소유 소비에 비해 더 큰 행복을 준다. **02** (1) 인간은 행복한 경험을 함으로써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 (2) 사람들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며 행복감을 느낀다. (3) 공연 관람을 위한 소비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03** 근거로 인용한 실험 결과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

03 〈보기〉에서는 실험의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비에스(EBS) 다큐멘터리 『자본주의』라는 출처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는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52~15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9 「'소유'보다 '경험'」은 개별 사례에서 일반적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 방식도 쓰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소유'보다 '경험'」은 소유 소비의 장점에 대한 균형 있는 논의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19 「'소유'보다 '경험'」은 경험 소비가 일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경우에서 경험 소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4 삶과 함께하는 국어

(1) 국어의 변화와 발전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58~163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⑤	08 ②
09 ⑤	10 ④	11 ③	12 ④	13 ①	14 ③	15 ③	16 ③
17 ⑤	18 ⑤	19 ①	20 ①	21 ③	22 ⑤	23 ③	24 ⑤
25 ④							

01 글자를 표기할 때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고, 후에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 적기가 혼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끊어 적기가 철저히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에서는 세로쓰기를 하였다. 문제 등에서 가로쓰기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가로쓰기에 익숙한 현실을 고려하여 변형한 것이다. ③ 〈세종어제훈민정음〉의 '너·겨(여겨), 니르·고·져(>이르고자)' 등을 보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세종어제훈민정음〉을 보면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ᄉᆞ뭇다, 젼차' 등의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02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스·믈(>스물)', 〈용비어천가〉의 '·므·른(>물은)' 등을 보면 원순 모음화(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ㆁ, ㅇ, ㅿ, ㅸ, ㆍ' 등의 음운이 쓰였다. ③ 'ㅶ, ㅉ' 등의 어두 자음군이 존재하였다. 어두 자음군은 후에 된소리로 바뀌었다. ④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 음의 고저(성조)를 표시하였다. ⑤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거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예 〈세종어제훈민정음〉의 '·웡·ᄒᆞ·야': 현대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은 '위하여'가 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

03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이 자음군인데, 이는 합용 병서(예 ㅺ, ㅉ)에 해당한다. 'ㅆ'은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각자 병서로, 자음군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다. 따라서 ':말ᄊᆞ·미'는 음절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음이 온 경우이다. 둘 이상의 자음과 관련된 중세 국어의 특징은 어두 자음군인데, 어두 자음군은 '음절'이 아니라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을 말한다. 예 ·ᄠᅳ·들, ·ᄲᅮ·메

오답 해설 ① 'ᄠᅳᆯ + 을'에서 첫 음절의 종성 'ㄷ'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 적고 있다. ④ 'ᄡᅳ- + -움 + 에(씀에)'에서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되고 있다.

04 ㉮는 원순 모음화에 해당한다. 원순 모음화는 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이다.

오답 해설 ① 두음 법칙 ③ 구개음화 ④ 'ㆆ'이 사라졌다.

05 어·린: 어리석은 → 나이가 적은(의미 이동)
:어엿·비: 불쌍히, 가엾게 → 어여쁘게, 예쁘게(의미 이동)

오답 해설 ㉠ 의미가 변한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사라진 말이다. ㉢ 놈: (보통) 사람 → '남자'를 낮춰 부르는 말(의미 축소) ㉣ 의미의 변화가 없는 말이다.

06 ⓑ는 현대어로는 '말이'에 해당하므로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는 '말씀 + 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므로 주격 조사로 사용된 것은 'ㅣ'가 아니라 '이'이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이',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ㅣ', 'ㅣ'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현대어로는 '우리나라(의)'에 해당하므로 'ㅅ'이 관형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대어로는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가 비교의 의미를 지닌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바'가 주격 조사와 결합한 것이므로 현대 국어라면 '바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ㅣ'가 결합하여 '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현대어로는 '이것을(이를)'에 해당하므로 'ᄅᆞᆯ'이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현대 국어에서는 방점과 함께 성조도 사라졌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의 '·ᄠᅳ·들'은 현대 국어의 '뜻을'로, 중세 국어의 '·ᄲᅮ·메'는 현대 국어의 '씀에(쓰는 데)'로 바뀌었다. ② 중세 국어에서는 '말ᄊᆞ미'와 같이 이어 적기가 일반적이었으나 현대 국어에 와서 '말씀이'와 같이 끊어 적기로 바뀌었다.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ㆆ, ㅸ, ㅇ, ㆍ'가 사용되었다. ④ 두음 법칙에 의해 중세 국어의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의 '이르고자'로, 중세 국어의 '너·겨'는 현대 국어의 '여겨'로 바뀌었다.

08 'ㅇㅇ'은 훈민정음 반포 당시에 쓰이던 옛 글자이다. 어두 자음군은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인데, '·ᄲᅥ'의 'ㅇㅇ'은 '단어의 첫머리'에 쓰인 것도,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을 쓴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두 자음군의 사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두 자음군이 쓰인 사례는 '·ᄠᅳ·들', '·ᄲᅮ·메' 등이다.

오답 해설 ① 받침으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만 쓰게 한 8종성법에 따라 'ㆁ'이 사용된 것이다. ⑤ 현대 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자음 'ㆆ'과 모음 'ㆍ'가 사용되었다.

09 ㉠은 비교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조사로, 현대 국어의 부사격 조사 '와/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⑤의 '과'로 '내 입장'과 '그녀의 생각'이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③·④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10 '놈'은 중세 국어에서는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인다.

11 '제'는 '저의'라는 의미로, '저'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하여 줄어든 말이다.

오답 해설 ① 'ᄠᅳᆯ + 이'를 이어 적기 한 것이다. ②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⑤ 현대 국어에는 없는 자음 'ㅸ'이 쓰였다.

12 ⓓ는 '많다'는 의미를 지닌 말로,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통하지 ② 까닭으로 ③ 말하고자 ⑤ 가엾게

13 '펴·디 → 펴지'는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바뀌었다(구개음화).

오답 해설 ② 사람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의미 축소 ③ ·웡·ᄒᆞ·야 → 위하여: 모음 조화 문란 ④ 너·겨 → 여겨: 두음 법칙 ⑤ ·스·믈 → 스물: 원순 모음화

14 ㉢에서 종성의 'ㄷ'과 'ㅅ'이 다르게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어엿·비'의 'ㅅ'은 'ㄷ'과 다르게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자음 'ㅿ'과 'ㅸ'이 존재했다고 했는데, ':수·ᄫᅵ'에서 오늘날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 'ㅸ'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어두 자음군은 각각의 자음이 모두 발음되었다고 했으므로, '·ᄠᅳ·들'의 'ㅄ'에서는 'ㅂ'과 'ㄷ'이 모두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에서 방점을 찍어 성조를 구분했다고 했으므로, 방점의 개수가 다른 ':히'와 '·혀'는 성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⑤ 연철 표기는 이어 적기를, 분철 표기는 끊어 적기를 의미한다. ㉤에서 연철 표기(이어 적기)를 했다고 했는데, '쓰- + -움 + 에'를 '뿜에'가 아닌 '·뿌·메'로 적었으므로, 연철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5 중세 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모음이 아닌 자음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이를 어두 자음군이라고 한다.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에서 모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수 있지만 둘 이상이 함께 올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ㆍ'와 같은 음운이 나타나 있다. ④ 중세 국어에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 ⑤ 중세 국어에서는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 자리에 옮겨 적는 이어 적기 방식이 쓰였다.

16 [A]를 참고할 때, '볍씨'의 '씨'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합성어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햅쌀'은 '햇'과 '쌀'이 결합한 합성어가 아니라, '해'와 '쌀'이 결합한 합성어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휩쓸고'는 '휘'와 '쓸다'가 결합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② ⓑ의 '접때'는 '저'와 '때'가 'ㅂ'을 가지고 있던 '뗴'의 시기에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A]에서 단일어에서는 모두 'ㅂ'이 탈락되었다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의 '싸리'는 단일어이므로 'ㅂ'이 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의 '좁쌀'은 '조'와 '쌀'이 'ㅂ'을 가지고 있던 때의 '뿔'과 결합되어 'ㅂ'이 덧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7 '살쾡이'는 '살ㅎ'과 '괭이'가 결합된 단어가 아니라 '삵 + 괭이(고양이)'가 결합한 말로, 일부 단어의 경우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따라 '살쾡이'가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의 '수탉'은 본래 'ㅎ'을 가지고 있던 '수ㅎ'과 '닭'이 결합된 단어이다. ② ⓑ의 '안팎'은 '안ㅎ'과 '밖'이 결합된 단어이다. ③ ⓒ의 '암캐'는 '암ㅎ'과 '개'가 결합된 단어이다. ④ '수캐'는 '수ㅎ'과 '개'가 결합된 단어이다.

18 '암'과 '고양이'가 결합한 단어인 '암고양이'는 'ㅎ' 소리가 덧나는 단어가 아니므로 표준어 규정 31항에 따라 '암고양이'라고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댑싸리', '멥쌀'은 'ㅂ' 소리가 덧나는 단어이고, '머리카락'과 '수캉아지'는 'ㅎ' 소리가 덧나는 단어이다.

19 ㉠의 '내ㅎ'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 뒤따르는 모음에 'ㅎ'을 이어 적으므로 '내히'가 되고, ㉡은 'ㄱ' 또는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는 'ㄱ'과 결합하여 'ㅋ', 'ㅌ'으로 나타나므로 '우콰'로 실현된다.

20 (가)는 발음의 측면에서, (나)는 문화적 측면에서, (다)는 국어 순화의 측면에서 국어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가)~(다)에서 표준어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다)에서 성공한 순화어의 예를 언급하고 있으나, 순화해야 할 어휘의 요건은 드러나지 않으며, (가)와 (나)에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④ (다)에서 모국어 화자에게 수용되는 외래어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으나 (가), (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다)에서 표준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21 (나)를 통해 반려견이 기존의 애완견을 대체하는 표준어가 된 것이 아니라 표준어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를 통해 '효과'를 [효:과]로 발음하는 것은 일반인의 언어생활과 괴리가 있어 국립국어원에서 [효:꽈]로도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② '효과'는 기존에는 [효:과]로 발음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의 표준 발음에서 된소리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다)의 성공한 순화어의 예를 통해 외래어는 우리말로 다듬어진 순화어로 정착되어 널리 쓰이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를 통해 성공한 순화어는 형태가 짧고 의미도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형태와 의미 면에서 공통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가)에서 '효과'를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어 추가되고, (나)와 같이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언중의 인정을 받아 표준어로 추가되듯이, 대중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가격이 착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여 널리 일반화되면 '착하다'에 '저렴하다'는 의미가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가격이 저렴하다'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국어의 의미 전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다로만 표현하는 것이 국어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가)~(다)를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② 기존의 표현인 '저렴하다'에 거부감을 느껴 '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으며, (가)~(다)의 내용과도 무관하다. ③ '반려견'은 문화적 현상으로 생긴 단어로, '착하다'를 '가격'과 연관 지어 '가격'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려는 물질 중심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다)를 통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경우라면 의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보기〉에서 '착하다'는 '저렴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현대 국어의 '살코기'는 중세 국어의 'ᄉᆞᆯㅎ'과 '고기'가 결합하면서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자료에 따르면, 'ㅎ 종성 체언'은 단독형으로 쓰일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살코기'의 '살'은 중세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경우 'ᄉᆞᆯ'의 형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안팎'은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안ㅎ'과 '밖'이 결합하면서 '안ㅎ'의 흔적이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 ② '수캐'는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수ㅎ'와 '개'가 결합하면서, '수ㅎ'의 'ㅎ'이 '개'의 'ㄱ'과 어울려 'ㅋ'이 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④ 중세 국어에서 '나라ㅎ'는 'ㅎ 종성 체언'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할 경우 'ㅎ'을 이어 적어 '나라히'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 ⑤ '암평아리'는 중세 국어에서 'ㅎ 종성 체언'인 '암ㅎ'과 '병아리'가 결합하면서 'ㅎ 종성 체언'의 흔적이 남은 단어이다.

24 '비대면 시험'은 '랜선 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말이다.

오답 해설 ② '륜거'와 '화차'는 현재 쓰이지 않는 말이다.

25 〈보기 1〉에서는 백성들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즉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보기 2〉의 (가)는 외국어를 남용하여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기는 상황, (나)는 무리들끼리만 통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다른 세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보기 1〉의 글쓴이라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가)와만 관련된다. ②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 2〉의 상황에 대한 해법이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 1〉에 드러난 태도로 볼 수 없으며, 〈보기 2〉의 (가)와만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잘못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64~169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④	06 ⑤	07 ②	08 ①
09 ④	10 ⑤	11 ④	12 ⑤	13 ③	14 ①	15 ③	16 ④
17 ④	18 ①	19 ⑤	20 ②	21 ④	22 ④		

01 ‘펴·디’가 ‘펴지’로 표기되지 않은 것에서, ‘ㅣ’ 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변하는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쁘·들, ·뿌·메’ 등에서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나란히 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뿡·셩宗종御·엉製·졩’ 등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한자음을 중국 발음에 가깝게 표기함. 초·중·종성을 모두 갖추어 표기함.)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어엿·비’ 등에서 방점으로 성조를 표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⑤ ‘ᄉᆞᄆᆞᆺ·디’에서 8종성법에 있는 받침 ‘ㅅ’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8종성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뿌·메’ 등에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2 ‘·뿌·메’는 ‘쓰– + –움 + 에’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움’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쓰–’는 ‘쓰다’의 어간인데, ‘현대어 풀이’로 볼 때 ‘쓰다’는 ‘사용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미’는 ‘말씀(명사) + 이(주격 조사)’를 이어 적기 한 것이고, ‘·홇·배’의 ‘배’는 ‘바(의존 명사) + ㅣ(주격 조사)’를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의 ‘하다’는 현대어 국어의 ‘많다’에 대응하며, 그 품사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③ 방점은 강약이 아니라 소리의 고저, 즉 성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롤’과 ‘·새·로’에서처럼 글자 왼편에 한 점을 찍은 것은 거성(높은 소리)을 의미한다. ④ ‘:히·뼈’와 ‘便뼌安한·킈ᄒᆞ·고·져’는 각각 현대어 ‘하여금’과 ‘편하게 하고자’에 대응한다. 이것들은 모두 피동(행위를 당함.) 표현이 아니라 사동(행위를 시킴.) 표현에 해당한다.

03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정신으로 볼 수 있다. ‘어·린百·빅姓·셩·이니르·고·져·홇·배이·셔·도’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는 뜻으로, 평등 정신과는 관련이 없다.

04 ㉢은 ‘뜯 + 을’을 이어 적은 것이다. ‘을’이 현대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격 조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목적격 조사가 나타난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단어 첫머리의 ‘ㄴ’이 ‘ㅣ’ 앞에서 탈락한 것이므로 두음 법칙이 적용된 예이다. ②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자음 ‘ㆆ’이 소실된 예이다. ④ 중세 국어의 ‘·스·믈’은 입술소리 ‘ㅁ, ㅂ, ㅍ’ 뒤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 현대 국어에서 ‘스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⑤ 중세 국어에서 모음 조화에 따라 명사형 어미가 ‘–옴’과 ‘–움’으로 나뉘어 사용되던 것이 현대 국어에서 ‘–(으)ㅁ’으로 통일된 것이다.

05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는 말이다. 현대 국어에서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하다’는 중세 국어 ‘ᄒᆞ다’와 관련된다.

06 ‘·쁘·들(뜻을)’과 ‘·노·미(놈이)’는 앞 음절의 종성을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서 쓰는 이어 적기(연철)가 사용된 표기로,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어·린’은 중세 국어에서 ‘어리석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하·니·라’는 ‘많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젼·ᄎᆞ’는 ‘까닭’의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현대 국어로 오면서 사라졌다. ③ ‘ㆆ’는 현대 국어로 오면서 소실되었다. ④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이 없는 체언 뒤에는 주격 조사 ‘가’를 사용하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해당 조건에서 ‘가’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글의 ‘배(바 + ㅣ)’에서는 주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다.

07 ‘아·니:뭘·씨’에서 ‘아’는 점이 없으므로 낮은 소리, ‘·니’와 ‘·씨’는 점이 한 개이므로 높은 소리, ‘:뭘’은 점이 두 개이므로 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는 ‘낮은 소리–높은 소리–처음은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높은 소리’로 소리의 높낮이를 ②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08 ㉠은 현대어로는 ‘중국과’에 해당하므로, ‘에’가 ‘과’와 같은 역할, 즉 비교를 의미하는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말이 장소임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② ‘–ㄹ씨’는 ‘–므로’에 해당하는데, ‘–므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므로, ‘–ㄹ씨’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한다. ③ ‘–ㄴ’은 ‘–은’에 해당하는데, ‘–은’은 앞말이 관형어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이므로, ‘–ㄴ’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함을 표시한다. ④ ‘ㅣ’는 ‘가’에 해당하는데, ‘가’는 주격 조사이므로, ‘ㅣ’는 앞말이 문장의 주어임을 표시한다. ⑤ ‘을’은 현대어에서도 ‘을’에 해당하는데, ‘을’은 목적격 조사이므로,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한다.

09 ‘:말ᄊᆞ·미’, ‘·쁘·들’ 등에서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어 적기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쁘·들’, ‘·뿌·메’ 등에서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중세 국어는 세로쓰기를 하였으며, 가로쓰기가 함께 사용되지 않았다. ③ 방점은 음의 높낮이를 표시한 것이다. ⑤ 받침으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8개의 자음만을 표기하였다.

10 현대 국어에서는 음의 높낮이를 의미하는 성조도 사라졌다.

오답 해설 ① ‘·스·믈’이 원순 모음화에 의해 ‘스물’이 된 것을 통해 입술소리 아래에 쓰였던 ‘ㅡ’가 ‘ㅜ’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쁘·들’은 현대 국어의 ‘뜻을’로, ‘·뿌·메’는 현대 국어의 ‘씀에(쓰는 데)’로 바뀐 것에서 어두 자음군이 된소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ㆆ, ㅸ, ㆁ, ·’가 사용되었다. ④ 두음 법칙에 의해 ‘니르·고·져’는 현대 국어의 ‘이르고자’로, 중세 국어의 ‘너·겨’는 현대 국어의 ‘여겨’로 바뀌었다.

11 ‘·내’는 ‘나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듕·귁·에’는 ‘中듕國귁 + 에’로, 비교 부사격 조사인 ‘에’가 사용된 것이다. ② ‘百·빅姓·셩·이’는 ‘빅성 + 이’로, 주격 조사 ‘이’가 사용된 것이다. ③ ‘·배’는 ‘바 + ㅣ’로,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 것이다. ⑤ ‘·뿌·메’는 ‘쓰– + –움 + 에’로, 명사형 어미 ‘움’이 사용된 것이다.

12 ‘ㅸ’은 순경음 비읍인데, 이는 ‘ㅂ’과 엄연히 다른 음운으로 존재했다.

오답 해설 ① ㉠은 ‘나라의’라는 뜻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현대 국어의 ‘의’라는 관형격 조사 대신 ‘ㅅ’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은 ‘:말ᄊᆞᆷ’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말ᄊᆞᆷ·이’로 끊어 적지 않고 이어 적고 있다. ③ ㉢은 현대 국어의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의미이다. ④ ㉣은 ‘바 + ㅣ’로, 현대 국어에서는 ‘바가’로 풀이되므로,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3 ‘·쁘·들’, ‘·뿌·메’ 등에서 초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ㄱ). 그리고 ‘:말ᄊᆞ·미’의 ‘ㆍ’, ‘홇’의 ‘ㆆ’ 등과 같이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ㄴ). 또한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을 글자 왼쪽에 표시하여 성조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ㄹ).

오답 해설 ㄷ. 중세 국어에서는 양성 모음과 양성 모음이 어울리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과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14 '中듕國귁에'의 '에'는 '중국과 달라'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비교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아니홀씨'는 '아니하여서', '아니하므로'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ㄹ씨'는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과 인과 관계로 연결됨을 표시하는 어미임을 알 수 있다. ③ '어린 ᄇᆡᆨ셩이'의 수식 형태를 고려할 때, '어린'은 'ᄇᆡᆨ셩'을 수식하는데, 이때 '-ㄴ'은 앞말이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는 관형형 어미이다. ④ '홇배'의 '배'의 'ㅣ'는 '바가'로 해석되므로, 'ㅣ'는 주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⑤ '쁘들'의 '을'은 앞말이 문장의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목적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15 ㉰의 경우 '휩쓸다'는 합성어가 아니라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지닌 접두사 '휘-'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단어 자체에 'ㅂ' 소리를 가진 단일어라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의 경우, '조'와 'ᄯᆞᆯ'이 결합한 합성어로, 동일한 예로 '해 + ᄯᆞᆯ'이 결합한 '햅쌀'을 들 수 있다. ② ㉯의 경우, '이'와 '빼'가 결합한 합성어로, 동일한 예로 '저 + 빼'가 결합한 '접때'를 들 수 있다. ④ ㉱의 경우, '안ㅎ'과 '밖'이 결합하여 '안팎'이라는 합성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경우, '수'와 '고양이'가 결합해도 ㉳와 같이 거센소리로 축약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에서 'ㅎ'이 탈락된 시기에 결합한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16 ⓐ는 체언에 'ㅎ'이 나타나는 어휘를 가리키므로, '나라ㅎ + ᄋᆞᆯ'이 결합한 '나라ᄒᆞᆯ'이 ⓐ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사ᄅᆞᆷ + ᄋᆞᆯ'로 '사ᄅᆞᆷ'에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은 체언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은 체언이 아니므로 동일한 성격을 지닌 어휘로 보기 어렵다. ⑤ ⓓ은 '텬하 + ᄅᆞᆯ'로 '텬하'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17 (나)에는 '발음이', '불만이'와 같이 받침이 있는 체언 아래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고 있다. (가)에서도 '말ᄊᆞᆷ + 이', 'ᄇᆡᆨ셩 + 이'와 같이 받침이 있는 체언 아래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가)에는 (나)에 사용되지 않는 'ㆍ', 'ㆆ', 'ㅸ' 등의 음운이 나타난다. ② (가)에는 관형격 조사 'ㅅ'이, (나)에는 '일반인의'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나타나므로, (가)에는 (나)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는 (가)와 달리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⑤ (나)에는 '된소리를'에서 목적격 조사 '를'이 (가)에서는 '이ᄅᆞᆯ'에서 목적격 조사 'ᄅᆞᆯ'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가)와 (나)에는 받침이 없는 체언이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형태의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나)는 표준 발음이 일반인의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보기〉의 '짜장면', '맛있다'의 발음은 표준어나 표준 발음을 정하는 데는 실제 대중들의 언어생활이 반영된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서 표준 발음이나 표준어 규정은 대중들의 요구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대중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많이 사용하는 발음이 표준 발음을 대체한 사례가 아니라 표준 발음으로 추가된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④ (나)에서는 단어들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⑤ (나)에서 외래어를 순화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경우 표준 발음과 동떨어진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19 (나)를 통해 문화적 변화가 언어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를 통해 언어 변화는 공인 기관의 인식이 아니라 대중들이 실제 언어생활이 동인임을 알 수 있다. ② 모국어 화자가 순화어를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은 (나)~(라)에 제시된 내용이 아니다. ③ 표준 발음이 대중의 인식과 동떨어져 새롭게 표준 발음이 인정되는 예시가 제시되고 있지만, 발음의 변화가 사회 변화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 ④ 외래어를 반드시 순화어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 (라)에서 언급한 성공한 순화어의 요건으로 볼 때, 외래어가 순화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표준어의 지위를 얻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언어 직관에 맞는 단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외래어가 순화어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국어 화자에게 직관적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언어 직관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③ '커플룩', '와이파이', '파파라치'의 순화어가 정착하지 못한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순화어가 외래어보다 길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모국어 화자가 순화어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순화어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므로, '내비게이션'이 순화어로 정착하지 못한 것은 순화어인 '길도우미'에 대해 모국어 화자가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⑤ 우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수취인에게 무더기로 발송된 광고성 메일인 '스팸메일'의 순화어가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형식적인 측면이나 외래어의 순화어인 '쓰레기편지'의 의미가 딱 맞아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21 ㉠은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언어생활에 불만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놈'이 '사람'의 의미로 쓰이다가 남자를 낮잡아 보는 말로 의미가 변화한 것은 원래의 의미에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기보다 '놈'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므로 적절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방점은 성조 언어가 아닌 국어에 불필요한 요소로서 일반인의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점이 사라졌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② 어두 자음군은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발음하는 것이므로, 어두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을 발음하는 데 일반인들이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다. ③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 형식 종성을 붙이는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형식 종성을 붙이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을 수 있을 것이다. ⑤ 'ㅸ', 'ㆆ', 'ㆍ'와 같은 음운이 사라진 것은 음운으로서의 기능이나 존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일반인들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느껴 사라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2 성공적인 순화어의 공통점을 볼 때, 음절 수가 순화어의 성공적인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해설 ① 〈보기〉의 대화와 같이 순화어를 만들려면 성공한 순화어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공통적인 요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② 〈보기〉의 남학생이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는 인터넷 창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공한 순화어는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③ (라)를 고려할 때 성공적인 순화어는 모국어 화자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모국어 화자가 거부감을 가지게 된다면 순화어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다. ⑤ 성공적인 순화어의 요건을 고려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화어가 되기 위해서는 외래어의 의미를 잘 담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70~171쪽

01 (1) 사용하였다 / 쁘들 / 뿌메 (2) 나타나지 않았다 / 스믈 (3) 일어나지 않았다 / 펴디 (4) 적용되지 않았다 / 니르고져, 너겨 (5) 지켜졌다 / 윙ᄒᆞ야, 뿌메 **02** (1) ㆁ, ㆆ, ㅸ, ㆍ (2) ᄉᆞᄆᆞᆺ디, 젼ᄎᆞ, 시러, 하니라 **03** ㉠은 '중국과'라는 의미로, '에'는 앞말이 비교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04** ㉡의 의미는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변하므로 의미 이동에 해당하고, ㉢의 의미는 '사람'에서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변하므로 의미 축소에 해당한다. **05** ㉠: 조 + ᄯᆞᆯ, ㉡: 휘 + 쁠다, ㉢: 수ㅎ + 닭, ㉣: 안ㅎ + 밖, ㉤: 암ㅎ + 병아리

01 (1) 어두 자음군: 단어의 첫머리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자음이 오는 것, (2) 원순 모음화: 순음 'ㅁ, ㅂ, ㅍ'의 영향으로 'ㅡ'가

'ㅜ'로 바뀌는 것, (3) 구개음화: 모음 'ㅣ'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것, (4) 두음 법칙: 단어 첫머리의 'ㄴ'이 'ㅣ' 앞에서 탈락하는 것, (5) 모음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것

02 (2) ᄉᆞᄆᆞᆺ디: 통하지, 젼ᄎᆞ: 까닭, 시러: 능히, 하니라: 많다

03 中듕國·귁·에: 중국과

04 어리다: 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 놈: 사람 →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72~173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5 모음 조화가 대체로 잘 지켜졌다.

08 중세 국어의 명사형 어미로는 '-옴/움'이 사용되었다.

09 훈민정음 창제 직후가 아니라 후기 중세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는 시기 동안 사라졌다. 'ㆆ'은 후기 중세 국어, 'ㅇ, ㅿ'은 근대 국어, 'ㆍ'는 현대 국어 시기에 완전히 소실되었다.

11 〈용비어천가〉에서도 방점을 사용하여 성조를 표시하였다.

12 〈세종어제훈민정음〉은 한자음을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따랐다.

14 실제의 쓰임에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

(2) 올바른 표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76~181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③	10 ②	11 ⑤	12 ④	13 ①	14 ③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②	20 ⑤	21 ③	22 ⑤	23 ⑤	24 ①
25 ⑤	26 ②						

01 '길이'는 소리대로 적으면 '기리'가 되지만 '길이'로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므로 ㉡의 예에 해당한다. '앞날'도 소리대로 적으면 '암날'이 되지만 '앞날'로 적었으므로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같다[같따], ② 끝나다[끈나다], ③ 샅샅이[삳싸치], ④ 꽃다발[꼳따발]은 모두 소리대로가 아니라 어법에 맞게 표기한 것이다.

02 '산길'은 [산낄]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산길'로 적은 것이다. '발걸음'도 [발꺼름]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발걸음'으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은 소리대로 적으면 '너머'가 되지만 '넘- + -어'인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원래의 형태를 고정하여 적은 것이다. ③ ㉠은 명사이고 ㉢은 동사 '넘다'의 활용형이다. 모두 [너머]로 소리 나므로 ㉢을 소리대로 적으면 둘을 구별하기 어렵게 된다. ⑤ '있다'는 [읻따]로 발음되므로 소리대로 적는다면 표기가 달라진다.

03 어법에 맞지 않는 표기 '낳아요', '문안해요' 때문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한 것이다. '낳아요'는 '나아요'로, '문안해요'는 '무난해요'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면 오히려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를 어법에 맞지 않게 표기했기 때문이다. ② 외래어 '니트, 스웨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의미 전달에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니다. ③ 띄어쓰기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 ⑤ '낫다'는 '나아요'로 활용한다. 문맥으로 볼 때 '낫다'의 활용형인 '나아요'로 표기해야 한다. 한편 '문안 인사'는 어법에 맞으므로 고쳐 쓸 필요가 없다. 고쳐 써야 하는 것은 '문안해요(→ 무난해요)'이다.

04 ㉠은 연음 현상(앞 음절의 끝 자음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어져 소리 나는 현상) 때문에 [드러서다]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높이다'도 연음 현상 때문에 [노피다]로 소리 나므로 '노피다'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높히다'는, '높-'에 사동 접미사 '-이-'를 붙여야 하는 것을 '-히-'로 잘못 붙인 다음 이를 형태를 밝혀 적은 것이므로 ㉠과 같은 예로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③·④ ㉡은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그러치]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얽혀'도 거센소리되기에 의해 [얼켜]로 소리 나므로 이를 '얼켜'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에 해당한다. ⑤ ㉢은 구개음화에 의해 [해도지]로 소리 나는 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금붙이'도 구개음화에 의해 [금부치]로 소리 나므로 이를 '금부치'로 적었다면 ㉢과 같은 예에 해당한다.

05 '반듯이'는 '반듯하게'라는 뜻이고, '반드시'는 '꼭, 틀림없이'라는 뜻이다.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반듯이'는 '반듯하다'의 원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어근 '반듯-'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아 원래 형태

를 살려 적은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는 '반듯하다'의 어근 '반듯–'과 의미상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얼음'은 어근 '얼–'에 접미사 '–음'이 결합한 말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이렇게 적으면 의미 파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③ '어름'과 '얼음'은 모두 [어름]으로 소리 나므로 발음만으로는 의미를 구별할 수 없다. ④ '반듯이'는 어근 '반듯–'에 '–이'가 붙은 것으로, [반드시]로 소리 나지만, 어근 '반듯–'의 본뜻이 유지되므로, 이를 파악하기 쉽도록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Plus 〈참고〉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미닫이, 걸음, 믿음, 같이, 익히

06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개음화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견디다[견디다]'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맏이', '끝이'는 소리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맏이'로 표기한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③ '묻히다'는 '묻'의 'ㄷ'과 '히'의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되고, 'ㅌ'이 'ㅣ' 모음을 만나 [무치다]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므로 ㉮에 '묻히다'라는 어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끝'에 조사가 결합하여 [끄치], [끄틀]과 같이 소리나지만 일관되게 '끝'으로 적는 것이 의미 파악에 효과적이다.

07 '하늘'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다.

오답 해설 나머지는 모두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았다. ① 빛[빋], ② 옷[옫], ③ 잎[입], ④ 바깥[바깓]

08 '법석'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법썩]으로 소리 나지만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법석'이 맞는 표기이다.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도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잔뜩'으로 표기한다. ③·④ 각각 '눈 + 곱', '발 + 바닥'으로 이루어진 복합어(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눈곱', '발바닥'으로 표기한다. '눈곱'이 [눈꼽], '발바닥'이 [발빠닥]으로 소리 나는 것은 사잇소리 현상 때문인데 이 경우의 사잇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마음 + 껏'으로, '한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가 아니다. 여기서 '껏'은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로서 표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된소리인 접사이다.

09 된소리되기에 따라 음절의 끝소리 'ㄱ, ㅂ' 뒤에서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바뀐다. '몹시'가 [몹씨]로 소리 나는 것은 된소리되기에 따른 것으로, 된소리되기라는 '뚜렷한 까닭'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몹시'로 표기한다.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②·⑤ 뚜렷한 까닭 없이, 즉 두 모음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④ 뚜렷한 까닭 없이, 즉 받침 'ㄴ, ㄹ, ㅁ, ㅇ'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한다.

10 '살짝'은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고, 그 된소리가 'ㄹ' 받침 뒤에서 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은 '살짝'이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해설 ① '거꾸로'는 모음 'ㅓ'와 'ㅜ' 사이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므로 제5항–1에 따라 '거꾸로'로 적은 것이다. ③ '깍뚜기'는 'ㄱ'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5항–3에 따라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④ '몽땅'은 'ㅇ'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제5항–2에 따라 '몽땅'으로 적어야 한다. ⑤ '싹둑'은 제5항–3에 따라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면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은 것이다.

11 '여자(女子), 요소(要素), 유대(紐帶), 익명(匿名)'은 모두 두음 법칙에 맞게 표기된 것이나, '년도(年度)'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연도(年度)'로 적어야 한다.

12 ⓑ는 어간 '막–'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인 '–암'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인 명사로 바뀐 것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에 따라 '마감'으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는 명사 '집'에 '–이' 이외의 모음인 '–웅'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20항 [붙임](㉢)에 따라 '지붕'으로 적은 것이다.

13 '배 + 길 → 뱃길[배낄/밷낄]'은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이고, '비 + 물 → 빗물[빈물]'은 뒷말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② 터 + 세(勢) → 텃세[터쎄/턷쎄](㉠) / 차 + 잔(盞) → 찻잔[차짠/찯짠](㉠) ③ 후(後) + 날 → 훗날[훈날](㉡) / 나무 + 가지 → 나뭇가지[나무까지/나묻까지](㉠) ④ 예사(例事) + 일 → 예삿일[예산닐]–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 제사(祭祀) + 날 → 제삿날[제산날](㉡) ⑤ 위 + 마을 → 윗마을[윈마을](㉡) / 아래 + 집 → 아랫집[아래찝/아랟찝](㉠)

14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르면 두 음절로 된 한자어 중 뒷말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을 수 있는 것은 '곳간(庫間)', '찻간(車間)', '툇간(退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횟수(回數)' 등 여섯 개 밖에 없다. '초점(焦點)'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꼭짓점[꼭찌쩜/꼭찓쩜]: 순우리말 '꼭지'와 한자어 '점(點)'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② 수돗물[수돈물]: 한자어 '수도(水道)'와 순우리말 '물'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의 첫소리 'ㄷ'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난다. ④ 콧구멍[콛꾸멍/코꾸멍]: 순우리말 '코'과 '구멍'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⑤ 순댓국[순대꾹/순댇꾹]: 순우리말 '순대'와 '국'이 결합한 합성어로, 뒷말이 된소리로 소리 난다.

15 '갈비뼈'는 순우리말 '갈비'와 '뼈'가 만나 만들어진 합성어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 아니라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부터 된소리인 경우이다. 따라서 제30항–1–(1)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고 '갈비뼈'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③ 제30항–2–(1) ④ 제30항–2–(2) ⑤ 제30항–1–(3)

16 '고래 + 기름'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이고 앞말 '고래'는 모음으로 끝난다. 그러나 뒷말 '기름'은 [기름]으로 발음되며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30항–1–(1)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받치어 '고랫기름'으로 적지 않고 '고래기름'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바다 + 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바다'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물'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바단물]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1–(2)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바닷물'로 적는다. ③ '뒤 + 일'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뒤'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일'의 첫소리 'ㅣ'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 [뒨닐]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1–(3)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뒷일'로 적는다. ④ '등교 + 길'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등교'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길'의 첫소리는 [낄]로 소리 난다. 따라

서 제30항-2-(1)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등굣길'로 적는다. ⑤ '양치 + 물'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앞말 '양치'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 '물'의 첫소리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 [양친물]로 소리 난다. 따라서 제30항-2-(2)에 따라 사이시옷을 받치어 '양칫물'로 적는다.

17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막내 + 동생', 곧 '막냇동생[망내똥생/망낻똥생]'이 이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에는 결합된 두 명사 모두 순우리말이 아닌 것이 들어가야 한다. '장미(薔薇) + 과(科)', 곧 '장미과[장미꽈]'가 이에 해당한다. ②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지만 앞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속 + 병(病)', 곧 '속병[속뼝]'이 이에 해당한다. ④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시내 + 물', 곧 '시냇물[시낸물]'이 이에 해당한다. ⑤ ㉤에는 결합된 두 명사 중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 '나무 + 잎', 곧 '나뭇잎[나문닙]'이 이에 해당한다.

18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을 리 없다.'에서 '리'는 '까닭', '이치'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못 본지 → 못 본 지: '지'가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 한달 → 한 달: '달'이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독서야 말로 → 독서야말로: '야말로'가 강조하여 확인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 지름길 이다 → 지름길이다: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바지 뿐만 아니라 → 바지뿐만 아니라: '뿐'과 '만'이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여기에서 부터 → 여기에서부터: '에서'와 '부터'가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할거야 → 할 거야: '거'가 '것'을 구어적으로 표현한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19 '다민이는∨오빠에게∨연필∨두∨자루를∨주었다.'에서 '자루'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인 '두'와 띄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여기까지∨이다 → 여기까지이다: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② 출전한바 → 출전한∨바: '바'는 '출전한'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④ 열세살인데 → 열세∨살인데: '살'은 단위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올수∨밖에 → 올∨수밖에: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쓰고, '밖에'는 '그것 말고', '그것 이외에'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20 '당신만을'에서 '만'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삼십∨분∨만에'에서 '분'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모두 띄어 쓴다.

오답 해설 ① '앞말에 준하거나 그 내용이 뜻하는 바와 같음'을 나타내는 조사 '대로'는 앞말에 붙여 쓰고(마음∨대로 → 마음대로), '어떤 상태나 행동이 나타나는 그 즉시'를 뜻하는 의존 명사 '대로'는 띄어 쓴다(트는대로 → 트는∨대로). ② '그렇게 여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시'는 앞말에 붙여 쓰고(중요시한다),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날 때나 경우'를 뜻하는 의존 명사 '시'는 띄어 쓴다(초과시 → 초과∨시). ③ '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같이'는 앞말에 붙여 쓰고(눈∨같이 → 눈같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를 뜻하는 부사 '같이'는 띄어 쓴다(친구와∨같이). ④ '뒤 절에서 일어나는 행동의 원인이나 이유 등을 제시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ㄴ데'는 앞말에 붙여 쓰고(추운∨데 → 추운데),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는 띄어 쓴다(읽는데 → 읽는∨데).

21 '이해해줄'과 '이해해 줄'은 한글 맞춤법 제47항(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의미에는 차이가 없다.

오답 해설 ① 못하다: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 못 하다: 행동이나 작용을 할 수 없다. ② 작은 형: 키가 작은 형 / 작은형: 둘 이상의 형 가운데 맏형이 아닌 형 ④ 안 되다: 어떤 행위나 일이 일어나거나 행하여지지 않다. / 안되다: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⑤ 큰집: 집안의 맏이가 사는 집 / 큰 집: 크기가 큰 집

22 ㉠의 '봉사 보다는'에서 '보다'는 명사 '봉사'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의 '너 밖에'에서 '밖에'도 대명사 '너'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의 '때 만큼은'에서 '만큼' 역시 명사 '때' 뒤에 붙여 써야 하는 조사이다.

오답 해설 ㉢의 '도울 뿐이었는데'에서 '뿐'은 용언의 관형사형 '도울'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3 ㉡은 '걷- + -히- + -고'를 어법에 맞게 적은 '걷히고'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에는 '걷히고'가 들어가야 한다. '걷히고'는 거센소리되기에 따라 [거티고]로, 다시 구개음화에 따라 [거치고]로 소리 나므로 ⓔ에는 '거센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② ㉠은 '담그- + -았- + -다'이므로 '담갔다'가 올바른 표기이고, [담갇따]로 발음되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나타난다. 따라서 ⓐ에는 '담갔다'가, ⓑ에는 '된소리되기'가 들어가야 한다. ③ ㉢은 된소리되기에 따라 [깍뚜기]로 발음되지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깍두기'가 올바른 표기이다. 따라서 ⓒ에는 '깍뚜기'가 들어가야 한다.

24 '간편하게'를 '간편케'로 적는 것은 제40항 ㉮의 예이다. 이에 따르면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가 되어야 한다. '아뭏든'이 아니라 '아무튼'으로 적는 것은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 '아무하-'라는 어간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은 ㉯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예이다.

오답 해설 ② '어떻든지'는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으로 제40항 ㉰에 따라 받침으로 적는다.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어떻게', '어떻고'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④ '생각하다 못해'를 '생각다 못해'로, '넉넉하지 않다'를 '넉넉지 않다'로 적는 것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제40항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거북하지'를 '거북지'로 적는 것과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은 것이다. ⑤ '하마터면'이나 '요컨대'는 소리대로 적는 부사이다.

25 [B]의 '생각하다'의 어간에 '-건대'가 붙은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생각건대'로 적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웬지'는 '왠지'의 잘못된 표기로,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의 뜻이므로 '왠지'로 고쳐 써야 한다. ② '무릎쓰고'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다.'의 뜻이므로 '무릅쓰다'의 활용형인 '무릅쓰고'로 고쳐 써야 한다. ③ '갖다 왔는데'는 '가다'의 과거형인 '갔다'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어떠케'는 소리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어떻다'에 부사형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어법에 맞게 '어떻게'로 고쳐 써야 한다. 이때, '어떻다'는 '어떠하다'의 준말로서 [어떠타]로 소리 나지만 '어떠타'로 적지 않고 '어떻다'로 적는다. 이는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어야 하지만,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른 것이다.

26 단위 명사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써야 하므로 '다섯 명밖에'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안 되다'는 '되다'를 부정하는 의미이므로 '안되다'가 아니라 '안∨되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추던지 말던지 → 추든지 말든지(선택의 의미이므로 '-든지'를 써

야 한다.) ③ 오랫만에 → 오랜만에('오래간만'의 준말이므로 '오랜만'으로 써야 한다. 한편 '동안'이 붙을 때는 '오랫동안'이 맞는 표기이며, '오랫만'이나 '오랜동안'은 잘못된 표기이다.) ④ 실업율 → 실업률('ㄴ'이 아닌 받침 뒤에 '률'이 온 경우이므로 '실업률'로 적어야 한다.), 세워야∨만합니다 → 세워야만∨합니다('만'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⑤ 금새 → 금세('금시에'의 준말이므로 '금세'로 써야 한다.), 어른으로써 → 어른으로서(자격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으로서'를 써야 한다.), 안스러운 → 안쓰러운('마음이 아프고 가엽다.'의 의미를 지닌 말은 '안쓰럽다'이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182~187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⑤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④	10 ①	11 ③	12 ①	13 ④	14 ⑤	15 ①	16 ③
17 ③	18 ③	19 ②	20 ③				

01 '너머'는 어원적으로 보면 '넘–'과 '–어'가 결합한 말이지만, 부사로 바뀐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19항). 따라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넘어'로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너머'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즉 표준어의 발음대로 적은 것이다. ② '좁히다'는 [조피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즉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좁히다'로 적은 것이다. ④ '넘어'는 [너머]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따라서 독서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표기로 볼 수 있다. ⑤ '읽지'와 '읽기'는 각각 [익찌], [일끼]로 소리 나지만 이렇게 쓸 경우 뜻이 얼른 파악되지 않으므로 형태소의 본 모양인 '읽–'을 밝혀 적은 것이다.

02 ㉣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합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옷'과 '소매'의 합성어인 '옷소매'는 [옫쏘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또한 '밥'과 '알'의 합성어인 '밥알'도 [바발]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얼–'과 '–음'이 결합한 파생어인 '얼음'은 [어름]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한편 '잎'과 '–아리'가 결합한 파생어인 '이파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② ㉡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합성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낮'과 '잠'의 합성어인 '낮잠'은 [낟짬]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한편 '말'과 '소'의 합성어인 '마소'는 'ㄹ' 탈락을 반영하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③ ㉢에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박'과 '–아지'가 결합한 파생어인 '바가지'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한편 '웃–'과 '–음'이 결합한 파생어인 '웃음'은 [우슴]으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⑤ ㉤에는 소리대로 적었지만 어법에도 맞는 파생어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사랑니'는 파생어가 아니라 '사랑'과 '이'의 합성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한편 '꿈'은 '꾸–'와 '–ㅁ'이 결합한 파생어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지만 어법에도 맞는 표기이다.

03 '희망', '하늬바람'은 각각 [히망], [하니바람]으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어법에 맞게 '–ㅢ'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과 관련된다.

오답 해설 ① '맏이', '굳이', '묻히다'는 각각 [마지], [구지], [무치다]로 소리 나지만, 어법에 맞게 그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떡이', '손이', '팔이'는 각각 [떠기], [소니], [파리]로 소리 나지만, 소리대로 적지 않고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즉 형태소의 모양을 밝혀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④ '목거리', '노름'은 어간의 뜻과 멀어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즉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⑤ '꽃잎', '헛웃음', '굶주리다'는 각각 [꼰닙], [허두슴], [굼주리다]로 소리 나지만, '꽃 + 잎', '헛 + 웃음', '굶– + 주리다'의 원형을 밝혀, 즉 어법에 맞도록 적어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한 것이다(ⓒ).

04 ㉤는 어근 '믿–'과 접미사 '–음'이 결합한 것으로, 접미사 '–음'이 비교적 여러 어근에 결합하고 결합한 후에도 어근의 본래 뜻이 유지되므로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제시문에서 예로 든 '웃음'과 같은 경우이다.

오답 해설 ① '쓰러진'은 앞말 '쓸–'의 본뜻이 유지되지 않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② '작은'은 어간 '작–'과 어미 '–은'이 결합한 것으로,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마중'은 접미사 '–웅'이 '맞–'과 같은 일부 어근에만 결합하므로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④ '끝이'는 체언 '끝'에 조사 '이'가 붙은 것으로 체언의 의미가 쉽게 파악되도록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05 '무엇부터 해야 할 지를 모르겠다.'에 쓰인 '할 지'는 어간 '하–'와 어미 '–(으)ㄹ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할지'로 써야 한다. '지'는 어미 '–(으)ㄹ지'의 일부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한번'이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강조하는 뜻', 즉 인심의 상태를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므로 붙여 쓴다. ② '만난 지'의 '지'는 시간의 경과, 즉 만난 때의 경과가 나타나므로 띄어 쓴다. ④ '한 번'이 만나는 횟수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⑤ '부지런한지'는 어미인 '–(으)ㄴ지'가 쓰인 것이므로 붙여 쓴다.

06 ㉢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으므로 된소리를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깍두기'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한 단어 안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두 모음 'ㅐ'와 'ㅡ' 사이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해쓱한'으로 써야 한다. ②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고, 비슷한 음절인 '짭', '짤'이 겹쳐 나므로 '짭짤한'으로 써야 한다. ④ ㉣은 'ㅁ' 받침 뒤에서 [듬뿍]과 같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듬뿍'으로 써야 한다. ⑤ ㉤은 한 단어 안의 첫음절 'ㅇ' 받침 뒤에서 까닭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몽땅'으로 써야 한다.

07 [씩씩]으로 소리 나는 말은 ㉡에 따라 '씩씩'으로 표기해야 한다. ㉡에 따르면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씩씩]은 'ㄱ' 받침 뒤에서 같은 음절의 된소리가 겹쳐 나는 경우이므로 '씩씩'과 같이 된소리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으뜸]으로 소리 나는 말은 모음 'ㅡ'와 'ㅡ'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으뜸'으로 표기해야 한다(ⓐ). ② [거꾸로]로 소리 나는 말은 모음 'ㅓ'와 'ㅜ' 사이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거꾸로'로 표기해야 한다(ⓐ). ③ [살짝]으로 소리 나는 말은 'ㄹ'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살짝'으로 표기해야 한다(ⓑ). ⑤ [낙찌]로 소리 나는 말은 'ㄱ'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고,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낙지'로 표기해야 한다.

08 (다)의 '뿐' 앞에 쓰인 '그것'이 체언(대명사)이므로 '뿐'은 조사이고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만큼' 앞에 쓰인 '할'이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 명사이고 앞말과 띄어 쓴다. ② '대로' 앞에 쓰인 '나'가 체언(대명사)이므로 '대로'는 조사이고 앞말에 붙여 쓴다. ④ '못해'가 '배가 고픔'의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형용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⑤ '못하구나'가 '예전'이라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못하다'가 하나의 단어(형용사)이므로 띄어 쓰지 않는다.

09 '로인정(老人亭) → 노인정'은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은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공념불(空念佛) → 공염불'은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는 '제10항–[붙임 2]'에 따른 표기이다. ㉠에 해당하는 예는 '남녀(男女)' 정도가 적절하다. ② '리임식(離任式) → 이임식'은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은 것이다. 따라서 '량심(良心) → 양심'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에는 '선량(善良)' 정도가 적절하다. ③ '제11항-다만'에 따르면 'ㄴ' 이외의 받침 뒤에 이어지는 '률'은 '률'로 표기해야 하므로 '변동률(變動率)'이 맞는 표기이다. 게다가 '변동률(變動率)'은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는 설명의 예시로 적절하지 않다. ㉢에는 '출산율' 정도가 적절하다. ⑤ '론리적(論理的) → 논리적'은 한자음 '로'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 두음 법칙에 따라 '노'로 적은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에는 '원론적(原論的)' 정도가 적절하다.

10 '안개꽃 밖에'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안개꽃밖에'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너만큼'에서 '만큼'은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너만큼'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제42항'도 아니고 정정할 필요도 없다. ③ '천 원짜리'에서 '원'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제43항에 따라 '천 원'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그리고 '-짜리'는 '그만한 수나 양을 가진 것' 또는 '그만한 가치를 가진 것'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원'에 붙여 써야 한다. '제43항'은 맞지만 정정할 필요는 없다. ④ '어찌할 줄'의 '줄'은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어찌할 줄'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제43항'도 아니고 정정할 필요도 없다. ⑤ '7 연구실'의 '연구실'은 숫자 '7'과 어울리므로 제43항 '다만'에 따라 '7연구실'과 같이 붙여 쓸 수도 있다. '제46항'도 아니고 굳이 정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11 '콧날'은 뒷말의 첫소리 'ㄴ'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다.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의 예로는 '나뭇잎[나문닙]'이 있다.

오답 해설 ① '아랫마을[아랜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다. ② '고깃국[고기꾹/고긷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해장국[해장꾹]'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아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④ '우윳빛'은 '한자어 + 고유어'라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오렌지빛'은 '외래어 + 고유어'라서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⑤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었지만, '모래땅'은 뒷말의 첫소리가 원래부터 된소리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다.

12 '해 + 살'은 명사 '해'와 명사 '살[2]'가 결합한 합성어이고 [해쌀/핻쌀]로 소리 나므로 '햇살'(㉠)과 같이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그러나 '해 + 님'은 명사 '해'와 접사 '-님[4]'이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해님'(㉡)으로 쓴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사(㉢) '-님'이 결합한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13 '장마 + 비'는 앞말 '장마'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1단계), '고유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장마삐/장맏삐]와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3-1단계) '장맛비'라고 쓴다.

오답 해설 ① '개- + 살구'는 '개-'가 접두사인 파생어이므로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② '총무 + 과'는 앞말 '총무'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지만, '한자어 + 한자어' 구성이므로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만두 + 국'은 앞말 '만두'가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1단계), '한자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만둗꾹/만두꾹]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소리 나므로(3-1단계) '만둣국'이라고 표기한다. ⑤ '허드레 + 일'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합성어이고, '고유어 + 고유어' 구성이며(2단계), [허드렌닐]과 같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므로(3-3단계) '허드렛일'이라고 표기한다.

14 '기여할수'의 '수'는 앞에 수식어가 없으면 쓸 수 없는 의존 명사로, 앞말인 '기여할'과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각종'과 '토론'은 각각 한 단어이므로 각 단어를 띄어 쓰는 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② '및'은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말이므로 적절하게 띄어 쓴 것이다. ③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④ 수식어 '알리는'과 의존 명사 '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띄어 써야 한다.

15 '내디디다'의 준말 '내딛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내디뎠다(내디디- + -었- + -다)'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②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ㄴ'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서투른(○), 서툰(○) ③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면서'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머무르면서(○), 머물면서(○) ④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지' 앞이므로 본말과 준말의 활용형 모두 쓸 수 있다. 서두르지(○), 서둘지(○) 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도' 앞이므로 본말의 활용형만 써야 한다. 건드려도(○), 건들어도(×)

16 '벌어지다'는 앞말 '벌다(틈이 나서 사이가 뜨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어서 그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인 반면, ㉯의 '사라지다'는 본뜻에서 멀어져 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도록 한 것은,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② '고개를 넘어 가다'에서 '넘어'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은 것으로, ㉮의 '먹어'와 같은 규정(제15항)이 적용된 것이다. ④ '들어가다'는 '들다(밖에서 속이나 안으로 향해 가거나 오거나 하다.)'와 '가다'가 결합한 것으로, 앞말인 '들다'의 의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것이오?'에 쓰인 '-오'는 의문형 종결 어미이고, ㉰의 '오시오'에 쓰인 '-오'는 명령형 종결 어미이다. 모두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적은 것이다.

17 '만둣국'은 '만두(한자어: 饅頭) + 국(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만둗작 / 만두꾹]으로 발음되므로 ㉱에, '뒷마당'은 '뒤(순우리말) + 마당(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뒨:마당]으로 소리 나므로 ㉯에, '깻잎'은 '깨(순우리말) + 잎(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깬닙]으로 소리 나므로 ㉰에 해당한다.

18 번번이'는 '이'로만 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에, '정확히'는 '히'로만 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에, '당당히'는 '이, 히'로 나는 것이므로 ㉰에 해당한다.

Plus 〈참고〉

한글 맞춤법 제51항 '이, 히'의 구분

1. '이'로만 나는 것: 가붓이, 깨끗이, 느긋이, 가까이, 고이, 많이, 헛되이, 번번이, 틈틈이
2. '히'로만 나는 것: 극히, 급히, 딱히, 속히, 족히, 특히, 엄격히, 정확히
3. '이, 히'로 나는 것: 솔직히, 가만히, 나른히, 꼼꼼히, 열심히, 당당히, 쓸쓸히, 조용히, 도저히

19 '꼼꼼이'는 '이, 히'로 소리 나기 때문에 '꼼꼼히'로 적는다.

오답 해설 ① '각별히'는 끝음절이 '이'나 '히'로 소리 나기 때문에 '히'로 적는다. ③ '딱히'는 끝음절이 '히'로 소리 나기 때문에 '딱히'로 적는다. ④ '일찍이'는 부사 '일찍' 뒤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경우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제25항 규정에 따라 '일찍이'로 적는다. ⑤ '틈틈이'는 끝음절이 '이'로 소리 나기 때문에 '틈틈이'로 적는다.

20 '이 그릇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쓴다.'에서 '데'는 '경우'의 뜻을 지닌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그를 만난지도 삼 년이 흘렀다.'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이번 안건을 회의에 붙이기로 하자.'에서 '붙이기로'는 의미상 '부치기로' 고쳐 써야 한다. ④ '짭잘하게 끓인 된장국은 입맛을 돋운다.'에서 '짭잘하게'는 '짭짤하게'로 고쳐 써야 한다. ⑤ '조개살로 국물을 낸 칼국수 맛이 일품이다.'에서 '조개살'은 '조갯살'로 고쳐 써야 한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188~189쪽

01 (1) ㉠: 바람, 하늘, 흐리다, 울다 ㉡: 국화, 높이, 오뚝이, 해돋이, 맑다, 넘어지다, 맞히다, 웃다 (2) ㉠은 표음 문자인 한글의 성격에 따른다는 의미이고 ㉡은 표의주의를 반영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히어 적는다는 의미이다. ㉠ 외에 ㉡을 추가한 이유는 표음주의만 따를 경우 의미 구분에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02** (1) '나 물 좀 다오.'로 띄어 쓰면 '나'에게 물을 달라는 의미가 되고 '나물 좀 다오.'로 띄어 쓰면 나물을 달라는 의미가 된다. (2) 띄어쓰기를 하면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03** (1) 쳐다볼∨뿐, 실력뿐이다 (2) 트는∨대로, 설명서대로 (3) 당신만큼은, 들릴∨만큼 (4) 너밖에, 입∨밖에 (5) 떠나온∨지, 해야∨할지 **04** (1) 순댓국을∨두∨그릇째∨먹는∨중이다. (2) 한∨달만∨바르면∨우윳빛∨피부가∨돼요. (3) 운동을∨시작한∨지∨햇수로∨오∨년이∨되었다. (4) 비가∨몹시∨많이∨와서∨농사가∨안될∨확률이∨높다. (5) 시간이∨지날수록∨소문은∨걷잡을∨수∨없이∨퍼져만∨갔다. (6) 노래를∨부르든∨춤을∨추든∨한∨가지는∨하는∨수밖에∨없다. (7) 먹고∨싶은∨만큼∨마음껏∨먹으라고∨해서∨잔뜩∨먹고∨말았다.

01 (1) '국화[구콰], 높이[노피], 오뚝이[오뚜기], 해돋이[해도지], 맑다[막따], 넘어지다[너머지다], 맞히다[마치다], 웃다[운따]'는 소리대로 적지 않고 형태를 밝혀, 즉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2) ㉠은 표음주의에 따른 것이고 ㉡은 표의주의에 따른 것이다.

02 (1) '나 물 좀 다오.'로 띄어 쓰느냐 '나물 좀 다오.'로 띄어 쓰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03 (1) '쳐다볼∨뿐'의 '뿐'은 의존 명사이고, '실력뿐이다'의 '뿐'은 조사이다.
(2) '트는∨대로'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고, '설명서대로'의 '대로'는 조사이다.
(3) '당신만큼은'의 '만큼'은 조사이고, '들릴∨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다.
(4) '너밖에'의 '밖에'는 조사이고, '입∨밖에'의 '밖에'는 명사 + 조사이다.
(5) '떠나온∨지'의 '지'는 의존 명사이고, '해야∨할지'의 '지'는 어미 '-ㄹ지'의 일부이다.

04 (1) 순대국 → 순댓국
(2) 우유빛 → 우윳빛, 되요 → 돼요
(3) 해수 → 햇수
(4) 몹씨 → 몹시, 확율 → 확률
(5) 겉잡을 → 걷잡을
(6) 부르던 → 부르든, 추던 → 추든
(7) 잔득 → 잔뜩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190~191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01 '한국어'가 아니라 '표준어'이다.

02 '어법에 맞도록 함'이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의미이다.

11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는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16 주어진 문장에서 '만'은 '앞말이 가리키는 동안이나 거리'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20 무릎쓰고 → 무릅쓰고

(3) 바로 읽고, 함께 쓰기

기출 실전 문제 본문 194~199쪽

01 ③	02 ③	03 ③	04 ②	05 ②	06 ④	07 ①	08 ④
09 ③	10 ①	11 ⑤	12 ④	13 ⑤	14 ①	15 ②	16 ③
17 ④	18 ⑤						

01 1~3문단에서 다양한 신어의 예시를 활용하여 신어와 삶의 관련성에 대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어가 나타났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신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②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신어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4문단에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신어의 발생과 소멸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⑤ 그래프와 연표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신어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의도를 인상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나, 신어의 중요성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4문단에서 신어는 대체로 생명력이 짧다고 하였으나 사전에 등재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70~80%의 신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므로, 신어의 남발과 남용을 고민하거나, 교육적으로 이러한 신어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가 있는 곳에는 신어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통해 신어는 역사와 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를 통해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이러한 사례는 신어를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평가가 다소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를 통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어를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혼-"의 등장은 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개인의 활동으로 옮겨 가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문화로 새로이 범주화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를 통해 '혼 + 명사'류의 등장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문화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03 이 글은 연표를 활용하여 시대별 신조어를 인상적으로 제시하여 신조어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이 시대별 신조어를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혼 + 명사' 형태의 신어 확산이 1인 세대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1인 가구 비율 증가를 드러내는 그래프를 활용하고 있다. ② 이 글은 그래프, 그림을 결합한 복합 양식을 통해 신어와 삶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④ 이 글의 그래프에는 출처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⑤ 이 글에 사용된 그림을 활용한 연표는 신조어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4 범주화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로 묶음.'의 의미이다. '모걸, 오렌지족, 금수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은 특정한 부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같이 묶어 범주화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해설 '우골탑'은 대학에 대한 냉소적인 어조가 담긴 표현이고, '청맥통'은 대학 문화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05 ⓑ는 '사회의 발전이나 역사가 급격하게 움직이는 시기'라는 뜻이다. '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 가는 도중의 시기'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과도기'이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다.

06 '우리가 흔히 신어의 남발과 남용을 고민하거나, 교육적으로 이러한 신어의 사용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를 논쟁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다.'를 통해 ㉠ 사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비생산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신어 사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해설 ① 글쓴이는 ㉠이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며, 70~80%의 ㉠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가 있는 곳에는 신어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있었고, 이를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역사와 문화의 변화가 심한 시기에 ㉠이 활발하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③ '신어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 양상과 언어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이러한 '혼 + 명사'류의 신어는 음식 문화의 영역 외에도 '혼공, 혼강, 혼영, 혼캠' 등 자기 계발이나 여가 활동에서도 꽤 생산적인 쓰임을 보인다. 이러한 신어들은 모국어 화자가 가진 언어 창조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를 통해 알 수 있다.

07 2문단의 "혼-"의 확산은 2024년 3월 최초로 전국 1인 세대 수가 1천만을 넘어 전체 세대의 약 41.8%를 차지한다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보고와 무관하지 않다.'를 통해 1인 세대 수의 증가가 ㉡의 배경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개인주의적 사고의 팽배와 '혼 + 명사'류 신어의 확산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인구 감소와 음식 문화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혼 + 명사'류 확산으로 인해 자기 계발과 여가 활동과 관련된 '혼 + 명사'류 어휘가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혼 + 명사'류 신어 발생의 사회·문화적 배경인 것은 아니다. ⑤ 공동체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형성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08 이 글에 제시된 연표는 시대별로 대표적인 신어를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신어의 역사를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시각 자료를 통해 독자의 시선을 끌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나, 글쓴이만의 독특한 관점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그래프는 신어의 증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그래프를 통해 1인 가구의 인구와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연표를 통해서는 신어의 유행은 알 수 있으나, 소멸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9 글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의 평가 항목은 '글쓴이의 관점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가?'(㉮) ,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가?', '글쓴이가 사용한 자료가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가?'(㉯) 등이다.

10 '신어를 통해 우리 삶의 변화 양상과 언어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를 통해 글쓴이가 신어를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②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가 있는 곳에는 신어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있었고, 이를 수집하고 기술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되었다.'를 통해 신어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을 알 수 있지만, 신어가 언어 발전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의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신어의 남용에 대한 논의는 비생산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신어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신어를 활발히 생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⑤ 신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신어를 수집하고 기술했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신어를 수집하고 기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도인 것은 아니다.

11 신조어 남용에 대한 입장을 다양한 신조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보기〉와 달리 이 글은 신조어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를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신조어를 남용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도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의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것을 넘어서, 언중들의 언어 창조성, 새로운 가치 부여와 범주화, 웹과 모바일을 통한 언어유희의 향유 등을 보여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존재 이유를 가진다.'를 통해 이 글은 신조어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시대별 신조어를 보여 주는 연표를 활용하여 신조어가 우리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③ 〈보기〉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해 자막을 활용한다는 설정을 통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신조어 남용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④ 〈보기〉는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라는 문자를 활용하여 신조어 남용의 문제점을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2 공동 보고서 작성 과정은 '계획 수립 → 자료 수집 및 선정 → 개요 작성 →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공유 및 상호 평가'로 이루어진다.

13 공동 보고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므로, ㉤에는 '개성적'이 아니라 '명료한'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다.

14 조사 절차에는 '조사 대상' 외에도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이 포함된다.

15 ⓑ는 '방송 언어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는 방송 언어의 실태를 드러내기 위한 기본 개념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③ ⓒ는 방송 언어의 실태를 드러내는 자료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④ ⓓ는 방송 언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⑤ ⓔ는 보고서의 결론으로 보고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16 방송 언어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주제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가, 개인별 언어 습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담 조사가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② 문헌 조사는 방송 언어의 개념과 정의를 다루는 논문을 찾아보는 것이 해당한다. 언론 매체 검색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조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신문 기사는 문헌 조사의 일종으로, 물어보는 조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방송에 사용된 지역 방언이나 전문어의 효과를 정리한 자료는 공동 보고서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성이 높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자료는 신뢰성 있는 자료여야 하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자료로서 학생들의 언어 습관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방송 언어의 개념과 정의를 다루는 문헌 자료는 공동 보고서의 주제와 부합하는 자료이다. ⑤ 방송 언어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주제이므로, 방송 언어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는 수집 가능한 자료이다.

18 공동 보고서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하므로,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하여 내용이 자연스럽게 종합되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④ 공동 보고서의 점검 항목으로 적절하다.

심화 복합 문제

본문 200~205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② 05 ⑤ 06 ① 07 ① 08 ①
09 ② 10 ① 11 ② 12 ⑤ 13 ④ 14 ② 15 ⑤ 16 ⑤
17 ④

01 5문단에서 신어의 기능과 존재 이유를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신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혼 + 명사'류 신어의 확산을 예로 제시하여 신어가 가진 언어 창조성, 문화적 범주화 등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② 1~3문단에서 구체적인 신어의 예를 제시하여 신어가 역사와 문화, 삶의 변화 양상을 드러내는 가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③ 그래프와 연표 등의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신어에 대한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신어의 사전 등재와 허용 범위 등에 관련한 논쟁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02 글쓴이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가 있을 때 신어의 생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여기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 대확산과 같은 역사적 사건은 다양한 신어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의 시기에 신어가 활발하게 생성된다는 것이지, 신어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② 5문단에서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제도를 명명하는 본질적 기능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러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는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③ 글쓴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혼 + 명사'류 등의 신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④ 글쓴이는 신어의 생성과 소멸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허용 범위나 사전 등재 등의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03 신어는 사회적 변화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혼 + 명사'류의 신어도 사회적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혼 + 명사'류의 신어가 미래에도 생명력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지는 못 한다.

오답 해설 ① 신어는 우리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언어이므로 ㉠도 그런 사례라 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이 1인 세대 수가 증가한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③ ㉠의 확산은 다양한 신어를 생성하여 언중들의 언어 창조성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글쓴이는 ㉠을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문화로 새롭게 범주화되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04 ⓐ, ⓑ, ⓓ는 모두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답 해설 ⓒ, ⓔ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글쓴이의 의견에 해당한다.

05 '오렌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어근으로 실질 형태소이고, '-족'은 "그런 특성을 가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무리' 또는 '그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나 사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의 예이다.

오답 해설 ① '모걸'은 실질 형태소인 '모던'과 '걸' 중 각 실질 형태소의 앞 음절만 결합하여 이루어진 신어이다. ② '우골탑'은 실질 형태소인 '우골'과 '탑'이 결합한 신어이다. ③ '청맥통'은 실질 형태소인 '청바지, 맥주, 통기타'의 앞 음절만 결합하여 형성된 신어이다. ④ '금수저'는 실질 형태소인 '금'과 '수저'가 결합하여 형성된 신어이다.

06 글쓴이는 신어의 발생 배경과 인구의 변화 등에 따른 '혼 + 명사'류의 신어의 등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신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역사와 문화의 격동기 속에 발달하게 된 신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사회 현상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통계 자료를 통해 인구수

의 추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니다. ④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그래프와 연표 등의 복합 양식은 글의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을 뿐, 복합 양식을 중심으로 신어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7 ㉠은 신어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 신어를 수집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는 의미이지, 신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답 해설 ② ㉡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보고와 무관하지 않다.'와 연관해 볼 때, '혼 + 명사'류의 신어가 발생한 배경은 우리 사회의 1인 세대 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③ ㉢에서 '신어를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하는' 것은 신어를 경시하는 일반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글쓴이는 이와 달리 신어가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에서 신어의 사용 범위에 대한 교육적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드러내었으므로, 신어의 사용 범위에 대해 굳이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흥미로운 일이다.'는 신어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신어는 우리 삶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08 3문단의 '이러한 신어들은 모국어 화자가 가진 언어 창조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문화로 새로이 범주화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를 통해 신어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 특정 분야에서 생명력이 약하다는 것이 신어의 일반적인 특성인 것은 아니다. ㉱ 모든 신어가 언어유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09 신어는 웹과 모바일을 통해 언중들이 언어유희를 즐기는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나, 신어가 웹과 모바일을 통해서만 형성되고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4문단의 '신어의 생명력이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고, 개별 신어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를 통해 신어의 생명력은 개별 신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한국어는 10여 년간의 사용 추이 조사에서 대략 20~30%의 신어만이 살아남아 사전 등재의 후보가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70~80%의 신어는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것이다.'를 통해 신어 가운데 생명력이 짧은 신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신어를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평가'를 통해 언중은 신어를 가볍고 저급한 언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의 '언어권별로 신어의 삶과 죽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를 통해 다양한 언어권에서 신어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연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은 언어의 명명 기능이 아니라 신어가 삶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신어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신어를 제시하여 신어가 역사적 사건과 문화적 변화를 반영한다는 글쓴이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③ 이 글은 그래프와 연표를 통해, 영상 매체인 〈보기〉는 대사 및 자막 등을 통해 신어에 대한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④ 〈보기〉는 신어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인물을 등장시켜 언어의 의사소통 기능과 관련하여 지나친 신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보기〉는 신조어가 많이 사용된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자막을 켜야만 하는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신어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있다.

11 복합 양식의 적절성은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점검해야 할 내용이므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③, ④, ⑤ 보고서의 목적과 필요성, 보고서의 주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모둠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1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보고서가 공동 보고서이므로 각자의 의견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종합되고 일치된 의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공동 보고서는 조사 주제와 필요성, 조사 목적에 맞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② 공동 보고서는 조사 방법과 절차, 결과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 ③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참고 자료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④ 공동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표나 사진 등의 복합 양식 자료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보고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3 자료 수집과 선정 단계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나 사실 관계가 검증된 자료인가를 고려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선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 양식을 확인하고 준수하였는가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점검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② 보고서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정하였는가는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③ 보고서 공유를 위한 협업 도구를 결정하였는가는 상호 평가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⑤ 보고서에 인용하거나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혔는가는 보고서 작성 후에 고려해야 할 내용이다.

14 '3-다'에 지역 방언이 방송에 사용된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은 방언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례로, '3-다'에 제시된 내용 항목의 성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3-나'의 방송 언어의 역사는 방송 언어 실태라는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3-다'는 방송 언어의 실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 의사소통에 장애를 불러오는 낯선 신조어가 사용된 사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3-라-1)'은 조사 결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프와 같은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⑤ '4. 결론' 다음에 자료의 신뢰성을 위해 참고 자료의 출처를 밝혀 주는 것은 적절하다.

15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복합 양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문자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표현된 것이야 의도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② 표와 그래프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표와 그래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제시해야 한다. ④ 그림이나 사진은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내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한다.

16 보고서 작성 계획을 세울 때는 필요한 내용과 자료 수집 방법을 고려해서 주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목적을 정한 후에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② 보고서의 목적을 고려할 때 '방송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주제를 '방송 언어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③ 현재 모둠에서 정한 주제는 '3-가'의 내용인 방송 언어의 개념과 중복되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④ 자료 수집 방법에서 문헌 조사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제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조사와 면담 조사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17 방송 언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학생의 경험과 함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학생의 경험도 언급해 주어야 면담 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제시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므로 '비속어가 쓰이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의 표현은 수정해야 한다. ② 방송 언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한 학생의 경험 외에 주제와 관련된 다른 학생의 경험을 추가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46.7퍼센트나 되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보조사 '-나'를 써서 방송 언어 인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객관성을 고려하여 '46.7퍼센트이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⑤ '라'의 첫 문장에 방송 언어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문에 대해 기술한 것처럼 방송 언어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것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설문 결과도 보고서의 내용에 기술해야 객관성과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

서답·서술형 문제

본문 206쪽

01 (가)는 신어 남용과 허용에 대한 논쟁은 비생산적이라며 신어 사용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보여 주고 있지만, (나)는 신어의 남용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어 남용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02 (가)는 신어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의도를 인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대별 신조어를 연표로 나타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나)는 자막을 보는 장면 설정이나 광고의 주제를 문자로 제시하여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OX로 마무리 check

본문 207쪽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04 글쓴이는 신어의 사전 등재 문제나 신어의 허용 범위에 대한 논의는 비생산적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06 글쓴이는 그래프와 그림을 활용한 연표 등의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나 문자나 사진은 활용되지 않았다.

최종 점검 모의고사

제1회

본문 210~217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② 07 ⑤ 08 ④
09 ⑤ 10 ① 11 ② 12 ③ 13 ② 14 ① 15 ③ 16 ③
17 ⑤ 18 ② 19 ② 20 ⑤ 21 ① 22 ④ 23 ⑤

01 (가)는 3·3·2조의 3음보, (다)는 7·5조의 3음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묏버들 갈히 것거 보내노라 님의손ᄃᆡ'에서는 임에게 정성을 다하는 화자의 행위를 어순의 도치를 활용하여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는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나)는 자연물인 '묏버들'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다)는 자연물을 통해 봄의 분위기를 드러내어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와 (다)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만 화자가 '당신'을 기다리는 시적 상황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와 (나) 역시 상황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다)는 모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D]에서는 화자가 임을 붙잡으면 임의 마음이 상하여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임을 붙잡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임과의 재회를 위한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A]의 '가시리잇고'를 통해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B]의 '날러는 엇디 살라 ᄒᆞ고'를 통해 화자를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이 [A]에 비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의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를 통해 화자는 임이 떠난 후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D]에서 임을 보내는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D]는 4연의 분연체 구성으로, '기[A]–승[B]–전[C]–결[D]'의 시상 전개 과정을 보여 준다.

03 '위 증즐가 대평셩ᄃᆡ'는 '어진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이나 시대'를 의미하므로, 이별의 상황에 놓인 화자의 정서와 동떨어진 후렴구이다.

오답 해설 ① 각 연의 동일한 위치에 놓여 작품의 구조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②, ④ 각 연의 동일한 위치에서 반복되는 후렴구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는 이별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후렴구로, 이러한 후렴구가 나타나는 것은 후대에 궁중 음악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04 (다)의 '당신'을 홀로 개여울에 주저앉아 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볼 때 화자는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을 뿐 '당신'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보기〉와 관련해 볼 때, (나)의 '묏버들'은 시인이 실제로 임에게 보낸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라 할 수 있다. ② (나)의 '날인가도 너기쇼셔'는 '묏버들'과 시인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임과 함께하고 싶은 시인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다)의 '당신'을 떠난 임으로 본다면, 1연을 통해 화자의 기대와 달리 무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화자의 원망이 담긴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창작 배경과 관련해 볼 때 (나)의 화자는 임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인과 일치하는 인물로, (다)의 화자는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를 대리하는 허구적 인물로 볼 수 있다.

05 ㉡은 '골라'의 뜻으로, 정성스럽게 묏버들을 고르는 화자의 행동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기능을 하는 여음구로,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대상으로 화자와 동일시된다고 볼 수 있으나, 새로운 모습으로 임을 만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④ ㉣은 과거 이별의 상황에서 '당신'이 화자에게 한 말을

화자가 돌아오겠다는 약속으로 생각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화자가 '당신'에게 재회할 것을 약속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⑤ ㉤은 현재 상황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약화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 기대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06 (가)의 '셜온 님 보내옵노니'는 '셜온 님'은 '보내기 서러운 님',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시적 상황으로 보아 '보내기 서러운 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슬퍼하는 감정의 주체를 전도한 표현으로 볼 때, 임도 이별을 서러워하는 상황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에 대한 원망과 슬픔의 정서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가)는 'ᄇᆞ리고 가시리잇고'를 반복하여 자신을 버린 임을 원망하는 화자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는 '자시ᄂᆞᆫ 창 밧긔 심거 두고 보쇼셔'라고 하여 임에게 보낸 '뭇버들'을 통해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의 '홀로이 개여울에 주저앉아서'는 임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으로, 이를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다)의 '파릇한 풀포기'와 '봄바람'의 자연적 배경은 이별을 하는 화자의 슬픈 상황과 대비되어 이별의 슬픔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07 '온갖 깃발이며 삼현 육각 풍류 소리 공중에 떠 있고, 녹의홍상 기생들은 백수한삼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화자 둥덩실 하는 소리'를 통해 생일잔치가 열리는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수령들이 모인 공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외부의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② 운봉 영장의 도움을 받아 어사또가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비현실적 요소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위기를 해소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제시된 부분은 인물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로, 인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어사또와 운봉 영장, 본관 사또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만,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저 걸인의 의관은 남루하나 양반의 후예인 듯하니 말석에 앉히고 술잔이나 먹여 보냄이 어떠하오?"로 볼 때 운봉 영장은 처음에는 걸인의 행색을 한 인물이 양반의 후예라고 짐작하고 있으나, 암행어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보고 난 뒤에야 그가 암행어사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인근 고을의 수령들이 모여든 것은 본관 사또의 생일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이다. ② 어사또가 지은 시는 민중의 분노를 대변하여 탐관오리가 가렴주구하는 정치 현실을 비판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③ '모서리 떨어진 개상판에 닥나무 젓가락,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를 통해 어사또가 받은 형편없는 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볼 때 어사또가 푸대접을 당함을 알 수 있다. ⑤ 어사또의 정체를 깨달은 운봉 영장이 관속을 단속하는 것을 본 본관 사또는, "여보 운봉은 어디를 다니시오?"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09 ⓐ는 주인공인 어사또나 춘향의 외적 갈등이 심화될 것임을 암시는 것이 아니라, 시를 지은 어사또가 암행어사임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가렴주구에 시달리는 백성의 현실을 통해 본관 사또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못했는데 순식간에 글 두 귀를 지었으되'를 통해 어사또의 뛰어난 문재(文才)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③ '운봉 영장은 이 글을 보며 속으로 생각기를, '아뿔싸! 일이 났구나.' /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뒤에 각 아전들을 분부하되,'를 통해 운봉 영장이 걸인의 정체가 암행어사임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밤낮으로 연회를 벌이는 탐관오리와 대비되는 백성의 가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0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해가 큼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가렴주구(苛斂誅求)'와 유사한 뜻이다.

오답 해설 ② '곡학아세(曲學阿世)'는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함.'의 뜻이다. ③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④ '양두구육(羊頭狗肉)'은 '양의 대가리를 내어놓고 실은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훌륭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찮음.'의 뜻이다. ⑤ '토사구팽(兔死狗烹)'은 '토끼가 잡혀 죽으면 사냥개는 쓸모없게 되어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11 "마는'이란 소리 뒷입맛이 사납겠다.'를 고려해 볼 때, ㉡에는 걸인 행색의 어사또가 잔치에 참여하는 데 대한 본관 사또의 불쾌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성대한 생일잔치를 벌이고자 하는 본관 사또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성격을 보여 준다. ③ ㉢은 시 짓기를 제안하여 생일 잔치의 흥을 돋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잔치에서 초라한 대접을 받은 것을 비꼬고 있으므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데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고 할 수 없다. ⑤ ㉤은 본관 사또에게 둘러 대는 운봉의 대답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추려는 운봉 영장의 음흉한 성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12 '상을 발길로 탁 차 던지며 운봉 영장의 갈빗대를 직신 쑤시며'는 어사또의 행동을 표현한 것이다.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담긴 것인데, 어사또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본관 사또를 조롱하는 어사또를 풍자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저 사령 거동 보소.'는 판소리 창을 하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에 해당한다. ② '등을 밀쳐 내니 어찌 아니 명관인가.'는 반어적 표현으로, 걸인을 쫓아내도록 한 본관 사또의 행태를 조롱하는 소리꾼의 생각이 드러난다. ④ "갈비 한 대 먹고지고."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⑤ '공방 불러 돗자리 물품 단속, 병방 불러 역마 단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운봉 영장이 관속을 단속하는 장면으로, 열거와 반복을 통해 어사 출두에 대비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13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를 통해 어사또는 옥에 갇힌 춘향을 이미 만났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어사또는 춘향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너만 한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발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를 통해 어사는 춘향에게 자신의 수청을 들라며 춘향의 정절을 시험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다 각각 죄를 물은 뒤에 죄 없는 사람은 풀어 줄새,'를 통해 본관 사또는 죄 없는 백성들을 옥에 가두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④ "내려오는 관장마다 낱낱이 명관이로구나. 수의사또 들으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나무 눈이 온들 변하리까."를 통해 춘향은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비난하며 수청을 거부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임금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조 참의 겸 대사성에 임명하시고 춘향으로 정렬부인에 봉하신다.'를 통해 임금은 춘향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정렬부인의 칭호를 내렸음을 알 수 있다.

14 춘향과 어사또, 〈보기〉의 설씨녀와 가실은 모두 상대에 대한 신의를 지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② 이 글에서는 춘향이, 〈보기〉에서는 설씨녀와 가실이 시련을 겪지만, 어사또는 시련을 겪는다고 할 수 없다. ③ 이 글은 사랑하는 남녀가 이별한 후 시련을 겪고, 〈보기〉에서 설씨녀와 가실 역시 이별 후에 시련을 겪고 있다. ④ 이 글은 남녀 간의 신분 차이가 사랑을 성취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기〉에서는 신분 차이가 아니라 가실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⑤ 이 글의 어사또와 〈보기〉의 가실은 모두 신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별한 후에 겪는 시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기〉에서 가실은 이별 후 군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뿐이다.

15 서술자가 인물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으나 인물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는 어순의 도치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②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 보소.'에는 판소리 창을 하는 소리꾼이 청중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나타난다. ④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멍석 구멍에 새앙쥐 눈 뜨듯 하고,'는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 달아나는 본관 사또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있다. ⑤ '좌수, 별감 넋을 잃고 이방, 호방 혼이 나가고 나졸 사령들이 분주하네. ~ 부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과 장고라.'는 열거와 대구를 통해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 달아나는 수령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6 춘향이 죽기를 각오하고 절개를 지키는 것은, 춘향이 유교적 가부장제의 윤리인 '정절'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이지, 신분 제도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오답 해설 ① 춘향이 본관 사또의 수청을 거부하며 관정발악한 죄로 옥에 갇힌 것은, 불의한 지배 계층인 탐관오리의 횡포에 저항하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② 본관 사또가 춘향에게 수청을 들라고 강요한 것은, 탐관오리가 횡포를 부리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④ 춘향이 시련을 극복하고 어사또와의 사랑을 이루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것이다. ⑤ 퇴기의 딸인 춘향이 정렬부인이 되어 어사또와 혼인하는 것은, 신분 제도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는 시기의 평민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17 '떨어진다', '소리이다', '부른다'와 같이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폭포의 내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긍정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해설 ① '밤', '곧은 소리' 등의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 없이 떨어진다'와 같은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폭포의 낙하라는 자연 현상을 활용하여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와 일관성 등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시각과 청각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중심 소재인 폭포의 내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8 이 글에서 '폭포'는 불의에 저항하여 곧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인간의 내적 속성을 상징하는데, '고매한 정신'은 이러한 폭포의 상징적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은 폭포가 놓인 외적 상황을 가리킨다. ③ ㉢은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나, '밤'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대상이다. ④ ㉣은 폭포를 가리킨다. ⑤ ㉤은 폭포가 거부하는 속성이다.

19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은 폭포의 성격을 정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폭포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오답 해설 ① '무서운 기색도 없이'는 폭포의 '용감함'을 의미한다. ③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는 '변함없음', '일관성', '항상성'을 의미한다. ④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은 '망설임이 없음', '과단성'을 의미한다. ⑤ '높이도 폭도 없이'는 '얽매이지 않는 절대적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20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는 부정적 현실에도 '나타와 안정'에 빠져 안주하는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서 벗어나 현실에 단호하게 저항하는 폭포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두려움을 모르는 폭포의 용감함을 드러낸 것으로, 부정적, 억압적 현실에 두려움 없이 맞서는 모습을 의미한다. ②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폭포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지니고 잠깐의 타협과 굴복, 방심과 안정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③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은 '아름다움과 인간다움이 사라진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며, 4 · 19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1950년대 후반의 암울하고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의미한다. ④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된 상황에도 민주주의를 위한 곧고 양심적인 비판의 소리를 용기 있게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1 (가)는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의 속성을 통해, (나)는 정해진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별과 태양, 그 궤도에서 이탈해 떨어지는 별똥별의 속성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에는 음성 상징어인 '뱅뱅'이 활용되었으나,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지 않았다. ③ (나)의 '나는 보았다 단 한 번 궤도를 이탈함으로써 ~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을'에서 도치의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가)에는 도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는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 모두 삶을 성찰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말을 건네는 어투를 활용한 것은 아니다.

22 ㉦은 '우리'가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환기한다.

오답 해설 ① ㉠은 '폭포'가 놓여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② ㉡은 금잔화로 상징되는 생명력과 아름다움, 인가로 상징되는 유대감이 사라진 암담한 현실을 환기한다. ③ ㉢은 '폭포'가 떨어지면서 내는 '곧은 소리'가 억압받고 있거나 현실에 안주하려는 다른 이들을 각성하게 하여 또 다른 '곧은 소리'를 이끌어 내는 상황을 환기한다. ⑤ ㉤은 궤도를 '이탈한 자', 즉 별똥별이 만든 흔적을 환기한다.

23 ㉢는 궤도를 이탈한 자로, 자유로움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을 지닌 '폭포'의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는 태양의 속성을 나타낸다. ② ⓑ는 '우리', '태양' 등이 돌고 있는 곳이다. ③ ⓒ는 궤도 내에서 뭇별들이 도는 장소를 가리킨다. ④ ⓓ는 '별'이 처해 있는 한 상황이나 환경, 세계를 가리킨다.

제2회

본문 218~223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③	05 ⑤	06 ④	07 ②	08 ⑤
09 ③	10 ⑤	11 ③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②
17 ⑤	18 ②						

01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자료를 모으는 것은 발표 내용을 혼란스럽게 하므로 발표 공포증을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실제 발표 연습을 통해 긴장감을 줄이고 발표에 익숙해질 수 있다. ② 발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발표 중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③ 청중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면 발표에 자신감을 얻고, 발표 공포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⑤ 청중과 눈을 맞추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발표 공포증을 극복하고 발표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02 (가)와 (나)에서는 청중인 친구들이 아윤이의 발표 주제를 정해 주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② 친구들이 에너지 음료를 많이 마신다는 것은 관찰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⑤ 친구들이 카페인의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모른다는 내용은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친구들이 카페인이 다양한 음식에 포함된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다.

03 발표 준비 과정에서 관찰한 청중의 특성과 수집한 자료를 고려할 때, 발표 주제로 '카페인이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합하다.

오답 해설 ① 청소년의 수면 패턴과 생활 습관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② 카페인 섭취와 신체 활동의 관계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③ 카페인의 화학적 구조와 신체 반응은 〈자료 3〉과 관련이 있지만, 청중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다. ⑤ 에너지 음료 시장의 성장과 마케팅 전략은 자료의 내용과 발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04 〈자료 2〉는 전문가 면담 영상으로,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카페인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카페인의 화학적 구조에 대한 설명은 〈자료 3〉에 나타나 있다.

오답 해설 ① 〈자료 1〉은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과 허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자료 1〉은 청소년과 성인의 카페인 허용량을 비교할 때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④ 〈자료 2〉는 전문가의 면담 영상으로, 카페인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신체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⑤ 〈자료 3〉은 과학 전문 서적으로, 카페인의 화학적 구조를 다루고 있다.

05 발표 주제와 관련 없는 정보는 청중의 이해를 방해하고, 발표의 초점을 흐리게 만든다. 따라서 발표 준비 과정에서는 자료의 적합성과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답 해설 ① 예상 질문에 대비한 연습은 청중의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② 발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발표 준비의 기본 과정이다. ③ 발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발표 중 논리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④ 청중의 관심을 고려하여 발표 내용에 흥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은 청중의 주의를 끌고 발표의 효과를 높이는 데 유용하다.

06 발표에서는 카페인의 과다 섭취가 집중력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카페인이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높인다는 내용은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다른 음식에 들어 있는 카페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체중에 따라 카페인 허용량이 다르다는 점은 발표에서 강조된 내용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③ 카페인이 숙면을 방해한다는 점은 발표 자료와 답변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이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⑤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발표 자료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07 (가)에서는 카페인이 음료뿐만 아니라 초콜릿,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음식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만 조심하는 것으로는 카페인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오답 해설 ① 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103밀리그램)이 초콜릿 한 봉지(22.8밀리그램)보다 많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령에 따른 카페인 하루 섭취량을 정해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섭취 허용량은 체중 1킬로그램당 2.5밀리그램 이하이다. ④ 250밀리리터 콜라 한 캔의 카페인 함유량은 약 27밀리그램이다. ⑤ 체중 60킬로그램인 청소년의 하루 카페인 허용량은 150밀리그램(60킬로그램 × 2.5밀리그램)이다.

08 (나)에서 아윤이는 카페인과 기억력의 관계에 대해 미처 조사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충분히 조사했다고 추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아윤이는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체계적인 자료 조사와 준비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구체적인 예를 들어 청중의 질문에 답변한 모습은 '실제로 외국에서 카페인이 든 에너지 음료를 ~ 병원에 간 사례도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이 자료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④ 청중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여 자료를 준비한 점은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드러나고 있다.

09 연극부는 소극장을 배정받기 위해 기존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10 오케스트라부는 합주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과 공연 연습에 소극장이 적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② 학교 행사나 동아리의 대표성은 주요 논점이 아니다. ③ 소극장 배정의 이유는 활동 영역 확장이 아니라 연습 환경 개선에 있다. ④ 기존 성과보다는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1 소극장을 다른 동아리에게 우선 배정하는 것은 두 동아리가 협상을 통해 소극장 사용을 결정하려는 맥락과 어긋난다.

오답 해설 ① 소극장을 대체할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다. ②, ⑤ 소극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다. ④ 소극장을 배정받지 못한 동아리를 위한 환경 개선은 현실적인 방안이다.

12 연극부는 자주, 여러 번 모이는 연습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주중의 소극장 사용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오케스트라부의 연습 시 방과 후 시간의 소극장 사용을 오케스트라부에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조건에 동의했으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 ② 주중과 주말 모두 소극장을 일정한 간격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축제 2주 전에는 소극장에 대해 토요일 사용을 요청했지만, 주말 이틀 동안 소극장 사용을 희망한 적은 없다. ④ 동일한 조건보다는 연습 방식에 맞춘 조건을 중시하고 있다.

13 오케스트라부는 긴급 상황에서 주중 방과 후 시간 일부의 소극장 사용을 연극부에게 양보받는 대신, 축제 2주 전부터는 토요일에 연극부가 소극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오답 해설 ① 주중 방과 후 시간 대부분은 연극부가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② 소극장을 연극부가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협상 결과와 다르다. ③ 축제 준비 기간 동안 토요일은 연극부가 소극장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④ 소극장 사용 시간을 모두 오케스트라부에 배정한다는 주장은 협상 내용과 맞지 않는다.

14 매체 자료는 특정 주제를 구성하고 강조할 뿐, 현실 세계의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전달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할 가능성은 (가)의 외국인 범죄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매체 자료는 특정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강조하여 수용자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④ (가)의 [사례 1]로 볼 때, 매체 자료는 현실 세계에 대한 수용자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다. ⑤ 수용자는 매체 자료가 반복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현실로 인식하기도 한다.

15 매체 자료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므로 모든 상황에서 매체 자료를 무조건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배경을 확인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 과정의 핵심이다. ② 매체 자료가 수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다. ④ 매체 자료가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의 중요한 부분이다. ⑤ 매체 자료가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왜곡된 관념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16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수용자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매체 자료는 특정 주제를 선택적으로 구성하고 편향된 이미지를 전달하여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오답 해설 ① 비현실적 신체 기준이 외모 만족도를 낮추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과정은 (가)의 [사례 2]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③ 폭력적 매체 자료로 인해 세상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과정은 (가)의 [사례 1]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이다. ④ 매체 자료를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현실과 매체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점은 (가)의 매체 자료 구성 방식을 설명한 부분과 관련된다. ⑤ 매체 자료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과정은 (가)의 [사례 3]에서 외국인 범죄 사례로 인해 혐오 감정을 형성한다는 내용으로 제시된다.

17 의주는 대학 졸업 후 산악 등반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오답 해설 ① 연회장에 의문의 유독 가스가 퍼지면서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 ② 용남의 가족은 구조 헬기를 통해 구출되었지만, 용남과 의주는 옥상에 남겨진다. ③ 용남과 의주는 협력하여 유독 가스를 피해 도심을 질주하였다. ④ 용남은 산악 등반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18 영화 〈엑시트〉는 위기 상황 속에서의 협력과 용기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매체 자료가 수용자에게 미친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비현실적 신체 기준을 접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가)의 [사례 2]에 제시되어 있다. ③ 매체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현실과 혼동하게 되는 것은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④ 폭력적 매체 자료로 인해 세상이 잔인하다는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 것은 (가)의 [사례 1]에 제시되어 있다. ⑤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 주는 매체 자료가 편견을 형성한다는 것은 (가)의 [사례 3]에 제시되어 있다.

제3회

본문 224~229쪽

01 ④	02 ③	03 ③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③
0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④
17 ①							

01 토담집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삶의 터전으로, 특정한 태도를 의도적으로 함양하는 공간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토담집에서는 출생과 죽음이 이어지며, 생명의 흐름이 지속된다. ② 토담집은 가족의 추억과 감정이 응축된 장소로, 글쓴이에게 깊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③ 토담집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터전이다. ⑤ 토담집은 과거의 공동체적 삶과 전통적 가치가 남아 있는 장소이다.

02 아낙과 남편의 삶은 전통적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으로 묘사된다.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을 도입하여 삶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며 '사립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매다는 풍습'을 이어 오고 있다. ② 집을 짓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돕고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④ 아낙은 저녁 준비와 출산을 동시에 감당하며 가족의 생존과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수확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03 남편은 출산과 관련된 전통적 관습을 충실히 따르며, 새 생명의 탄생을 기리는 행동을 보인다. '첫국밥을 끓여 아내에게 건네는 모습'과 '사립문에 출산을 알리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이러한 태도를 잘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남편은 아내가 출산한 후 '첫국밥'을 끓이고, '사립문 양쪽에 대나무를 세우고 새끼줄에 검은 숯과 붉은 고추를 매다는' 전통적 풍습을 수행한다. 이는 생명의 탄생과 그 신성함을 중시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② 남편이 전통적인 방식을 따른다고 해서 이를 가족에게 강요하거나 지배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출산 후 아내를 위해 국을 끓이는 등 가족을 돌보는 태도를 보인다. ④ 남편은 변화된 방식보다 기존의 전통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며, 개인적 편의를 위해 새로운 방식을 따르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남편이 출산 순간에만 관심을 보이고 이후 가정에 소홀한 인물이라는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남편은 출산 후의 관습까지 성실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다.

04 '비설거지'는 석양의 북새와 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를 보고 다음 날 비가 올 것을 예측하여 물건을 미리 치우는 행위이다. 이는 자연과 함께한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날씨를 가늠하는 지혜를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비설거지'는 비를 맞으며 하는 농사일과 관련이 없다. 이는 농사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③ 비가 온 후 지렁이가 운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는 '비설거지'의 의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④ '비설거지'는 비가 내린 다음 날 마당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다. ⑤ 설거지거리를 밖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치우는 것이다.

05 [A]에서 문장의 어순을 바꿔 강조하는 도치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해설 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의 반복을 통해, 시간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지속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복적 표현은 과거와 현재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② '노란 흙벽, 노란 초가지붕, 노란 마루, 노란 마당'처럼 '노란'이라는 색채어를 열거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고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④ '마음속의 보석처럼 소중한 그 추억들'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정신적 의미를 지닌 가치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⑤ 과거 '노란 집'에서의 시간과 현재 도시에서의 시간이 대비되며, 정서적 체험의 차이가 강조된다. 전통적 공간에서의 따뜻한 기억과 현대의 소외된 감정을 비교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06 글쓴이는 현재 도시에서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며, 과거를 그리워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지만, 자연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집을 짓는 장면은 공동체적 삶과 자급자족하는 전통적 생활 방식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공동체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된다. ② 아낙이 출산과 죽음을 같은 공간에서 경험하는 장면은 생명과 죽음의 순환이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반영한다. 이는 〈보기〉에서 강조하는 삶의 본질적 가치와 부합한다. ③ '노란 집'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는 글쓴이의 모습은, 과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던 삶이 기억 속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보기〉에서 전통적 삶의 방식이 현대 사회에서도 가치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과 연결된다. ⑤ '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 아이의 모습은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 준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된 '기계적 편리함에 의존한 생활'과 연결된다.

07 기압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해설 ① 고밀한 주거 환경이 거주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서양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층 거주는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④ 고층 아파트에서 강풍과 진동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우리나라에서는 고층이 로열층으로 인식되어 고층 거주자가 자부심을 느끼는데 바로 이 자부심이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한다고 하였다.

08 고층 아파트의 건축적 특성과 이로 인한 생리적 반응을 중심으로 신체적·심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일본의 사례가 등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참고 자료로 제공될 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② 기압 변화와 혈류 변화 등의 수치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심리적 영향을 수치화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④ 고층 주거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보다 개별 거주자에게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⑤ 현대 주거 공간의 출현과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09 〈보기〉와 달리 이 글에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 기관의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으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해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 주거 환경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이 글과 〈보기〉 모두 고층 주거 환경이 심리적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자연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가 드러나지 않지만, 〈보기〉에서는 자연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하여 고층의 기압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고 일본의 공영 주택 정책을 제시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10 고밀 구조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강풍과 건물의 미세한 진동이 고층 거주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 ② 기압 변화로 인해 혈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호르몬 분비와 관련된 생리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④ 고층 거주자는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모두 경험할 수 있다. ⑤ 서양의 연구 결과 고층 거주자가 저층 거주자보다 불안감과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

11 이 글에 따르면 고층 거주로 인해 발생하는 기압 변화가 신체의 생리적 반응(두통, 어지러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이러한 생리적 반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답 해설 ② 주거 환경의 물리적 요소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참고할 때, A 씨의 증상이 단순한 심리적 긴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개방된 조망이 있다고 해서 심리적 안정감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고층 주거가 오히려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강풍과 건물의 미세한 흔들림은 인간이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며, 수면의 질 저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⑤ 기압 저하와 혈류 변화가 두통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이 글에서는 다양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 형태가 심리적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경험 소비가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③ 소유 소비 또한 일시적이기는 하나 행복감을 제공한다. ④ 실험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므로 경험 소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 글의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유 소비는 경험 소비에 비해 만족감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13 이 글에서 제시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소비 방식이 다르면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심리적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3문단의 '소유 소비가 주는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과 5문단의 '경험 소비는 소유 소비에 비해 더 큰 행복을 주기도 한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④ 3문단에 제시된 실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 제시된 내용이다.

14 ㉠은 소비 방식에 따라 행복감의 지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소유 소비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만족을 제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답 해설 ① 소비자의 가치관과 소비 방식이 행복감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③ 물질적 가치관이 강한 사람들은 소비를 통해 얻는 행복감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실험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④ 'A 그룹의 학생들은 ~ 행복감의 지속 시간이 B 그룹에 비해 훨씬 짧았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다. ⑤ 동일한 금액을 소비하더라도 소비 방식에 따라 심리적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을 통해 제시되었다.

15 ⓐ에서 제공된 소비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실제적 소비 행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답 해설 ① 소비 방식 외에도 실험 대상자의 기분, 사회적 환경,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행복감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② 소비 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보다 광범위한 소비 행태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③ 참여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기존 소비 가치관이 소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이는 실험 결과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므로, 성인들에게도 동일한 소비 방식이 동일한 행복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연구 결과를 성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6 이 글과 〈보기〉 모두 소비 방식이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보기〉는 경험 소비에서 얻는 감정적 만족이 순간적이라고 했다. ② 〈보기〉는 소비에서 경제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소비자의 가치관과 선호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할 뿐, 소비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보기〉에서는 소유 소비가 장기적으로 개인의 안정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소유 소비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이 글에서는 경험 소비가 심리적 만족을 더 지속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17 ㉮에는 일반적인 원리를 대전제로 삼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 논증의 방식이 사용되었으며,

①에도 이와 같은 논증 방식이 사용되었다.

오답 해설 ②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공기 질과 건강의 관계를 결론으로 도출한 귀납 논증이다. ③ 여러 국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여가 소비의 관계를 결론으로 도출한 귀납 논증이다. ④ 운동과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통해 운동의 효과를 결론으로 도출한 귀납 논증이다. ⑤ 대학생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경험 소비에 대한 인식을 결론으로 도출한 귀납 논증이다.

제4회

본문 230~235쪽

01 ③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②	07 ⑤	08 ①
09 ⑤	10 ②	11 ③	12 ④	13 ②	14 ①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②	21 ⑤			

01 (가)는 중세 국어의 변모 양상을 통해, (나)는 'ㅂ'이나 'ㅎ' 소리가 덧나는 단어의 형성을 통해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 준다.

오답 해설 ①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언어의 사회성과는 거리가 멀다. ②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된다는 언어의 규칙성과는 거리가 멀다. ④ 언어는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기호 체계라는 언어의 기호성과는 거리가 멀다. 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언어의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데 이러한 성질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02 중세 국어의 종성에는 7개의 음운이 아니라 8종성법에 의해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의 8개 종성이 사용된다. 8종성법에 따라 'ᄉᆞᄆᆞᆰ디'를 'ᄉᆞᄆᆞᆺ디'로 표기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중세 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사용되지 않았다. ③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 평성, 상성, 거성, 입성의 성조를 표시했다. ④ '말ᄊᆞ미', '노미'와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이어적기가 나타난다. ⑤ '뿝·솅', '뎽·엉', '製·졩'와 같이 받침이 없는 한자음에 형식 종성인 'ㅇ'을 표시했다.

03 구개음화는 'ㄷ, ㅌ'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ㅈ, ㅊ'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펴·디'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달리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서르'는 음성 모음인 'ㅓ'와 'ㅡ'가 어울려 음성 모음인 'ㅓ'와 양성 모음인 'ㅗ'가 어울린 '서로'와 달리 모음 조화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니르·고·져'가 두음 법칙에 의해 '이르고자'로 변하는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중세 국어 '·쁘·들'은 현대 국어에서 '뜻을'로 바뀌므로, 어두 자음군 'ㅺ'이 현대 국어에서 된소리 'ㄸ'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수ᄫᅵ'를 통해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ㅸ'이 표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04 '어·린'은 중세 국어의 의미와 달리 현대 국어에서 '나이가 적은'의 의미로 변하였다. 중세 국어의 의미가 의미가 덧붙여진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말ᄊᆞ·미'는 '말이'의 뜻으로, '말'을 가리키는 평어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말'의 높임이나 낮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② '젼·ᄎᆞ·로'는 중세 국어에서 '까닭으로'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사라졌다. ④ '·노·미'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놈'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가리켰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와 달리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⑤ ':어엿·비'는 중세 국어에서 '가엾게, 불쌍히'의 뜻이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쁘게'라는 의미로 변화되었다.

05 ㉣은 '제'는 '자기의'라는 뜻으로 '저'에 'ㅣ'가 결합한 형태이다. 주격이 아니라 뒤에 오는 체언 '뜻'을 수식하므로, 관형격 조사이다.

오답 해설 ① ㉠의 '말ᄊᆞ미'는 '말ᄉᆞᆷ' 뒤에 '이'가 쓰인 형태로 '말ᄉᆞᆷ'의 받침이 뒤에 오는 '이'에 이어 적기하여 '말ᄊᆞ미'가 된 것이다. ② ㉡의 '빅셩이'는 '빅셩' 뒤에 '이'가 쓰인 형태이다. ③ ㉢의 '배'는 '바' 뒤에 'ㅣ'가 쓰인 형태이다. ⑤ ㉤의 '노미'는 '놈' 뒤에 '이'가 쓰인 형태로 이어 적기하여 '노미'가 된 것이다.

06 (나)에 따르면 ㉮의 '좁쌀'은 '조'가 'ㅂ'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쌀'이 'ㅂ'을 가져 'ᄡᆞᆯ'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의 '입때'는 '이'와 '빼'가 결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나)를 통해 첫머리에 'ㅂ'을 가지고 있던 말이 단일어에서는 모두 'ㅂ'이 탈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싸리'는 단일어여서 'ㅂ'이 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의 '암평아리'는 접두사인 '암'이 'ㅎ'을 가지고 있던 때의 '암ㅎ'과 '병아리'가 결합한 복합어라 할 수 있다. ⑤ ㉱의 '수탉'은 '수'가 'ㅎ'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07 〈보기〉에 따르면 'ㅎ 종성 체언은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하면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나랏'에서 'ㅎ'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단독으로 쓰였기 때문이 아니라,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오답 해설 ① '안팎'은 '안ㅎ'에 '밖'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② 현대 국어의 '하늘이'는 중세 국어에서 '하ᄂᆞᆯㅎ'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가 결합하여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으므로 '하ᄂᆞᆯ히'로 썼음을 알 수 있다. ③ 중세 국어에서 '우ㅎ'에 조사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 '과'가 결합하면 'ㅎ'이 뒤의 자음 'ㄱ'과 어울려 '우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현대 국어의 '나라가'는 중세 국어에서 '나라ㅎ'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하여 뒤에 오는 모음에 이어 적으므로 '나라히'로 썼음을 알 수 있다.

08 (가)~(다)는 모두 구체적인 예시를 활용하여 특정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해설 ② (나)는 문화적 변화가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으나 그 영향을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가)~(다)는 모두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국어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으나 국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외래어가 증가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가)와 (나)는 표준어의 지위를 새로 얻은 단어의 예를 통해, (다)는 성공한 순화어의 공통점을 통해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모국어 화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외래어가 순화어로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모국어 화자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순화어는 모국어 화자에게 수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나)의 '애완견'과 함께 '반려견'이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것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는 언어 표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효과', '관건', '교과' 등에 표준 발음이 추가되는 것을 통해 표준 발음을 정하는 데 대중들의 언어생활이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를 통해 공인된 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인정을 받아야 표준어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가)를 통해 '관건'은 [관건]과 [관껀]이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은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표기가 달라지는 것이지 소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답 해설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통해 ㉠과 ㉡은 표준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그런데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를 통해 소리대로 적는 ㉠만으로는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의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 ㉠을 보완하는 표기 원칙이라 할 수 있다. ⑤ ㉡의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은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이다.

11 '여자'와 '남녀'는 모두 소리대로 적은 것이다.

오답 해설 ① '나무[나무]'는 소리대로, '꽃[꼳]'은 [꼬치], [꼰만]과 같이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모양을 밝혀 '꽃'으로 적으므로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② '쓰러지다[쓰러지다]'는 소리대로, '웃다[욷따]'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④ '반드시[반드시]'는 소리대로, '반듯이[반드시]'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⑤ '사라지다[사라지다]'는 소리대로, '걷히다[거치다]'는 어법에 맞게 적은 것이다.

12 '범죄자를 은닉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라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은닉'으로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그녀의 얼굴 근육이 움질 움직였다.'에서 '움질'은 제5항에 따라 '움찔'로 적어야 한다. ② '매일 깍뚜기 반찬을 먹으려니 괴롭다.'에서 '깍뚜기'는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에 해당하므로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③ '이 안건을 오늘 회의에 붙이기로 했다.'에서 '붙이기'는 '다른 곳 또는 다른 기회에 넘기어 맡기다.'라는 뜻인 '부치기'로 써야 한다. ⑤ '우리 마을에 남여 혼성 합창단이 결성되었다.'에서 '남여'는 제10항에 따라 '남녀'로 적어야 한다.

13 '높이'는 '높다'의 어간 '높–'에 '–이'가 붙어서 명사 '높이', '–이'가 붙어서 부사 '높이'가 된다. '깊이'는 '깊다'의 어간 '깊–'에 '–이'가 붙어서 명사 '깊이', '–이'가 붙어서 부사 '깊이'가 된다. 따라서 '높이'와 '깊이'는 명사와 부사의 형태가 동일하다.

오답 해설 ① '먹이'는 '먹다'의 어간 '먹–'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부사는 없다. ③ '굳이'는 '굳다'의 어간 '굳–'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로, 명사는 없다. ④ '굳이', '많이'는 부사로 된 경우로, 명사는 없다. ⑤ '많이'는 부사만 있고, '벌이'는 '벌다'의 어간 '벌–'에 '–이'가 붙어서 명사만 있다.

14 '귓밥'은 '귀(순우리말) + 밥(순우리말)'으로 된 합성어로, [귀빱/귇빱]으로 소리나므로 ㉮에, '두렛일'은 '두레(순우리말) + 일(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두렌닐]로 소리나므로 ㉯에, '제삿날'은 '제사(한자어) + 날(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제산날]로 소리나므로 ㉱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② '곳간(庫間)'은 2음절 한자어에 사이시옷이 나타나는 경우이다. '예삿일'은 '예사(例事) + 일'로 된 합성어로, [예산닐]로 소리나므로 2–(3)에 해당한다. ③ '귓병'은 '귀(순우리말) + 병(病)'으로 된 합성어로, [귀뼝/귇뼝]으로 소리나므로 2–(1)에 해당한다. '훗날'은 '후(後) + 날(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훈날]로 소리나므로 ㉯에 해당한다. ④ '전셋집'은 '전세(傳貰) + 집(순우리말)'으로 된 합성어로, [전세찝]으로 소리나므로 2–(1)에 해당한다. ⑤ '혓바늘'은 '혀(순우리말) + 바늘(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혀빠늘/혇빠늘]로 소리 나므로 ㉮에 해당한다. '뒷일'은 '뒤(순우리말) + 일(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 [뒨닐]로 소리 나므로 1–(3)에 해당한다. '텃마당'은 '터(순우리말) + 마당(순우리말)'으로 된 합성어로 [턴마당]으로 소리나므로 1–(2)에 해당한다.

15 '나에게 만이라도 진실을 말해 주기를 바란다.'에서 '만'은 '단독, 한정'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따라서 '나에게만이라도'로 고쳐 써야 한다.

오답 해설 ① '그가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② '하늘을 보니 비가 올듯하다.'는 제47항에 따라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하므로 '비가 올 듯하다'와 함께 '비가 올듯하다'도 허용된다. ③ '그가 아무래도 힘들겠지 싶었다.'는 제47항에 따라 띄어 쓴다. ④ '그 집에는 소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에서 '밖에'는 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에 붙여 쓴다.

16 〈보기〉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신어 남용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윗글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이 글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다양한 신어를 제시하여 신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② 10여 년간의 조사에서 대략 20~30%의 신어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근거로 신어 사용 문제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③ 〈보기〉는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라는 문자를 활용하여 신어 남용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신조어로 인해 자막이 없으면 방송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한 것은 무분별한 신어의 남용이 의사소통 장애를 가져오는 현실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그래프와 연표 등의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신어가 삶의 변화 양상을 보여 준다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해설 ① 유사한 상황에 빗대어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예시를 활용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언어를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신어의 생성과 확산에 관한 사례를 통해 모국어 화자가 가진 언어의 창조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통계 자료를 통해 역사와 문화의 변화가 신어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신어가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18 신어의 생명력이 길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한 것은 '혼 + 명사'류 신어의 확산이 아니라, 한국어의 10여 년간의 사용 추이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오답 해설 ① "혼-'의 확산은 2024년 3월 최초로 전국 1인 세대 수가 1천만을 넘어 전체 세대의 약 41.8%를 차지한다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의 보고와 무관하지 않다.'를 통해 ㉠은 1인 세대 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이러한 신어들은 모국어 화자가 가진 언어 창조성의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준다'를 통해 ㉠은 모국어 사용자들의 언어 창조성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혼-'의 등장은 과거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이 개인의 활동으로 옮겨가는 것, 더 나아가 공동체 중심의 문화가 개인의 문화로 새로이 범주화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를 통해 ㉠은 개인 중심의 문화로 변해가는 현상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이러한 사례는 신어를 가볍고 격이 낮은 표현으로 인식하는 우리의 평가가 다소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를 통해 ㉠은 신어의 가치를 경시하는 일반적 인식이 왜곡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방송 언어의 역사'는 '방송 언어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오답 해설 ①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은 보고서에 필요한 내용이다. ②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이 조사 절차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는 방송 언어의 실태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내용이다. ⑤ '요약과 제언'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구성하는 내용이므로 보고서 형식을 고려할 때 삭제해서는 안 된다.

20 공동 보고서의 주제를 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다.

오답 해설 ① 주제가 정해지면 자료의 선정과 수집이 이루어진다. ③ 주제가 정해지면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④ 주제가 정해지고 내용이 구성되면 복합 양식 자료의 활용 방안 등을 정해야 한다. ⑤ 공동 보고서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모둠원의 역할과 협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21 글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한 학생의 경험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개요의 '3-다-2)'를 고려할 때, 비속어가 쓰이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과 같이 '아마 많을 것이다'와 같은 추측의 표현은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 ③ ㉢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 제목을 제시하는 것이 정보 전달을 위해 필요하다. ④ ㉣의 '-나'는 강조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로,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46.7퍼센트이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